

2020

# 수단공화국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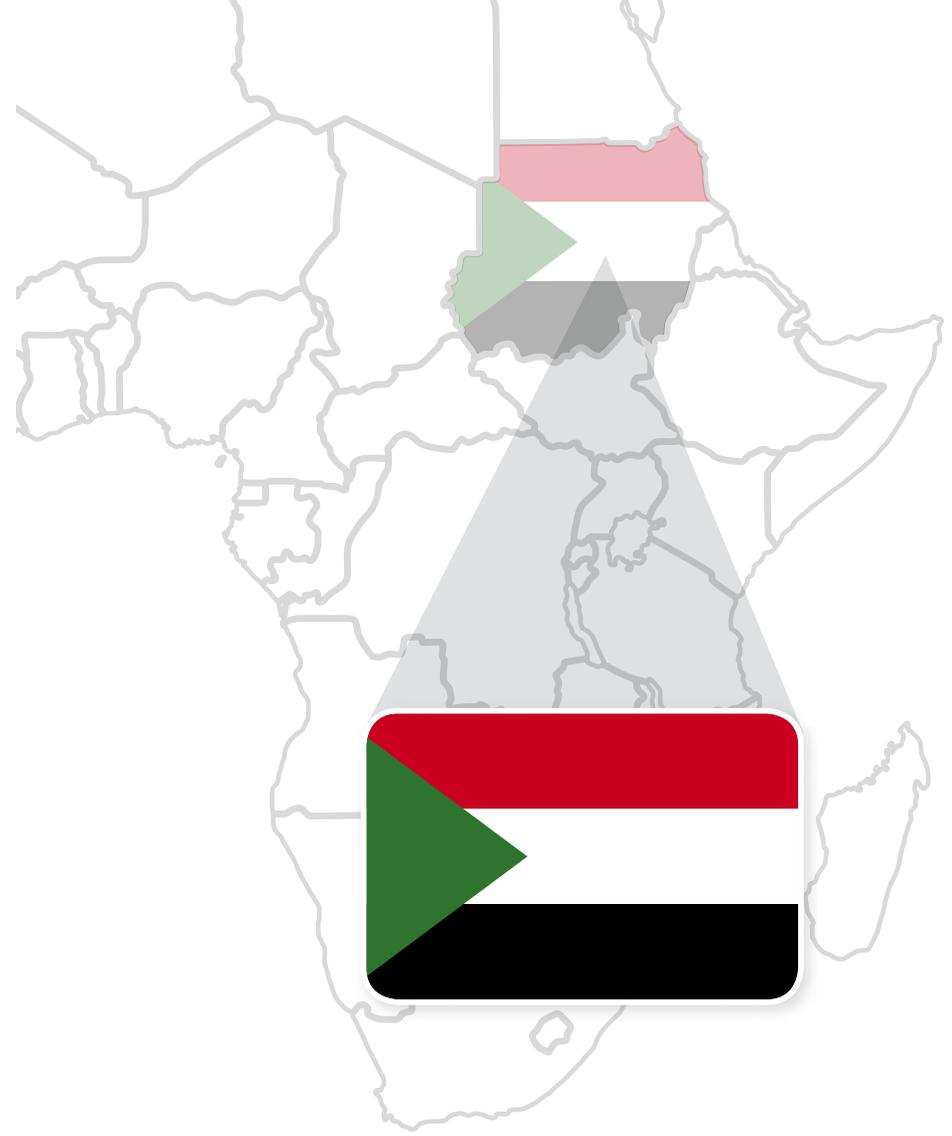
Republic of the Sudan



2020  
수단공화국 개황  
Republic of the Sudan



Sudan



## | 수단 국기 |

수단의 국기는 1970년 5월 20일에 제정

■ 적: 투쟁, 혁명

□ 백: 평화

■ 흑: 검은 대륙의 국가

■ 녹: 농업



| **수단 문장** |

- 1956년 독립당시에는 코뿔소가 들어간 국장이었으나, 1970년에 뱀잡이수리(Secretary Bird)가 들어간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시 수단민주공화국이라는 국명이 아래쪽에 표기), 1985년 수단공화국으로 국명 개명후 현재 형태 유지
- 윗부분의 아랍어는 An Nasr Lana(Victory is Ours)이며, 아래의 아랍어는 Jamhuriya As-Sudan(Republic of the Sudan)



# CONTENTS



<b>I 개관</b> .....	010
<b>II 자연·인문환경</b>	
1. 지정학적 위치 .....	016
2. 지형 특색 .....	017
3. 기후와 강우량 .....	018
4. 민족 .....	019
<b>III 역사</b>	
1. 고대 및 중세 .....	028
2. 근대 .....	031
3. 독립후 남수단 독립 이전 역사 .....	032
4. 남수단 독립 이후 상황 전개 .....	038
5. 바시르 대통령 집권 말기 및 축출 .....	041
<b>IV 국가제도</b>	
1. 수단의 헌법 .....	048
2. 수단과도정부의 정치제도 .....	049
3. 행정부 .....	050
4. 입법부 .....	050
5. 사법부 .....	050
6. 지방정부 .....	050
<b>V 국내정세</b>	
1. 주요 정파 .....	056
2. 최근 정치정세 .....	061
<b>VI 외교</b>	
1. 외교정책 기초 .....	066
2. 대외관계 개관 .....	066
3. 주요국과의 관계 동향 .....	070
<b>VII 군사 분야</b>	
1. 개관 .....	096
2. 주요 군사조직 .....	098
3. 정보기관 .....	100
4. 군수산업 .....	101

<b>VIII 수단문제와 국제사회의 동향</b>	
1. 개관 .....	104
2. 다르푸르 사태 .....	106
3. 남부 2개주 문제 .....	111
4. 국내피난민/난민 문제 .....	115
5. 과도정부지원 .....	117
<b>IX 경제·산업</b>	
1. 개관 .....	120
2.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	123
3. 대외통상 .....	131
4. 미국의 경제·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 .....	135
5. 외국의 원조 .....	138
6. 대수단 투자 .....	139
7. 대외채무 문제 .....	141
<b>X 사회·문화</b>	
1. 종교 .....	146
2. 법률 .....	150
3. 교육 .....	153
4. 언론 .....	155
5. 여성의 지위 .....	157
6. 보건·의료 .....	159
<b>XI 한-수단 관계</b>	
1. 외교관계 .....	162
2. 경제·통상관계 .....	169
3. 개발협력사업 .....	174
4. 문화·학술·체육관계 .....	177
5. 재외국민 현황 .....	178
6. 한국관련 단체 .....	179
<b>XII 북한과의 관계</b>	
1. 양국관계 개관 .....	182
2. 주요 현황 .....	183
<b>XIII 부록</b>	
1. 수단 주요인사 인적사항 .....	188



‘청나일강’을 가로질러 수도 ‘카르툼’의 시내와 ‘투티 섬’을 연결하는 ‘투티’교



# 개관



1 | 일반 

- » **국 명** : 수단공화국(Republic of the Sudan)
- » **수 도** : 카르툼(Khartoum)
- » **국가원수** : 압델 파타 알부르한(Abdal Fattah al-Burhan)
- » **면 적** : 1,861,484km<sup>2</sup>(아프리카 대륙의 6.2%, 한반도의 약 8.6배)
- » **인 구** : 약 4,322만명(2020, IMF)
- » **민 족** : 아랍계(39%), 아프리카계 흑인(30%), 누비안(15%), 베자(12%), 기타 Fur, Copts 등 약 59개 부족(4%)

» **종 교** : 이슬람(97%, 거의 수니파), 기독교·천주교·원시종교(3%)

»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sup>1)</sup> 등 총 114개 언어

» **국 체** : 공화국

» **정부형태** : 39개월 임기의 과도정부

» **의 회** : 현재 미구성

» **독립일** : 1956년 1월 1일

» **유엔가입일** : 1956년 11월 11일

» **국경일** : 1월 1일(독립기념일)

» **화폐단위** : 수단 파운드(SDG) / \$1 = SDG 55(공식환율, 2020년 8월 기준)<sup>2)</sup>

» **GDP** : \$ 336.9억(2019, IMF)

» **경제성장률** : -2.5%(2019, IMF)

» **1인당 GDP** : \$ 759.71(2019, IMF)

» **대외 교역액**(2019년 기준)

- 수출 : \$ 30.2억(금, 석유, 가축, 참깨, 아라비아 고무 등)
- 수입 : \$ 68억(제조품, 기계·장비, 석유 생산물, 밀, 통신장비 등)

1)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통용되지 않음

2) 실제 시장 거래 환율은 2020년 8월 현재 \$1 = SDG 200 수준이며, 만성적인 외환부족으로 현지화의 달러화로 환전은 매우 어려운 상황

» **회계년도** : 1월 1일 ~ 12월 31일

» **기 후** : 남부는 열대성, 북부는 건조한 사막기후(수도 카르툼 일평균 기온 35도 - 50도, 습도 15%이하)

» **도 량 형** : 미터법(현지 농경지 면적단위 : 1 feddan = 4,200 sq/m<sup>2</sup>)

» **정부기관 근무시간**<sup>3)</sup>

- 동계기간(10월~3월) : 08:00~16:00
- 하계기간(4월~9월) : 07:30~15:30

» **국 가** : 수단 국가는 수단이 독립한 1956년에 제정

- 국 명 : 국가찬양
- 가 사 : 우리는 신의 병사 국가의 병사 국가를 위해 이 목숨 바치리 고난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영광을 쟁취하리 이 땅은 우리의 땅 영원히 번영하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토를 수호하리

» **참고사항(수단의 지역적 정체성)**

- 수단은 아프리카 국가이면서 아랍 국가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양 지역에 모두 소속하는 것으로 평가<sup>4)</sup>(이로 인해 African Union과 Arab League에 공히 가입)
- 수단은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 특성이 보다 강하며, 총 약 600여개의 종족 중 대부분은 아프리카계와 아프리카·아랍 혼합계이고 순수 아랍계(Rashaida 종족 등)는 소수에 불과, <sup>5)</sup> 아프리카 종족(Nuer, Dinka, Nuba, Nubians 등)은 토착 수단인이고, 아랍 종족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의 이주자
- 다만, 문화적으로는 아랍 문화가 지배적이며, 아프리카·아랍 혼합계의 대부분

3) 수단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금·토요일이 휴일이며, 라마단기간 중에는 퇴근시간 1시간 단축

4) 남수단은 이에 반해 인종·문화적으로 전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로 분류

5) 아프리카 종족(Nuer, Dinka, Nuba, Nubians 등)은 토착 수단인이고, 아랍 종족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의 이주자

과 일부 아프리카계가 아랍화되어 수단 인구의 절대다수가 이슬람을 신봉하고 대부분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아랍 문화가 각 종족간 연계요인으로 작용

» **수단 및 카르툼의 어원**

- Sudan은 아랍어 bilad al-sudan(흑인의 땅)에서 유래
- Khartoum은 아랍어로 코끼리의 코(elephant trunk)를 의미하며, 카르툼을 경유하여 흐르는 나일강의 만곡부(bend) 형상에서 유래



이집트 제 18왕조(기원전 14~16세기) 파라오 아멘호텝 3세에 의해 수단 '누비아'에 지어진 'Soleb' 사원



## 자연·인문 환경

1. 지정학적 위치 016
2. 지형 특색 017
3. 기후와 강우량 018
4. 민족 019

# II 자연·인문 환경

## 1 | 지정학적 위치

- ▶ 수단은 남수단 독립(2011년 7월) 이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대 면적의 국토를 자랑하였으나 남수단 독립 이후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
- ▶ 수단 영토는 전반적으로 나일강 주류를 형성하는 청나일(Blue Nile)과 백나일(White Nile) 두개의 하류에 연하여 있어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세
- ▶ 예로부터 아프리카 내륙과 아라비아 반도를 잇는 요충지로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으며, 나일강이 관통



▶ 나일강 유역도(watershed)와 국경선이 반영된 나일강 지도

하는 지형의 특색이 큰 요인으로 작용. 현재 7개 국가(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국경분쟁,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정치·외교적 갈등이 지속

## 2 | 지형 특색

### 가. 북부 사막지대

▶ 사하라 사막이 수단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체로 지형이 단조로우나 북동부에는 Red Sea Hill로 불리는 고원지대가 존재. 나일강 주변으로는 매우 비옥한 땅이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도시와 농경마을들이 나일강을 따라 존재하고 있으며 우기에는 하붐(Haboob)이라는 모래먼지를 동반한 지방풍이 산발적으로 발생



▶ Red Sea Hill

### 나. 남부 사헬지대

▶ 수단 남부에는 건조한 사하라 사막에서 열대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경계지대인 사헬지역이 존재<sup>6)</sup>. 대부분이 스



▶ 하붐(Haboob)

6) Sahel은 아랍어로 해안(coast)을 의미

텡초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와 마찬가지로 단조로운 지형세를 보이나 남부에는 1,500m이상의 Nuba 산맥, 서부에는 Jebel Marrah라는 3,024m의 사화산이 존재.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농장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인구와 가축의 증가로 초원이 황폐화되어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도 발견

### 3 | 기후와 강수량

#### 가. 계절 및 기후

- ▶ 대륙성 열대 및 사막기후, 이러한 특성은 남부에서 북부로 갈수록,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원으로부터 서부로 향할수록 더욱 뚜렷
- ▶ 북부 누비아 사막, 홍해연안 및 카르툼 지역은 일반적으로 고온건조하며 5~6월 일평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경우가 잦으며,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상승
- ▶ 남부는 열대성 밀림지역으로 여름 평균기온이 32도에 달하며 우기인 2~3월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30도 초반을 기록

#### 나. 강수량

- ▶ 남부지방에서는 4~11월간 우기가 계속되며 강수량이 1,000mm 이상에 달하는 반면, 카르툼의 북부 Atbara 지역에서는 8월만 우기에 해당하며 강수량도 50mm에 불과

카르툼 기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최고기온 (일평균, °C)	30.7	32.6	36.5	40.4	41.9	41.3	38.5	37.6	38.7	39.3	35.2	31.7
평균 최저기온 (일평균, °C)	15.6	16.8	20.3	24.1	27.3	27.6	26.2	25.6	26.3	25.9	21.0	17.0
총강수량 (일평균, mm)	0.0	0.0	0.1	0.0	3.9	4.2	29.6	48.3	26.7	7.8	0.7	0.0

출처 : 세계기상기구(WMO)

### 4 | 민족

#### 가. 개괄



\* James Copnall, A Poisonous Thorn in Our Hearts: Sudan and South Sudan's Bitter and Incomplete Divorce. Hurst & Company, London. 2014.



▶ 수단은 남수단이 독립한 후에도 다양한 인종과 부족으로 구성. 크게는 아랍어의 모국어 사용 여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십 개의 인종과 약 300여개의 부족이 존재. 다양한 인종과 부족들이 공존하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큼 보수적이진 않으나 내부적으로 출신/종교에 따라 암묵적인 계층 구조가 생성

▶ 인종/부족 출신 자체가 수단 사회에서 큰 힘이 되거나 약점으로 작용. 아랍계 무슬림의 경우 사회의 최상층에 위치할 가능성이 다른 인종에 비해 매우 높으며 반대로 남부 아프리카계 출신 인사들은 자신들의 출신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 카르툼 지역 거주민은 소위 나일강 기슭 아랍계 수단인(Riverine Arab Sudanese)으로서 수단 사회의 상위계층이며, 다양한 인종이지만 피부색의 차이가 있어 수단인 사이에서는 쉽게 구분이 되고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옅을수록 상위계층으로 간주

▶ 과거 북부 수단 지역민들은 남부 수단 주민들을 납치, 노예로 사용하고 노예 무역에 이용하는 등 일부 착취도 있었으며, 영국과 이집트가 수단을 공동통치( condominium)하는 기간중 아랍화되고 상대적으로 문명수준이 높은 북부 아랍계 수단인들이 수단 전역을 통치하게 하여 남북수단간 인종적, 사회적, 종교적 갈등이 극심(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남북수단 지역간 왕래도 불허)

## 나. 주요 종족

### ▶ 수단계 아랍인(Sudanese Arabs)

- 수단 아랍어를 구사하는 순니파 무슬림들이 대부분을 구성하며, 수단의 점진적인 아랍화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수단계 아랍인으로 분류되나 Nubian, Copt, Beja 등과 같이 완전히 아랍화가 되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아랍화가 되었음에도 독자적으로 구분되는 종족도 존재. 수단계 아랍인은 또한 수단뿐

만 아니라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등 해외에도 폭넓게 존재. 수단계 아랍인 안에서도 많은 분파가 나뉘며 대다수가 유목생활을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며 폭넓게 생활하는 분파 다수 존재

### ▶ 수단계 아랍인 구성 주요 분파

#### ① Baggara

- 아프리카 사헬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남코르도판과 차드호 사이에 거주. 인구는 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푸르족에 이어 서부 수단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 소떼를 모는 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현재에도 대부분이 소를 몰며 유목 생활을 하지만 한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
- 오토만 터키에 반대하여 일어난 마흐디 신정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마흐디의 뒤를 이은 Abdallah ibn Muhammad가 Baggara 출신
- 7개의 주요 분파로 분류: Hawazma, Misseriya, Rizeigat, Ta'isha, Habbaniya, Beni Halba, Awlad Himayd

#### ② Awadia/Fadnia

- 카르툼 북부 바유다 사막을 중심으로 분포. 인원은 소수이나 수단 내 몇 안 되는 순혈 아랍계 부족. 말과 소를 기르며 유목 생활

#### ③ Shukria

- 아트바라 강과 블루나일 사이를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하는 순니 아랍계. 카르툼 남동쪽 Gadaref를 중심으로 강줄기를 따라 마을을 형성하여 생활

### ▶ Nubian

- 북부 수단과 남부 이집트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역사 깊은 종족. 과거 누비아 기독교 왕조의 영토(와디할파와 알다바 사이)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왕조 시대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으나 현재는 무슬림.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도시에서 노동자로 생활



### ▶ Fur

- 다르푸르(Darfur) 지역의 핵심 종족으로 인구는 8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언어는 아랍어와 푸르어를 같이 사용. 다르푸르는 '푸르(Fur)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푸르족은 독실한 순니계 무슬림들이자 아프리카계 흑인이며 이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 그러나 푸르 족의 무슬림 문화는 토착 문화/양식과 많이 섞이면서 고유한 특색을 보유. 대부분이 정착민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중심이며 제벨마라(Jebel Marrah) 산맥을 중심으로 다르푸르 지역에 고르게 분포. 제벨마라의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유목민족인 Baggara 아랍계와 충돌하면서 현재의 다르푸르 사태의 중심에 위치

### ▶ Copts

-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종파중 하나로 주류에서 벗어난 단성론자들(3위일체설을 부인하며 예수의 신성만 인정)이며, 대부분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고 카르툼을 포함한 북부 수단에 소수의 콥트들이 고르게 분포(약 50여만 명). 대부분이 이집트에서 최근 이민 온 콥트들이지만 6세기경부터 내려온 정통 콥트도 소수 존재하며, 수단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구대비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 마흐디 신정을 시작으로 수단의 아랍화 정책으로 많은 박해를 받아왔지만 현재는 제한적이거나 정식 종교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콥틱 사제가 정부 고위직에 오른 경우도 존재

### ▶ Beja

-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종족으로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가문들이 다수 존재하나 모두 같은 언어와 관습 아래 생활하며, 일부는 에리트레아와 동부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위치. 대부분은 정착생활을 하나 소수는 유목 생활을 하며 유랑

### ▶ Southern Nilotic

- 덩카, 누에르, 솔루크, 바리, 문다리, 타포사 등의 종족이 해당되며, 남부의 나일강변에서 대부분이 목축을 생계로 하고 일부는 낚시와 농경 생활로 영위. 이

슬람, 기독교, 원시종교 등이 고르게 분포하며 수단에서 최하층을 차지하고 오랜 기간 수단 지배계층으로부터 차별을 받아 남수단 분리독립 주도

## 다. 주요 가문

### ▶ Baggara

- 7개의 주요 세력이 존재(Hawazma, Misseriya, Rizeigat, Ta'isha, Habbaniya, Beni Halba, Awlad Himaydi)

#### ① Hawazma

- 12세기 초 이슬람 선교사들과 함께 수단으로 유입. 사우디아라비아의 베두인 아랍계가 선조이며, 북코르도판의 남부부터 남코르도판의 남부 경계 사이를 유랑하며 생활

#### ② Misseriya

- 코르도판 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아랍부족. 대부분이 유목민이며 차드, 다르푸르 지방에도 분포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각자 독자적인 생활을 이어감으로써 사회/문화적인 괴리가 존재

#### ③ Rizeigat

- 남다르푸르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르푸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아랍계 부족으로 크게 북쪽의 낙타 유목민과 남쪽의 소를 기르는 유목민으로 구분. 남쪽 유목민들이 다르푸르 사태의 큰 축인 잔자위드의 대부분을 구성했었으나 수단 정부가 Rizeigat 거주 지역의 발전을 도외시키고 평화협상 참여를 불허하자 이에 반발하여 더 이상의 징집을 거부

#### ④ Ta'isha

- 시나이 반도의 베두인 아랍계로서 1504년에 수단으로 처음 유입하였으며, 남다르푸르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이 유목 생활. 여름에는 생활 지역에 따라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을 넘나들며 가축과 함께 이동. 마흐디의 반란을 도운 주요 세력 중 하나이며 마흐디 신정 때 많은 인구가 옴두르만으로 이주하여 도시 건설에 기여



⑤ **Habbaniya**

- 순니 아랍계이며 대부분이 유목생활. 다르푸르, 북코르도판, 남코르도판에 걸쳐 폭넓게 분포

⑥ **Beni Halba**

- 다르푸르 지역의 주요한 Baggara 아랍계 분파 중 하나이며, Rizeigat과 더불어 잔자위드를 구성하는 주요 세력. SPLA(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반군의 주요 인사인 Daud Bolad가 다르푸르를 침공했을 때 기마병을 중심으로 이를 궤멸시키고 Daud Bolad를 생포하는데 일조. Daud Bolad는 이후 카르툼으로 잡혀가 고문을 받고 사망하였으며 다르푸르 반군인사 한명 한명을 소상히 적은 군사기밀까지 입수한 Beni Halba는 반군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

⑦ **Awlad Himayd**

- 남코르도판의 동쪽에 대다수가 분포하는 순니 아랍계 분파로서 목축과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Baggara내에서 용맹함으로 유명한 세력. 코끼리와 기린은 물론 사자 등 맹수 사냥을 즐기는 등 사냥술이 발달

» **Ja'aleen**

- Shaigiya와 더불어 수단에서 가장 큰 아랍부족 중 하나로서 수단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북부와 카르툼, 그리고 게지라 주를 중심으로 분포. 1820년 이집트의 침공 때 나일유역의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으며 마흐디의 폭동 때 가장 먼저 마흐디 측에 섰던 부족 중 하나. 인구는 2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많은 인구가 현재까지 농경/유목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단 도시 인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도시로 이주를 많이 하였고 도시 상권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 **Shaigiya**

- Ja'aleen과 더불어 규모가 가장 큰 아랍부족 중 하나로서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의 무슬림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누비아 왕조와 왕래하면서 유입. 누비아 사람들과 섞이면서 독자적인 부족을 구성하였고 대다수가 누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마흐디의 폭동 때 반대편이었던 고든 장군의 편에 섰으나 마흐디의 승리로 통치자가 교체되면서 많은 수의 부족민들이 사형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면서 숫자가 급감하였고, 영-이집트 연합군이 수단을 지배하면서 다시 부흥. 이후 수단 정부군으로 재편된 이집트군의 대다수를 구성

» **Rubatab**

- Ja'aleen, Shaigiya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북부 수단을 구성하는 순니 아랍계의 주요 부족 중 하나. 다른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수단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메로위와 카르툼, 그리고 게지라 주를 중심으로 분포. 나일강 토착민들로서 이슬람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여 아랍화된 종족

» **Manasir**

- 인근의 Shaigiya, Rubatab과 함께 북부 수단을 구성하는 순니 아랍계의 주요 부족 중 하나. 상기 두 부족과 비슷하게 나일강 토착민들로서 이슬람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여 아랍화된 종족이지만 대부분이 농경이 아닌 카르툼 북부 바유다 사막을 중심으로 베두인적 유목 생활을 하며 유랑. 인구는 약 5만 명



‘Horus 신과 검은 파라오’ 부헨(Buhen) 사원의 벽화\_카르툼 박물관



# 약사

1. 고대 및 중세 028
2. 근대 031
3. 독립후 남수단 독립 이전 역사 032
4. 남수단 독립 이후 상황 전개 038
5. 바시르 대통령 집권 말기 및 축출 041

# III

## 약사



### 1 | 고대 및 중세



#### 가. 선사 시대 및 쿠쉬(Kush), 메로위(Merowe) 왕조

- ▶ 문화가 태동하고 문명의 발전으로 고대 왕조가 들어선 시기. B.C. 5000년경부터 사막화를 피해 신석기인들이 나일강 인근으로 이주하면서 토착민들과 섞이며 계급사회가 발달하기 시작. 이를 바탕으로 수단 최초의 고대 왕조인 쿠쉬 왕조가 케르마(Kerma)를 수도로 하여 B.C. 1700년경 출현
- ▶ B.C. 1100년경부터 이집트의 신왕조 시대가 저물면서 쿠쉬 왕조는 누비아(Nubia)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립하고 나파타(Napata)를 중심으로 왕조를 구축, 나일강 유역의 중심세력으로 부상. B.C. 715년경에 사바카(Shabaka)왕이 이집트 전역을 지배하면서 수도를 멤피스(Memphis)로 옮기고 이집트 제25왕조 시대를 개막
- ▶ B.C. 674년부터 시작된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쿠쉬왕조는 남부로 밀려나기 시작



△ 메로위 지역 Begarawiyah 북부 피라미드군

했으며 아시리아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쿠쉬 왕조에 의한 이집트 제 25왕조 시대는 멸망. B.C. 591년에는 나파타마저 페르시아에 정복당하자 메로 위로 천도하면서 메로위를 중심으로 하는 쿠쉬 왕조 시대를 개막

- ▶ 이후 생존을 위해 사하라 이남 지역과 중동과의 교역에 집중하고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되면서 점차 아프리카화. 이후 900년간 존속한 쿠쉬 왕조는 A.D. 320년 경부터 시작된 악숨(Aksum) 왕국(에티오피아 북부지역 발원)의 공격에 의해 국력이 쇠퇴하면서 결국 악숨왕국에 의해 멸망
- ▶ 고대로마 시대부터 악숨왕국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서방에서는 이 쿠쉬왕조의 영토를 '에티오피아' 라고 불렀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어 "Aethiops"(검게 탔다는 뜻에서 유래

#### 나. 누비아 기독교 왕조

- ▶ 쿠쉬 왕조 멸망 후 북쪽의 노바티아, 중앙의 마쿠리아, 남쪽의 알와로 구성된 누비아 삼국시대로 이어졌으며, 이들 삼국은 540년부터 수단에 이주하기 시작한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 여제 테오도라의 그리스도교 선교단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교로 개종. 단성설(3위일체가 아닌 예수의 신성만 인정)로 대변되는 콥트 교회를 수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집트 및 지중해권 문명과 다시금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

## 다. 이슬람 도래

- ▶ 640년부터 이집트를 점령한 무슬림들이 누비아 기독교 왕조들을 위협하기 시작. 기독교 왕조들은 바크트(Baqt) 조약을 통해 매년 400명의 노예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고 장기간 지속된 평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기 시작. 하지만 동시에 무슬림 상인과 인부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슬람화
- ▶ 수세기간 지속되던 평화도 1270년부터 시작된 이집트 맘룩 술탄 바이바르스 1세의 본격적인 남벌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1315년에 동골라가 함락되면서 누비아 지역이 무슬림의 지배하에 놓이며 아랍화의 시대 개막. 그러나, 무슬림들이 누비아 지역에 대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지 못하면서 무슬림 통치자, 누비아 왕조의 후손, 누비아 토착 부족 등이 각자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지역을 나누어 지배
- ▶ 한편, 아프리카 흑인 계통인 Funj족이 다르푸르에서 이동하여 수단 중남부 지방을 지배하면서, 1504년 Funj 국가(Funj Sultanate: 1504-1821)를 수립하여 1821년까지 존속하였는데, Funj 국가도 이슬람을 수용하여 신봉<sup>1)</sup>

1) Funj 국가에 대해서는 다르푸르가 아닌 남쪽에서 북상하였다는 등 그 기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 제기

## 2 | 근대



### 가. 오토만 터키(1821-1885)

- ▶ 1821년에 오토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 모하메드 알리가 수단의 북부지역을 점령하고 칭나일과 백나일이 만나는 지점에 군사기지를 건설, 아랍어로 '코끼리의 코'라는 뜻을 가진 카르툼이라 명명하였으며, 이후 카르툼은 이집트의 수단 행정수도로서 기능
- ▶ 1869년에는 사무엘 베이커가 이집트 총독 이스마일을 대신하여 남수단의 에퀴토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수단의 영토가 확장되었으며 이후 이집트 총독의 권유로 찰스 고든이 에퀴토리아 지역의 통치자로 부임, 이후 수단 전역에 대한 통치를 관장

### 나. 마흐디(Mahdi) 신정(1885-1898)

- ▶ 1881년에 Muhammad Ahmad Abdulla가 스스로를 마흐디(이슬람에서 구세주)라 선언하고 이슬람의 개혁 투쟁세력을 규합하여 종교적 폭동을 주도하였으며, 1885년에 카르툼으로 진격하여 찰스 고든 수단 총독을 살해하고 카르툼을 점령. 카르툼을 점령한 마흐디는 6개월 후 장티푸스로 사망
- ▶ 마흐디의 뒤를 이은 Abdallah ibn Muhammad는 군국주의를 통해 확장을 도모하여 남쪽과 동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진출하였고 이어 이집트를 침공하였으나 영국군에게 패배. 곧바로 영국이 이집트 군과 함께 수단을 침공/정벌하고 영-이집트간 수단 공동통치 협정(condominium)을 맺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영국 식민통치 시대 개막

## 다. 영국-이집트 통치(1898-1955)

- ▶ 1920~30년대 영국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수단인과 수단에 대한 이집트 지배권을 주장하는 이집트 민족주의자의 반발로 수단총독 살해사건이 발생. 영국은 이에 이집트 관료들을 수단에서 축출하고 12년간 수단을 단독 통치하며 수단 내 이집트의 영향력을 약화
- ▶ 1943년부터 영국은 수단의 정치적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립. 초기에는 북수단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이후 남수단을 포함한 단일정부체제로 전환하였고 저항운동이 나날이 격심해짐에 따라 1953년 2월에 이루어진 영-이집트 협정에서 수단의 자치독립을 위한 3년간 준비기간에 합의

## 3 | 독립후 남수단 독립 이전 역사



### 가. 독립 및 제1차 수단 내전<sup>2)</sup>

- ▶ 1956년 1월 1일에 영국과 이집트 승인 하에 수단은 독립을 성취. 이후 1958년 11월에 Ibrahim Abboud 장군이 무혈 쿠데타로 군사정권을 수립하였으나 확실한 기반을 다지지 못하면서 1964년 10월 카르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군정 반대 시민혁명으로 민간 정치인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

2) 한편 수단 독립을 준비하던 초기 단계부터 카르툼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의 북부와 아프리카계 기독교도의 남부 간 갈등은 지속되었는데, 영국은 수단과 남수단을 독립적인 지역으로 통치해오다가 1946년 중동전략에 의거해 하나의 단일체로 묶으면서 남북 갈등을 잉태. 독립을 준비하며 북부에 더욱 많은 권한이 주어지자 이에 불만을 느낀 남수단 무장세력이 남부 수단의 독립을 목표로 에퀴토리아에서 1955년 8월 18일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1차 수단 내전을 촉발. 제1차 내전(1955-1972)으로 인해 40만명의 민간인과 10만명의 군인이 사망

- ▶ 1965년 5월 총선거에서 Muhamed Ahmad Mahgoub가 집권하였으나 당쟁과 남부문제 등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회복치 못한 끝에 1969년 5월 Gaafar Muhammed Nimeiri의 쿠데타로 군부통치 재개. 군부 정부는 수단사회주의를 선언, 국호를 수단민주공화국으로 개칭하는 한편 구정치인 및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고 외국인 자산과 은행을 국유화
  - 이후 제2차 내전(1983-2005), 다르푸르 내전(2003~), 2개 지역(Blue Nile주, South Kordofan주) 내전(2011~) 등 수단은 지속적인 내전에 직면

## 나. 니메이리(Nimeiri) 정권

- ▶ 니메이리는 공산주의 세력을 타도하고(좌익 장교단 쿠데타 음모 분쇄) 1972년 1월 총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취임, 수단 사회주의 연맹(SSU)을 창립하고 단일 정당제를 채택
- ▶ 1955년부터 지속된 17년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자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1972년 3월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부인의 북부인에 대한 적대 종식, 남부인의 분리주의 목표 포기, 남부지역 자치제 승인 등을 규정
- ▶ 니메이리가 미국 방문중이던 1985년 4월 6일, 다하브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군사령관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니메이리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군사위원회를 설치. 이후 과도 민간 내각 구성을 거쳐 민간정부수립을 위한 총선을 1986년 4월에 실시한 끝에 수단 첫 민간연립정부를 수립하고 Sadig Al Mahdi를 수상으로 선출

## 다. 제2차 수단 내전 발발

- ▶ 제2차 수단 내전은 유전지대를 놓고 북부와 남부가 충돌한 것이 22년간 이어진 세계 최장의 내전 중 하나인바, 1차 내전을 종식시킨 아디스아바바 협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2차 수단 내전이 발발

- 제2차 내전은 1983년 남부 수단 반군 세력인 SPLA의 창설과 함께 1983년 4월부터 2005년 1월 포괄적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PA)을 체결할 때까지 22년간 지속. CPA를 통해 남부수단의 독립여부를 투표에 회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부 수단은 2011년에 남수단으로 분리·독립. 2차 내전으로 인해 2백여만 명이 전쟁 또는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4백여만 명이 난민이 된 것으로 추산
- 니메이리 정권이 Bentiu(1978년), South Kordofan·Blue Nile(1979년), Unity Oilfields(1980년), Adar Oilfields(1981년), Heglig(1982년) 등 남부와 접경지대에 있는 유전지대를 무력으로 점거 시도
- 아디스아바바 협정이 남부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고 여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더욱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였는바, 니메이리는 수단 전체를 이슬람 국가라고 천명하면서 남부 수단의 자치권을 박탈

## 라. Sadig Al Mahdi 내각

- » Sadig Al Mahdi가 Umma Party와 Democratic Unionist Party(DUP)간 연립정부 하에서 1986년 5월 수상으로 선출되고 이듬해 1987년 4월 2일에 신헌법을 제정하나, 남부 지방의 정치세력이 다수 불참하면서 잠정적인 성격의 헌법이라는 평가<sup>3)</sup>
- » 아울러 치안악화, 경제질서 혼란 등 내정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서 정치적 통제권이 약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알-바시르 대통령이 Al-Turabi 주도의 이슬람형제단 정당인 National Islamic Front(NIF)의 정치적 지원 하에 1989년 6월 30일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Mahdi를 실각시키면서 정권 장악<sup>4)</sup>

3) 이후 Al-Turabi 주도의 이슬람형제단 정당인 National Islamic Front(NIF)도 1988년초 연정에 참여

4) Sadig Al Mahdi는 1966-1967년 및 1986-1989년간 두 차례 민간정부하에서 수상을 역임하였으며, 1989년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최대 야당인 National Umma Party의 수장으로서 정치활동 지속 중

## 마. 알-바시르(Al-Bashir) 정권

- » 알-바시르 대통령은 헌법 정지, 국회 및 정당 해산, 언론통제 등을 통해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져 장기집권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
  - 1990년 4월에는 쿠데타 음모혐의로 군장성 및 장교 28명을 처형하는 등 군사적 쿠데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아울러 1991년 1월 1일부로 이슬람 율법(Sharia Law)을 실시함으로써 이슬람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나, 기독교·원시종교로 구성된 남부 3개주는 동 법 적용 제외
  - 미국은 1993년 8월에 수단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
- » 혁명위원회가 1993년 10월 16일 자진 해산하고 알-바시르의 대통령 취임을 결의하면서 알-바시르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화
  - 알-바시르는 1996년 3월 야당의 불참속에 실시된 선거에서 75.7%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 취임
  - 1999년 12월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나, 이듬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및 국민의회 선거에서 86% 이상의 득표를 바탕으로 재집권에 성공함과 동시에 국회를 정상화
- » 2003년 2월 수단 서부지방 차드(Chad) 접경지역인 「다르푸르 지역」에서 수단 정부 소외정책에 불만을 느끼고 봉기한 SLM·JEM반군과 Janjaweed 민병대간 무력충돌이 2003년 발생하며 다르푸르 사태 촉발. 2004년 4월 8일 동 사태의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연합(AU) 중재 하에 다르푸르 지역 정전협정(Humanitarian Ceasefire Agreement)이 체결되고 정전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AU 정전감시단(AMIS)을 배치
- » 한편 수단 2차 내전의 결과로 2005년 1월 9일 수단-남부수단 반군간 포괄적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을 체결하고 2011년에 남부수단이 남수단으로 분리·독립하는데 합의
  - 이를 준비하기 위해 CPA 및 과도헌법(2005년 7월 6일 제정)에 의거, 2005년 7월 9일

에 6년 기한의 과도정부 출범

- 과도정부 구성: 알-바시르 대통령, John Garang 제1부통령 겸 남부수단 자치정부 대통령
- 한편 남부인들의 강한 지지를 받았던 John Garang 제1부통령이 2005년 7월 30일 우간다 방문 후 귀국중 헬기추락으로 사망하자 수단 정부(북수단)의 소행이라 의심한 카르툼 거주 남부인들에 의해 8월 1일에 폭동 발생

### [ 포괄적 평화협정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PA) ]

- ▶ Naivasha Agreement로도 불리며, 내전 종식과 더불어 민주적인 정치의 확산과 석유 수익금 분배 등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남수단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포함
- ▶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오랜 기간 내·외부적으로 수많은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복잡한 이익관계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데 실패를 거듭하다가 1993년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rought and Development)의 중재로 양측이 협상에 돌입하여 2005년 1월 9일 포괄적 평화협정에 서명
- ▶ 위 협정을 맺기 위해 양측은 2002년부터 6개의 협상 및 서명 :
  - The Protocol of Machakos, Chapter I (2002년 7월 20일)
  - The Protocol on Security Arrangements, Chapter VI (2003년 9월 25일)
  - The Protocol on Wealth-Sharing, Chapter III (2004년 1월 7일)
  - The Protocol on Power-Sharing, Chapter II (2004년 5월 26일)
  - The Protocol on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Southern Kordofan/Nuba Mountains and Blue Nile States, Chapter V (2004년 5월 26일)
  - The Protocol on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Abyei area, Chapter IV (2004년 5월 26일)
- ▶ 수단정부에서는 또한 개발 소외에 불만을 갖고 동부수단 자치권을 주장하면

서 동부지역에서 활동하던 반정부세력인 동부전선(Eastern Front: Beja Congress와 Rashaida족)과 2006년 10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동부지역 개발을 위해 Eastern Sudan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und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동부지역 정세를 안정화

- Beja Congress로서는 2005년 CPA 체결 이후 남수단반군(SPLA)의 지원이 중단되고, 알-바시르 대통령의 에리트레아 방문 등으로 수단-에리트레아간 관계가 개선되어 에리트레아의 지원도 중단됨에 따라 수단정부와 평화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배경<sup>5)</sup>

- ▶ 다르푸르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06년 8월 유엔은 안보리결의(1706호)를 채택해 수단 남부지역 유엔평화유지군(UNMIS)을 다르푸르 지역으로 확대 배치키로 했으나 수단 정부가 거부
  - 이후 2007년 6월 수단정부는 혼성 평화유지군(PKO)의 파견을 수용하였으며, 이어 2007년 7월 유엔 안보리결의(1706호)가 채택됨으로써 AMIS의 평화유지 임무가 유엔/AU 혼성평화유지군(UNAMID)으로 이관<sup>6)</sup>
- ▶ 한편 다르푸르 사태가 지속 악화되고 인도, 인권문제가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2005년 3월 유엔안보리는 다르푸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였으며, ICC는 2007년 4월 최초로 2명의 수단인(Ahmed Haroun 인도장관 및 Ali Kushayb 민병대 지도자)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기소
  - 이어 2008년 7월 알-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여 2009년 3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어 2010년 7월 대량학살(genocide) 혐의를 추가하여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ICC와 아프

5) 수단 동부지역에서는 비아랍계 무슬림계통인 Beja족이 주로 거주하면서 독립직후인 1957년 Beja Congress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하여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여 왔는데 1990년대 후반에 들어 SPLA, NDA(에리트레아내 수단반정부단체) 등과 함께 에리트레아의 비호하에 연합하여 1999~2000년경 동부지역 핵심지역인 Kassala까지 위협

6) UNMIS는 2005년 3월 24일 유엔안보리 결의 1590호에 의거, 2005년 CPA 이행지원을 위해 창설되어 활동하다가 2011년 7월 9일 남수단 독립에 따라 임무를 종료하였으며, 동일자로 UNMISS가 이를 대체

리카 국가들 간 ICC의 공정성 논란 등 야기<sup>7)</sup>

- ▶ 2011년에는 포괄적평화협정(CPA)에 의해 출범한 과도정부가 6년의 시한에 도달, 협정에 따라 남수단 독립여부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국민투표 결과 99.8%가 독립을 지지하여 남수단이 2011년 7월 분리독립

## 4 | 남수단 독립 이후 상황 전개



### 가. 재정·경제적 위기

- ▶ 수단은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과 함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거액의 외채탕감 등을 기대하였으나, 다르푸르 사태 지속과 함께, 기존 남수단 반군 일부세력(SPLM/N)이 남코르도판주와 블루나일주에서 자치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속함에 따라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남수단 독립으로 인해 75%에 달하는 유전지대를 상실하면서 재정·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수단은 남수단 독립 전 원유수출로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선정(17위)되기도 하였으나, 남수단 독립 후 유전상실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위기 도래
- ▶ 이로 인해 물가급등 및 보조금 삭감 등으로 시민들의 반감이 고조, 2012년 6월 카르툼에서 1주일간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 2013년 9월에는 정부의 유류보조금 삭감에 반발해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정부의

7) 2014년 12월 ICC 소추관은 유엔안보리에서 알-바시르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토록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사 중단을 발표하였는데, ICC측은 2015년 6월 이는 수사 포기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였다고 하면서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알-바시르 대통령이 AU 정상회의차 남아공 방문시 남아공 정부에 동 대통령의 신변인도를 요청(2015년 6월 13일)

강경진압에 따라 200여명의 사망자 발생

### 나. 남수단과의 관계 설정

- ▶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에 따라 국경선 확정, Abyei 귀속문제, 기존 외채문제, 남수단 석유 수출을 위한 북수단 파이프라인 이용문제 등 상호 해결해야 할 사안 이 많아 2012년 9월 상호관계 규율 등에 관한 9개의 협정에 서명하고 이행을 위한 각종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협의하여 왔으나, 2013년 12월 남수단내 내전발생에 따라 구체적 이행이 무산

### 다. 다르푸르/2개주 반군 활동

#### [ 다르푸르 ]

- ▶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에도 불구하고 다르푸르 상황과 관련하여 큰 진전이 없이 다르푸르의 독립 등을 주장하는 JEM(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등 반군세력의 활동이 계속되어 2007년 파견된 UNAMID가 계속 주둔중
- ▶ 2003년에 시작된 다르푸르 사태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 저강도(low intensity) 차원에서 통제가 되고는 있으나, 반군세력의 게릴라식 활동과 이에 대응한 정부의 군사작전 등으로 난민(IDP)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인권·인도적인 문제 수시 발생
- ▶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해 2011년 5월 카타르 도하에서 포괄적 평화과정을 위한 기본장치라고 할 수 있는 다르푸르 평화 합의서(DDPD: Doha Document for Peace in Darfur)가 채택되었고, 이어 2011년 7월 수단 정부와 다르푸르 무장단체의 하나

인 LJM<sup>8)</sup>(Liberation Justice Movement)간에 이의 이행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되었으나, 일부의 반군만이 참여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

### [ South Kordofan / Blue Nile 2개주 ]

- ▶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에도 불구하고 남수단 SPLM의 일부였던 SPLM/N은 수단-남수단내 접경지역인 South Kordofan 및 Blue Nile 등 2개주에서 자치권 확보 등을 목표로 수단정부에 대항하여 투쟁을 계속
  - 상기 2개주는 남수단과 인접하고 있고 수단-남수단 내전 당시에 SPLA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평화협정(CPA)에서도 2개주를 특별 취급, 주민협의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단에 속하지만 수단내 여타 주에 비해 자치권을 보다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
  - 남수단 독립을 앞두고 2011년 5월 남수단 정부군인 SPLA와 수단군간 Abyei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으며, 이어 2011년 6월 수단 정부군과 2개주의 수단 귀속에 반대하는 SPLM/N간에 South Kordofan에서 전투가 발생하고 이어 Blue Nile까지 전투가 확산됨에 따라 2개주 내전 발발
  - 2011년 6월 아프리카 연합(AU)과 에티오피아 총리 Meles Zenawi의 중재로 양측 간에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서명되었으나, 알-바시르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거부
- ▶ 수단 정부와 반군측은 이후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와 AU의 중재 하에 에티오피아에서 간헐적으로 협상을 해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현격히 달라 진전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12월 수단 정부는 대화를 중단

8) LJM은 2010년에 결성된 다르푸르내 소규모 반군단체로서 JEM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2011년 DDPD 참여 후 지도자인 Tigani Seisi가 신설된 다르푸르 지역정부(DRA: Darfur Regional Authority)의 수장으로 취임

## 5 | 알-바시르 대통령 집권 말기 및 축출



### 가. 국민대화 정국

- ▶ 알-바시르 대통령은 2014년 1월 27일 수단내 야권 및 시민사회, 반군세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속된 민주화 요구에 대응키 위한 방안으로 수단내 제정파가 참여하는 국민대화(National Dialogue) 추진을 선언
  - 이는 2011년 남수단 독립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이로 인한 2013년 9월 대 국민 시위, 미국 등 서방권과의 관계증진, 2005년 과도헌법 대체 새헌법제정, 2014년 10월 NCP 전당대회, 2015년 5월 선거 등을 감안한 다목적 포석으로 간주되었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 수단내 야권 등에서는 수단내 민주화 진전을 위한 기대감을 갖고 국민대화 선언을 크게 환영
- ▶ 국민대화는 2014년 4월 6일 NCP, PCP, DUP 등 주요야당을 포함하는 83여개의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원탁회담을 개최하고 국민대화 추진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14명(정부측 7명 + 야당측 7명)으로 구성되는 국민대화위원회(NDC: National Dialogue Committee)를 구성기로 결정
  - 범야권인 NCF(National Consensus Forces), 공산당 등은 ▲ 자유통제법(freedom restricting law) 폐지, ▲ 정치범 석방, ▲ 반군과의 교전 중단, ▲ 과도정부 구성 등의 전제조건을 제기하면서 원탁회담에 불참
- ▶ 이후 국민대화 정국은 야권 및 반군단체들의 대대적 보이콧 및 국내 정세 경색 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수단 정부는 2015.4월 대선 및 총선 압승(알-바시르 대통령 94% 득표율 재선)을 계기로 국민대화를 계속 추진하여, 2015년 10월 10일 국민대화의 개시를 공식 선언
  - 제안자인 알-바시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대화의 메커니즘은 ▲ 총회(최고의 사결정기구), ▲ 6개 위원회(경제, 기본권, 정체성, 대외관계, 거버넌스, 국민대화 결과 이행 분야 논의), ▲

7+7 위원회(여·아 각기 7인이 참여하는 상설 고위협의체) 및 ▲ 사무처로 구성

- ▶ 주요 야권 및 반군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대화 추진을 비난하며 이에 불참하였으나, 민의 규합 능력 및 중심점 부재로 유의미한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대화를 막후 주도,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프로세스를 종결하는 총회(General Conference)를 2016.10.10 개최하고 최종 문서인 국민장전을 채택함으로써, 약 3년에 걸친 국민대화 프로세스가 마무리

## 나. 알-바시르 대통령의 재집권

- ▶ 알-바시르 대통령은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2015년 4월 선거에서 94.05%의 압도적 다수로 재선되어 5년간 재집권하게 되었으며, 집권당인 NCP도 절대다수로 의회를 재장악하게 되어 1인 절대권력 체제를 공고화
  - 알-바시르 대통령은 또한 2015년 1월 헌법 개정을 통해 18개 주지사에 대한 임명권도 확보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

## 다. 수단정부-반군간 항구적 평화 협상

- ▶ 수단정부는 다르푸르 지역 및 남부 2개주(South Kordofan주, Blue Nile주) 반군에 대해 화해 및 회유를 시도하면서도, 2013년 신속대응군<sup>9)</sup>(RSF)을 창설한 이래 "Decisive Summer Operation"의 명명하에 반군세력에 대한 공세를 한동안 지속

9) 신속대응군(Rapid Support Force)은 수단반군(SPLM/N, JEM 등) 등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2013년 중반 정보부(NISS) 통제하의 특별기동부대로 창설되었으며, 초기에는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되었으나 2015년 1월 헌법개정을 통해 NISS가 정규군의 일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규군화

- ▶ 이러한 가운데, 반군<sup>10)</sup>들은 AU의 중재하에 2016년 8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정부 측과 적대행위 중지 및 분쟁 종식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양측간 평화협상은 구체 조건에 대한 상호 이견이 지속되면서 난항
  - 2018년 2월 정부-남수단 반군<sup>11)</sup>은 AU 중재에 따라 아디스아바바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세부 의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

- ▶ 알-바시르 정부는 반군에 대한 일방적 정전을 지속 연장하고, 2017년 1월 미국 등 서방측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 국제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성과는 미미

- ▶ 반면, 반군측은 서방측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었으나, 절대 불리한 전황 및 고질적인 내부 분열(SPLM/N의 2개 분파 분열), 국제사회의 압박 등 불리한 상황에서 뚜렷한 타개책을 미제시
  - 2018년 2월 아프리카 연합 평화안보위원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는 반군측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

- ▶ 한편, 다르푸르 최대 반군조직인 JEM(Justice and Equality Movement)은 2015년 이래 지속해서 내부 분열을 거듭하며 점차 약화되어 왔으며, 2020년 현재 실질적으로 와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

## 라.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해제

- ▶ 알-바시르 정권은 그간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의 원인을 미국의 대수단

10) 다르푸르 반군 : 2003년 정부 지원 민병대(잔자위드)의 다르푸르 학살 이후 정부에 대항하여 결성된 반군 (SLA-AW, JEM)

11) 남부 2개주 반군 : 2011년 남수단 독립시 수단으로 편입 확정된 남부2개주 내 반군이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 지속 (SPLM/N, SPLM-al-Hilu)

제재 해제로 돌려왔으며, 특히 대내적으로 미국의 제재만 해제되면 외자유치 및 무역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

▶ 그러나, 미국이 지난 2017년 10월 약 20년간 지속해온 대수단 포괄적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 대수단 무역·투자·금융거래를 허용하였으나 수단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제재 해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외환거래 및 부채 탕감이 어려운 상황

### 마. 반정부시위 발생 및 알-바시르 대통령 축출

▶ 2018년 12월 19일 수단내 지방도시 아트바라 市에서 유류가격 및 빵값 인상에 항의하여 벌어진 대중시위는 순식간에 수단 전역으로 확산

- 시위 규모는 점점 커져갔으며, 정부측에서 시민 대상 최루탄 살포 및 실탄 발포를 하는 가운데 알-바시르 대통령은 2019년 2월 전국단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나, 시민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지속

▶ 2019년 4월 11일, '과도군사위원회(Transitional Military Council)'가 알-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하였으나, 과도군사위원장인 Ibn Auf 장군이 이틀만에 물러나고, al-Burhan 장군이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

▶ 알-바시르 정권 붕괴 직후 과도군사위원회가 임시 집권하면서 시민세력과의 권력이양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민간 범야권세력인 「자유와 변화 세력(FCC: Forces of Freedom and Change)」과 통치위원회(sov<sup>er</sup>ign council) 인원 구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권력이양 협상이 장기간 난항

- 이러한 가운데 반정부시위 규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계속해서 민간인 대상 과잉진압 및 발포가 발생하고 인터넷 전면 차단 조치 등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탄압이 시행, 특히 2019년 6월 3일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대량 발포로 인해 하루만에 178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상황이 극도로 악화

### 바. 임시 과도정부 구성

▶ 이후 2019.7월 과도군사위원회와 범야권세력(FCC)간 정치합의문(Political Agreement) 서명, 2019.8월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선언문(Constitution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으며, 총 39개월 임기의 과도정부가 구성되어 통치위원장으로 al-Burhan 장군이, 민간측 총리로 Hamdok 前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사무총장 대행이 임명

- **(과도정부 통치기간 및 주요 임무)** 과도정부 통치기간은 총 39개월<sup>12)</sup>이며, 주요 임무는 ① 초기 6개월간 수단내 평화정착, ② 前정권 과오 책임규명 및 관련기관 해체, ③ 6.3 시위대 유혈 지압 사태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 등임
- **(통치위원회/Sovereign Council)** 통치위원회는 군부 5인, 야권 5인, 기타 민간인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직은 군부측 위원이 첫 21개월, 야권측 위원이 나머지 18개월을 수행 / 통치위원회는 행정부(Council of Ministers) 및 의회(Legislative Council)의 구성을 감독하며, 반군과의 협상 과정을 통제 / 통치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통치위원 3분의 2의 동의 하에 채택
- **(의회/Legislative Council)** 국회의원 수는 300명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최소 40%를 여성에게 배당 / 범야권세력이 67% 의석, 여타 세력이 33% 의석 구성 / 90일 내에 의회 구성
- **(행정부/Council of Ministers)** 야권이 총리를 지명하며, 총리는 야권 추천에 기초하여 20명 이내 정부부처 장관들을 지명(단, 국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은 군사과도위원회가 지명) / 통치위원회가 행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주거나 행정부 구성원 해임 불가
- **(군 등 권력기관 재편)** 반군과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s)은 수단 정규군(SAF: Sudanese Armed Forces) 사령관 겸 통치위원장 지휘체계로 편입되며, 수단 정보부(GIS: General Intelligence Service)의 권한은 정보 수집 및 분석으로 제한

12) 2019.8월~2022.11월, 반군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변동 가능



수단 'Meroe' 피라미드\_쿠쉬왕조(B.C. 1,070~A.D. 350)



## 국가제도

1. 수단의 헌법 048
2. 수단과도정부의 정치제도 049
3. 행정부 050
4. 입법부 050
5. 사법부 050
6. 지방정부 050

# IV

## 국가제도



### 1 | 수단의 헌법



- ▶ 수단의 현행헌법은 2005년 타결된 포괄적평화협정(CPA: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에 따라 동년 제정된 과도헌법(Interim National Constitution)으로 1998년 제정 헌법을 대체
- ▶ 위 헌법은 문자 그대로 과도헌법으로 2011년 7월 남수단 분리독립에 따라 위 헌법 규정에 의거, 마땅히 새헌법(Permanent Constitution)이 제정되어야 하였으나, 수단내 정치상황 등에 따라 새 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계속 존속 중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 다수
  - 또한 과도헌법을 따를 경우 위헌 여지가 다분한 조항이 기존 헌법에 존재하여 과도헌법은 헌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 남수단 독립 이후 수단정부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를 대폭 반영한 새로운 헌법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제정 실패

- ▶ 수단 의회는 2015년 1월 4일 대통령과 정보기관(NISS: National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부 헌법 개정을 단행
  - 대통령에게 주지사 임명권한 부여(기존에는 주민 직접선거 선출)
  - 정보기관이던 NISS를 정규군으로 편입(산하 준군사조직이던 신속대응군을 합법화)
  - 다르푸르 도하평화협정문서(DDPD)를 헌법상에 반영 등
- ▶ 2019년 8월 수단 과도정부가 구성되면서 수단 군사과도위원회 및 범야권세력인 자유와 변화 세력(FFC: Forces of Freedom and Change)과의 합의하에 '헌법선언문(Constitutional Document)'에 서명

### 2 | 수단과도정부의 정치제도



- ▶ 연방제(Decentralized System of Governance)
  - 연방정부, 주정부(현재 18개주), 지방정부로 구성
- ▶ 과도정부 통치위원회(Sovereign Council) 구성
  - 통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 수반 역할 수행
  - 총 11인의 위원 중 군사과도위원회와 FFC에서 각 위원 5인을 선출하며, 양측이 동의하는 독립적인 민간인 출신의 1인이 11번째 위원으로 활동
  - 총 3년 3개월의(39개월)의 과도기간 중 군사과도위원회에서 초반 21개월간, 야권세력이 후반 18개월간 통치위원회를 주도
- ▶ 선거관리 기관
  - 수단에서의 선거는 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ttee)에서 관장하며, 선거권은 18세 이상에게, 그리고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국회의원은 21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

### 3 | 행정부



» 민간야권세력(FFC)이 기술관료 중심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며, 총리를 지명

### 4 | 입법부



» 과도정부 수립 후 3개월내 구성하기로 되어있었으나 2020년 8월 현재까지 미구성

### 5 | 사법부



» 2019년 8월 과도정부 구성 후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Judicial Council)이 수립되어 과거 사법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Judicial Services)를 대체하고, 위 조직이 대법원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권을 시행

### 6 | 지방정부



#### 가. 개괄

» 수단은 1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주정부와 주의회가 존재하며, 크게 북

부 수단, 중부·홍해, 서부의 다르푸르, 남수단 접경 등 4개의 권역으로도 분류

#### 나. 지방행정 제도

» 헌법선언문 규정(주지사는 내각 총리가 임명)에 따라 과도정부 출범 이후 민간 출신 주지사로 교체

#### 다. 주요 지역

##### (1) 북부 수단 지역

» 구성 : Khartoum, Northern, River Nile

- 수단의 수도 및 북부 사막지대를 포괄. 동골라, 메로위, 케르마, 움두르만, 카르툼 등 고대 왕조 및 현재의 중심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나일강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지대. 카르툼을 중부로 분류하는 시각도 존재하나 북부 아랍계 지역권으로 묶는 시각이 주류

##### (2) 중부·홍해

» 구성 : Gezira, Gadarif, Kassala, Red Sea

- 홍해부터 수단의 동부와 카르툼 남쪽의 Gezira까지 아우르는 지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와 맞닿아 있으며 나일강을 따라 정부주도로 개발된 광활한 관개 농경지대가 존재

### (3) 다르푸르

» 구성 : North · South · West · East · Central Darfur

- '푸르족의 땅'으로 불리우며 다르푸르 사태의 중심지. 기존에는 3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수단 정부가 동부(East) 및 중앙(Central) 다르푸르 주를 신설하여 2015년 기준 5개의 주로 분할. 이를 두고 반정부주의자들은 다르푸르 지역 반군들간의 분란을 초래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된 정책이라며 비난

### (4) 남수단 접경

» 구성: North · South · West Kordofan, White Nile, Sennar, Blue Nile

- 다르푸르 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내적 갈등과 더불어 남수단과 접경하고 있어 수단-남수단간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 현재 SPLM/N이 남코르도판 주와 블루나일주에서 반군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세 불안 상태 지속

#### 각 주별 세부사항

구 분	주도	지역구(개)
Northern	Dongola	7
River Nile	El-Damar	7
Khartoum	Khartoum(수도)	7
Gezira	Wad Madani	7
Sennar	Sinja	6
Gedaref	Gedaref	12
Kassala	Kassala	11
Red Sea	Port Sudan	10
Blue Nile	Ed-Damazin	7
White Nile	Rabak	8

Darfur	North	El-Fashir	13
	South	Nyala	21
	West	El-Geneina	8
	East	El-Diayn	9
	Central	Zalinji	8
Kordofan	North	El-Obeid	13
	South	Kadugli	16
	West	El-Fula	5

※ 자료: Sudanese Cabinet(2015)



카르툼 시내 전경



# 국내정세

1. 주요정파 056
2. 최근 정치정세 061



## 1 | 주요 정파

### 가. 개괄

- ▶ 수단의 정당은 대체로 정치적 결사체의 성격보다는 종족과 종교를 대변하고 심지어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에 따라 대체로 각 정당은 ① 종족의 지도자, ② 종교의 지도자, ③ 이념의 지도자 등 3명의 지도자를 보유
- ▶ 이러한 가운데, 2018년 12월 반정부 시위 시작 이래 기존 정당세력이 아닌 수단 전문직연합(SPA:Sudanese Professional Association)이 약진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여타 기존 정당들과 연합하면서 범야권세력 자유와 변화세력(FFC:Forces of Freedom and Change)을 구성하여 다소 새로운 구조로 재편

### 나. 주요 정당

#### (1) 수단전문직연합(SPA:Sudanese Professional Association) 및 자유와 변화세력(FFC:Forces of Freedom and Change)

- ▶ 의사, 교수,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수단전문직연합(SPA:Sudanese Professional Association)은 2018년 12월 반정부 시위 시작 이래 시위를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일종의 정치결사체로 변모
  - 명확한 지도부가 있는 것이 아닌 집단지도체제로 운영
- ▶ 2019년에 들어 SPA가 여타 반정부 또는 반군부 세력의 주장격이 되면서 여타 기존 정당들과 연합 세력을 구축, 자유와 변화세력(FFC:Forces of Freedom and Change) 형성
  - 특히, 이들은 2019년 8월 민간주도 과도정부가 형성되면서 일종의 여당격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주요 사안에 있어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의사표현을 당-정간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바시르 정권시절 반정부시위 조직 세력이 하던 것과 같이 시위·행진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향

#### (2) National Congress Party(NCP)

- ▶ 수단내 주요 이슬람 세력중의 하나인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전위정당으로 1998년경 Hassan Al-Turabi<sup>1)</sup>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알-바시르 정권의 여당으로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2019년 4월 알-바시르 대통령 축출 및 2019년 8월 과도정부 수립 등으로 사실상 와해 단계

1) Al-Turabi는 NCP의 전신인 National Islamic Front(NIF)의 지도자로서 1989년 6월 알-바시르(현 대통령)의 군부와 손잡고 군사혁명을 성공시켜 집권하였으나, 1998년경 들어 알-바시르와의 권력투쟁에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NIF를 재조직하여 NCP 창당(그러나 Al-Turabi는 곧 NCP에서 축출되어 PCP 창당)

## (2) Popular Congress Party<sup>(PCP)</sup>

- ▶ 알-바시르 정권 하 주요 야당중 하나이며, 수단내 이슬람 운동의 선구자로 1989년 알-바시르 정권을 사실상 출범시켰던 Hassan Al-Turabi<sup>2)</sup>가 1999년 권력다툼에서 패하고 2000년 NCP에서 축출되면서 설립

## (3) National Umma Party<sup>(NUP / Umma는 아랍어로 공동체를 의미)</sup>

- ▶ 수단 독립(1956) 이전인 1945년에 설립된 정당(통상 "Umma Party"로 지칭)으로서 ▲ 민주주의, ▲ 다양성, ▲ 시민권에 기반을 둔 헌법 제정, ▲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존중, ▲ 부의 공평한 분배, ▲ 자유공평선거 등을 지지하며, 도덕, 이슬람, 지식, 경제 등에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이슬람 르네상스"와 근대화를 표방
- ▶ DUP와 함께 수단내 전통정당으로 Mahdi를 추종하던 이슬람운동인 "Ansar"계통이고, 독립직후 및 Nimeiri정권 붕괴 후 집권한 바 있으며, 수단 대중들의 지지가 크고, 수단 북부와 Gezira 주, Darfur지역에서 강력한 지지
- ▶ 2020년 현재는 FFC 일원으로 합류

## (4) Democratic Unionist Party<sup>(DUP)</sup>

- ▶ NUP와 함께 수단의 독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정당인 NUP의 후신으로서 1956년 독립 후 NUP의 Ismail Al-Azhari가 초대 수상으로 취임
  - NUP는 People's Democratic Party와 1967년 합병하면서 Democratic Unionist Party로 당명 변경

2) Al-Turabi는 국회의장으로서 알-바시르를 무력화시키고자 시도하다가 1999년 제거되었고, 2000년 들어 군사독재 철폐시위를 선동하다가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NCP 사무장직에서 퇴출

- ▶ 전신인 NUP는 수단내 Sufism의 최대 종파인 Khatmiyya 계통으로서, 주로 수단 동부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였으며(Umma Party는 서부지역), 창당초기 이집트와의 합병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해당 주장을 폐기
  - 영국은 1948년 수단에서 최초의 의회를 구성하였고, 1952년 선거에서 National Unionist Party가 최대의석 확보

- ▶ 민주선거를 통해 집권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수단 정당으로서 수단 독립 이후 군사 쿠데타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수단의 통합(Unity of Sudan)"이라는 핵심 가치에 ▲ 민주적 다원주의, ▲ 사회민주주의, ▲ 사회적 정의, ▲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중립외교 노선, ▲ 오로지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을 주요 강령으로 표방

- ▶ 2011년 12월 이후 알-바시르 대통령하 연립정부에 참여하였으나, 2015년 4월 선거참여 과정에서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 분당(DUP-original 및 DUP-registered로 분리)

- ▶ 2020년 현재는 FFC 일원으로 합류

## (5) Sudanese Communist Party<sup>(SCP)</sup>

- ▶ 수단의 전통적인 정당중의 하나로서 반정부, 좌파 성향의 정당이며, 다당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은 편이나, 지난 2010년 및 2015년 선거 시 계속 불참하면서 강경야당으로 존재

- ▶ 공산당은 Nimeiri가 1969년 군사혁명 후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였을 당시 잠시 Nimeiri 정권과 연대하바 있었으나, 이후 알력이 발생, 1971년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거세당하였으며, 이후 유력정당으로서의 입지 상실

- ▶ 2020년 현재는 FFC 일원으로 합류

## (6) Sudan Ba'ath Party<sup>(SBP)</sup>

▶ 범아랍주의(Ba'athism)를 신봉하는 반정부 성향의 정당으로서 대국민대회에 있어서 선결조건(분쟁지역내 즉각적인 정전, 정치활동 금지법 해제, 과도정부 수립 등)을 제시하는 등 정치적 선명성을 표방하나,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2010년 및 2015년 선거시 불참

▶ 2020년 현재는 FFC 일원으로 합류

## 다. 정치 연합체 및 기타 세력

### (1) Sudanese Revolutionary Front<sup>(SRF)</sup>

▶ 다르푸르 지역 및 Blue Nile주, South Kordofan주내 주요 반군세력들이 2011년 11월 결성한 연합체로서 창설 당시 SPLM/N, SLA-AW, SLA-MM 및 JEM 등 4개 단체가 참여

- JEM이 이슬람 기반, 여타 3개 단체가 세속(secular) 성향의 단체로서 간혹 불협 화음 노출

### (2)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North<sup>(SPLM/N)</sup>

- 정식 정당은 아니며, 제2차 수단 내전(1983~2005)시 남수단 반군을 이끌었고 현재 남수단의 집권당으로 John Garang이 1983년에 창설한 SPLM의 북부 지부로서 2011년 남수단 독립 후 별개의 단체로 재조직
- 수단 정부는 남수단 독립후에도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SPLM/N의 주장을 무시하고 반군단체로 간주하고 있으나, 2013년 1월 AU 정치안보 이사회(AUPSC)가 양측간 직접협상을 촉구한 이래 AU의 중재하에 수단 정부와

협상을 수차례 진행

### (3) Sudan Liberation Army<sup>(SLA)</sup>

- 다르푸르 지역내 반군단체로서 Fur, Zaghawa, Masalit 족을 중심으로 주로 구성
- 동 단체는 2006년 아부자 협정(Darfur Peace Agreement) 참여 여부를 놓고 SLA/Minni Minawi(SLA/MM)와 SLA Abdul Wahid(SLA/AW) 분파로 분열
- SLA/MM은 2006년 아부자 협정에 반군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서명하였으나 이후 탈퇴하여 반군으로 복귀

## 2 | 최근 정치정세



### 가. 30년만의 민간 주도 과도정부 수립

▶ 2019년 8월 민간 주도 과도정부 수립으로 지난 1989년 알-바시르 전 대통령의 군사쿠데타 이후 약 30년만에 민간 주도 정부가 설립되었으며, 전세계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이를 축하

▶ 2019년 9월 각료들이 임명되었으며, 그간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층 및 여성계의 참여가 컸던 점을 반영, Asmaa Mohamed Abdalla 외교장관을 수단 최초의 여성 외교진으로 임명되는 등 새로운 변화 시도

▶ Hamdok 총리 등 수단 내각을 중심으로 ▲ 미국, 유럽 등 對서방 관계 개선 및 對 수단 지원 확보, ▲ 경제구조 개선, ▲ 인권 상황 개선(2020.4월 여성할례 폐지 등)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 무장세력과의 평화협정 진전,<sup>3)</sup> ▲ 前정권 세력 축출 등 일부 성과를 거양

## 나. 정치·경제적 불안정 지속

- » 민간주도 과도정부 수립 이후에도 2018년 12월 반정부시위의 원인이 되었던 수단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단기간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시민혁명'이 끝난 후 높아져있던 기대에 비해 초인플레이션 및 수단 파운드화 가치 폭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
  - Hamdok 총리는 이를 타개할 해결책으로서 미국과의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에 총력
- » 이러한 가운데, 2020년 3월 9일 Hamdok 총리에 대한 차량 폭탄 암살 시도가 발생하고, 알-바시르 전 정권을 추종하는 정치이슬람세력이 여전히 잔존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도 지속

## 다. 코로나-19 영향

- » 2020년초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 또한 수단에 영향, 2020년 4월 국경이 전면 폐쇄되고 전면 통행금지 조치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단 내 사회·경제 상황 악화가 더욱 심화

3) 2019.11월 과도정부와 무장세력(SRF: Sudanese Revolutionary Front)간 평화협정 초안 성격의 주바 선언(Juba Declaration) 채택, 2020년 8월평화협정 가서명

## 라. 과도정부-무장 세력간 평화협정 합의

- » 2020년 8월 31일 과도정부와 주요 무장세력은 약 11년간의 평화협상 끝에 평화협정 가서명
  - SLA-AW와 SPLM/N al-Hilu는 해당 가서명에 불참, 이후 9월 3일 SPLM/N al-Hilu는 향후 평화 프로세스 동참을 위한 과도정부와의 합의 서명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 합쳐지는 곳에 위치한 ‘Two Niles Mosque’



## 외교

1. 외교정책 기초 066
2. 대외관계 개관 066
3. 주도국과의 관계 동향 070

# VI

## 외교



### 1 | 외교정책 기조



- » 2019.8월 서명된 헌법선언문(Constitutional Document)에 외교정책 기조 명시
  - 최고의 국익을 성취하기 위한 균형잡힌 대외정책
  - 국경, 국가 안보, 주권을 보전하고,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수단의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

### 2 | 대외관계 개관



#### 가. 아랍중심 외교

- » 수단은 지정학적인 면에서 Arab-Africa Identity를 주장하면서 아랍과 아프리카간

교량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아랍연맹(Arab League)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에 동시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아랍지역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대내외정책 추진

- » 1956년 독립 이후 현 알-바시르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정권은 이슬람정권으로서 수단의 아랍화 및 이슬람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범아랍주의(Pan-Arabism)을 지지하였고, 기독교 중심의 남수단측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2011년 남수단 독립 이전까지 수단내전 야기
  - 단, 2009년 알-바시르 대통령의 ICC 피소 이후 아프리카 국가 지지획득 필요성과 다르푸르 사태 등과 관련 AU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증진에 보다 큰 관심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외관계 중요성은 여전히 아랍세계에 치우친 경향

#### 나. 수단독립 이후 외교변천사

- » 1956년 독립이후 1969년 Nimeiri 정권수립 이전까지는 제3세계의 비동맹중립주의에 동참하였으며, 수단이 식민지 당시 영국-이집트의 공동통치(condominium) 국가였다는 점에서, 이집트와의 관계설정이 주요 관심사안
- » Nimeiri 정권(1969~1985년) 당시에는 초창기에 수단 공산당의 지원과 함께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소련 등 공산주의 노선이었으나, 1971년 공산당의 쿠데타 시도를 계기로 공산당을 축출하고 소련이 수단에 적대적이던 에티오피아의 Mengistu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함에 따라 점차 친미(親美)로 선회
- » 알-바시르 정권의 초창기(1989~1999년)에는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지도자로서 알-바시르 정권의 최대 주주였던 al-Turabi의 영향으로 과격 이슬람세력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대외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미국 등 서방권과의 관계 악화

▶ 알-바시르 대통령이 1999년 al-Turabi를 정권에서 완전히 축출한 이후에는 보다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했으나, 2005년 남수단과의 CPA체결에도 불구하고 2003년 다르푸르 사태 촉발에 따라 미국 등 서방권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였고 대신 1999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

▶ 한편, 알-바시르 대통령 퇴진(2018.4월) 및 과도정부 수립 이후, 그간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사무총장 대행으로 근무하던 Hamdok이 과도정부 총리로 취임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

## 다. 최근 주요동향

### (1) 테러지원국 해제

▶ 수단은 미국이 지난 2017년 10월 약 20년간 지속해온 대수단 포괄적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 대수단 무역·투자·금융거래를 허용하여 경제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제 금융시장 편입(외환거래) 및 IMF, World Bank 등에서의 외채 탕감 등의 구체 효과는 수단이 아직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과도정부가 수립된 2019년 8월 이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

▶ 이에 수단은 미국과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sup>1)</sup>을 2018년 11월 이래 진행하고 있

1) 미국의 수단의 테러지원국 해제 요구 조건  
 · 대테러 협력 확대  
 · 인권보호 개선(언론 및 종교의 자유 포함)  
 ·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 개선  
 · 수단내 적대행위 중단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환경 조성  
 · 테러 관련 미결 사안 해결을 위한 조치 시행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며, 새로 출범한 과도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

### (2) 주변국가와의 관계

▶ 수단은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리비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 갈등과 관계 안정을 반복하는 경향<sup>2)</sup>

▶ 중동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후세인 지원, 이란과의 군사·정치협력 등으로 사우디 등 GCC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였으나, 이후 사우디, UAE이 대수단 투자 및 지원을 증대하자 알-바시르 정권이 이에 응하여 점차 친사우디·UAE 경향을 노정

• 또한, 2019.9월 수단 과도정부 출범당시에도 사우디와 UAE가 수단측에 상당한 액수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당분간은 수단과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sup>3)</sup>

### (3)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강화

▶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수단과 서방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미국 석유회사 Chevron의 수단내 석유활동(1974~1992년)이 완전 종료됨에 따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석유를 매개로 하여 수단에 적극 진출하였으며, 이후 수단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

2) 이집트의 경우 Mubarak 대통령 암살미수사건(1995년), Halayeb Triangle 영토분쟁, 에티오피아는 Mengistu 사 회주의정권의 남수단 반군(SPLM/SPLA)지원, 리비아의 경우 카다피의 다르푸르 지배 의도, 차드의 경우 상호 반군지원문제, 에리트레아의 경우 수단 야당연합체인 NDA 비호와 수단동부지역 반군인 Beja Congress지원 등의 사유로 갈등 경험

3) 수단-이란 단교(2016.1월) 및 사우디측 요청에 의한 수단의 예멘전 파병(2015년-현재)등이 수단-사우디·UAE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

» 이와 관련, 알-바시르 대통령은 2014년초 “서방의 이중성, 약속파기, 제재조치에 따라 수단은 동쪽, 즉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동방정책(Look-Eastward Policy)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중국이 미국 등 서방권이 떠난 공백을 채웠기 때문에 수단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당연한 것이고, 정치적인 압력이나 조건이 없는 수단-중국간 협력이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고 언급

» 현 수단 과도정부(2019.8월-현재)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 유지중

### 3 | 주요국과의 관계동향

#### 가. 남수단과의 관계

##### (1) 개 관

» 남수단은 과거 수단과 같은 국가를 공유하였고 남수단 독립 후에도 양국 간에는 국경문제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평화유지·경제 발전 등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수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

» 수단과 남수단 양측은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후 양자간 관계를 확정하고 규율하기 위해 2012년 9월 27일 상호관계 규율 등에 관한 9개의 협정에 서명하고 분야별 각종 메커니즘을 구성하기도 했으나 2013년 12월 남수단 내전이 발발하면서 양측간 대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수단측은 알-바시르 대통령 시기부터 남수단 내전사태의 중재역을 수 차례 자임해왔고, 남수단측은 수도 주바(Juba)를 현 수단 과도정부와 분쟁지역 무장단체들과의 협상장소로 제공하는 등 다소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착 수단-남수단간 중요 이슈에 관한 진전은 없는 상황

**[ 상호관계 규율에 관한 9개 협정 ]**

**안보장치관련 협정(The Agreement on Security Arrangements)**

- 양국간 2005년 CPA의 성실한 이행을 다시금 약속하고 국경에서 양측 병력을 즉각 철수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국경선을 따라 비무장지대(Safe Demilitarized Border Zone: SDBZ)를 운영하는데 합의

**상대국 국민의 지위에 관한 기본협정(The Framework Agreement on the Status of Nationals of the Other State)**

- 상대국 국민의 지위에 대한 합의로서, 거주, 이동, 경제적 활동, 자산 축적/사용 등 4개의 자유 원칙을 강조

**국경문제에 대한 협정(The Agreement on Border Issues)**

- 국경선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문으로서 유연한 국경지대(soft border)를 설정하여 사람간의 왕래, 거래 등이 막힘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의

**무역과 무역관련문제에 대한 협정(The Agreement on Trade and Trade-Related Issues)**

- 양국은 각자 독자적으로 무역 규범/정책을 설정하는데 합의하고 양국이 가입한 지역·국제기구의 규범에 따라 이러한 규범/정책을 설정할 것을 약속

### 중앙은행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한 기본협정(The Agreement on a Framework for Cooperation on Central Banking Issues)

- 경제/금융 정책에 있어 양국이 협력할 것에 합의하고 국제금융법에 따라 정책을 설정하기로 약속

### 기존 정부 근무자 복지혜택 지급 촉진을 위한 기본협정(The Framework Agreement to Facilitate Payment of Post-Service Benefits)

- 기존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남수단 독립 이후 자신의 국적에 맞는 정부 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합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근무연급의 지속성을 양측 정부가 담보하기로 약속

### 특정경제문제에 대한 협정(The Agreement on Certain Economic Matters: Divis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Arrears and Claims and Joint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남수단 독립 이후 자산과 부채의 분할 문제에 대한 합의로서, 수단이 대외채무 구제를 2년 뒤에 받는다는 조건하에 2년간 수단이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는데 합의하는 한편, 양국 정부는 이러한 채무 구제의 현실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약속

### 석유 관련 경제문제에 대한 협정(The Agreement Concerning Oil and Related Economic Matters)

- 양국은 남수단이 석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남수단에서 생산된 석유가 수단을 관통하는 운송수단을 통해 국제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남수단 독립으로 수단이 받을 경제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양측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 협력협정(The Cooperation Agreement)

- 분야를 막론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앞서 맺어진 모든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

## (2) 주요 현안

### ▶ 국경선 확정 및 비무장지대 설정

-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수단-남수단간 국경선 확정문제가 대두되었고, 수단-남수단 양측은 2011년 7월에 Joint Border Verification and Monitoring Mechanism(JBVMM)을 마련하여 비무장지대(Safe Demilitarized Border Zone: SDBZ)를 설정/관할하는데 합의
- 후속조치로 2011년 11월에 아프리카연합(AU)의 고위급 패널인 AUHIP가 비무장지대 기준선(centerline)을 제시하였지만, 동 기준선이 Kiir강을 따라 그어져 Kiir강 이남의 소위 "14 Miles"<sup>4)</sup> 지역이 남수단 행정관할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수단측이 거부하였으며, 수단측은 동 지역이 수단에 속하며 분쟁의 대상<sup>5)</sup>이 아니라는 입장
- 2012년 9월 27일 양측 정상은 비무장지대 설정기준(중간선 기준 양측 10km)과 "14 Miles" 지역의 완전한 비무장화에 합의함으로써 안보합의(Security Arrangement)가 성사되었지만, 남수단측이 "14 Miles"지역(동서방향)의 범위(scope)에 대해 새로운 주장 제기
- 2014년 11월 공동국경위원회(Joint Border Commission(JBC))를 아디스아바바에서 구성하고 비무장지대 및 국경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개최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기준선에 대한 이견, 국경선 주변에서의 양측 반군세력의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 등으로 오랜시간 해결이 정체
- 2019년 8월 취임한 Abdalla Hamdok 수단총리가 2019년 9월 남수단을 방문하여 Salva Kiir 대통령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양국간 다양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계속되는 수단내 경제난 및 코로나19 관련 대응 등 산적인 국내문제로 단기간내 진전을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

4) 핵심 국경분쟁지역인 "14 Miles" 지역(Abyei 서쪽에 위치)은 Dingka Malwal측과 아랍유목민인 Rizeigat측간 역사적인 분쟁지역으로서, 1924년 Muroe-Wheatly 협정에 의해 "아랍유목민인 Rizeigat측의 땅"으로 규정되었는데 주장이 있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주장도 제기

5) 수단-남수단간 국경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14 Miles와 Abyei 이외에도 Dabatal-Fakhar, Jabel Al-Migainis, Kafia Kanji, Samaha 등 여타 지역도 분쟁의 대상

### ▶ 아비에이 지역 최종 지위

- 약 10,500 sq/km<sup>2</sup>의 아비에이(Abyei) 지역은 남수단 분리독립 이전에는 수단 South Kordofan주의 일부였으나, 유전지대인 동 지역에 대해 수단과 남수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수단측이 실효지배중
- 아비에이 지역은 남수단 주류인 딩카(Dinka)족과 연관이 있는 응곡딩카(Ngokdinka)족이 살고 있으며, 건기 및 우기에 맞춰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하고 있어 정확한 국경선 획정이 어려운 상황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05년 CPA에서도 아비에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아비에이에 대해 특별행정지위를 부여하고 남수단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동시에 아비에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① 북수단 특별행정지위 지속, ② 남수단 Bahr el Ghazal주 소속 중에서 선택·결정토록 규정
- 2013년 10월 아비에이에서 응곡딩카족이 중심이 되어 수단과 남수단 중 편입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실시. 수단을 지지하는 북부 아랍계는 불참하고 딩카족만이 참여한 동 투표에서 남수단으로의 귀속에 99% 이상이 찬성하였으나 수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제사회도 일방적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바, 아비에이 문제는 수단-남수단 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해결이 어려운 핵심사안 중의 하나
- 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유지활동국 사무차장 또한 2019.10월 UNISFA(United Nations Interim Security Force for Abyei) 관련 브리핑에서 아직도 양국 간 Abyei의 최종지위에 관한 진전이 없음을 지적



△ Abyei

### ▶ 석유 수출

- 75%의 유전지대를 지닌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수단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수단의 석유를 국제시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송유관이 수단을 가로질러 북동부 홍해에 위치한 석유수출항 Port Sudan으로 이어짐에 따라 송유관 사용료<sup>6)</sup> 및 석유 수익금 분배를 두고 수단-남수단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

- 남수단이 독립한 직후 석유 수익금 분배를 두고 양측은 협상을 시작했지만 수단은 배럴당 \$32~36을, 남수단은 배럴당 \$1 미만을 제안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말에 수단이 남수단 석유수익금 일부를 송유관 사용료 명목으로 몰수하자 2012년 1월에 남수단은 석유생산을 중단
- 2012년 9월 맺어진 일련의 협정을 통해 양측은 송유관 사용료 및 석유 수익금 분배에 관해 합의하고 석유의 안정적인 생산/운송을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3년 3월에 남수단은 석유생산을 재개
- 2013년 12월 남수단 내전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2015년 들어 남수단측은 유가하락 등에 의해 석유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하면서 수단의 송유관, 정유 시설, 저장탱크 등의 사용료 인하 요구(수단측은 2015년 7월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
- 2020년 4월 현재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원유 생산 및 운송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관리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2019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생산량은 2010년 생산량의 절반에 불과



△ 주요 석유인프라

6) 석유정제 시설 및 송유관 사용료로 배럴당 \$9.1~11, 남수단 독립에 따른 수단의 경제적 손실 보상비로 30.28억불을 지급하되, 동 보상비는 수단의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배럴당 \$15씩 지급기로 합의함으로써 배럴당 \$24.1~26을 남수단이 수단측에 지급기로 결정

### ▶ 외채문제

- 2012년 9월 수단-남수단 양측은 남수단 독립이전에 지니고 있던 외채의 분할 문제에 관해 합의하여, 기존 외채를 수단이 잠정 부담하되 양측이 2014년 9월 27일까지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수단이 보유한 외채가 탕감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마감시한까지 외채 탕감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외채를 분할기로 하는 소위 제로옵션(Zero Option)에 합의
- 마감시한을 앞두고 양측은 동 시한을 수 차례에 걸쳐 연장해왔으나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채 2019년 4월 퇴진하였고, 이후 별 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나.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

### (1) 미국

- ▶ 미국과 수단은 ▲ 아랍/이슬람 국가인 수단의 비동맹 아랍외교 추종 ▲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 ▲ 수단의 이슬람 강화, 독재 정치, 인권 유린 등으로 수단 독립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긴장관계를 유지
- ▶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 당시 미국과 수단은 한때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나, 친소정책을 추구하던 니메이리 정권이 1971년 수단 공산당의 쿠데타 불발 사건을 계기로 친서방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1972년 미국과 국교 재개
- ▶ 이후 1973년 3월, 팔레스타인 극좌파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이 주수단 미국대사와 차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수단정부에서 용의자들을 즉각 체포하였지만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은데 이어, 1974년에 이들을 이집트 정부에 이양하자 양국관계는 다시금 경색

▶ 1976년에 니메이리 대통령이 북부 에티오피아에서 에리트레아 반군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던 10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석방을 중재하자 미국은 수단에 대한 경제지원을 재개<sup>7)</sup>하면서 양자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수단은 1978년 사다트의 캠프데이비드 협정 서명을 지지

▶ 그러나, 1989년 6월 알-바시르 쿠데타 발생이후 이슬람화 심화 및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다시 불편해졌으며 1990년 걸프전 당시 수단의 이라크 지지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

▶ 이후 미국은 수단이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자를 국내 설치 캠프에서 훈련시켜 국제 테러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 1993년 8월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주수단 미국대사관 직원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등 대수단 압박을 강화<sup>8)</sup>

▶ 1997년 11월 미국은 수단정부의 국제테러리즘 지원, 주변국 정세불안 기도, 종교적 박해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미국내 수단정부의 자산동결과 미-수단간 금융거래를 포함한 무역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1998년 8월초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 폭파사건 용의자에 수단인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주수단 미국대사관을 폐쇄한데 이어, 8월 20일에는 수단 Al Shifa공장을 화학무기 생산시설로 판단, 미사일 공격

▶ 미국은 2000년에 주수단대사관을 재개하여 이후 대사대리를 파견하고 있으며, 2000년 중 FBI-CIA팀의 수단 파견과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양국간 정보협력에 따라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2005년 CPA체결에도 불구하고 2003년 다르푸르 사태 등으로 2006년 미국이 수단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재조치 부과

7) 수단은 1970년대 및 1980년대 아프리카 국가 중 미국 대외원조의 최대 규모 수혜국

8) 미국은 수단에 대한 대외원조를 중단하고 IMF에서 수단의 투표권을 중지시키는 한편, 남부평화문제 협상에서 남수단 측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IGAD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 ▶ 수단은 2005년 CPA 이후 및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미국이 제재조치 해제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인권문제, 2개주 문제, 다르푸르 사태 등으로 인해 경제제재를 계속해 오다가 2017년 10월 20년간 지속해온 대수단 포괄적경제제재는 전면 해제하였으나 수단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지 않는 등 압박기조 유지<sup>9)</sup>
- ▶ 알-바시르 정권은 그간의 실정으로 인한 국내 경제문제 악화 등을 모두 미국의 대수단 제재의 탓으로 돌려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 악화일로에 있었으나, 2019년 8월 출범한 과도정부는 당면 최우선 해결 과제인 테러지원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상을 진행중

## (2) 영국

- ▶ 구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의료분야 등에서 영국식 제도가 상존하며 영어가 제2언어 자격을 누리고 있으나 1989년 군사정권 등장 후 강경 이슬람화 정책 시행에 따른 인권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소원<sup>10)</sup>
- ▶ 특히 1993년 4월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가 수단을 방문키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수단측은 주수단 영국대사가 부당하게 내정간섭을 했다면서 항의하여 동 대주교의 방문이 취소되었으며, 그해 11월 영국대사를 추방하는 등 양국관계가 극도로 냉각. 1995년 4월 4일 신임 영국대사 신임장 제정으로 관계 회복
- ▶ 그 이후에도 영국은 1998년 8월 7일 케냐 및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 폭파사건과 1998년 8월 20일 미국의 수단 al-Shifa 제약공장 폭격사건 후 미국의 입장을

9)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Osama Bin Laden이 수단에서 거주(1991~96년)하다가 아프간으로 출국하였고, 2000년 이후 미국-수단 정보당국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계속 유지(수단측은 지정 요인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한 수단국민의 전반적인 감정은 매우 우호적

을 지지하고, 수단주재 자국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으나, 1999년 7월 13일 대사대리가 부임

- ▶ 이후 영국은 수단내 2005년 CPA 합의과정에서 미국 및 수단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과거 식민지였던 케냐의 Sumbeiywo 장군의 중재활동을 지원하는 등 CPA의 탄생에 상당한 막후 역할 수행
- ▶ 영국은 2003년 다르푸르 사태 발생 이후 UNAMID 파견 지지, 알-바시르 대통령 ICC 피소 관련 수단정부의 협력 촉구 등 다르푸르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한편, 2011년 남수단 독립전후 고위대표단을 수단에 수시 파견하는 등 과거 종주국으로서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 의지 표명<sup>11)</sup>
- ▶ 한편, 영국은 그간 미국, 노르웨이와 함께 수단-남수단 문제 관련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수단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으며, 특히 2018년 12월 수단내 반정부 시위 발생 이후부터 주수단 영국대사관 차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관여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향

## (3) 중국

- ▶ 중국은 1970년대 이래 카르툼 중심부에 우호회관(Friendship Hall)을 건축하여 주고<sup>12)</sup>, 니메이리 정권 당시 수단-소련간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소련을 대신하여 수단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수단과의 관계 형성 시작
- ▶ 중국-수단관계는 미국의 석유회사 쉘브론이 1992년 수단에서의 석유탐사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한 후 중국석유공사(CNPC)가 1995년부터 수단의 석유개발에

11) 수단/남수단 관련 특사(special envoy) 운영 국가 중의 하나

12) 현재까지 수단의 주요행사가 대부분 동 회관에서 개최

본격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히 확대되어 이후 중국이 제반측면에서 수단의 최대 협력국으로 부상

- 알-바시르 대통령이 1995년 9월 중국을 방문하였고 CNPC의 요청으로 중국-수단간에 115억 위안(약 18.4억불) 규모의 석유개발 지원을 위한 양허차관협정 체결<sup>13)</sup>
- 중국석유공사(CNPC)가 1999년 Heglig-Port Sudan간 1,5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Khartoum Refinery Complex 등 정유시설을 건설 내지 개선함으로써 수단의 석유 생산, 수출이 본격 개시<sup>14)</sup>
- 이어 중국회사가 2008년 수단의 최대 건설프로젝트였던 Merowe Dam을 건설하였고, 2007년 2월 후진타오 주석의 수단 방문시 수단 대통령궁 건설을 약속하여 이를 2015년 완공

▶ 중국에게 있어 수단은 중국석유공사(CNPC)의 최초 해외진출 지역이자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대대적인 아프리카 진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고, 수단에게 있어 중국은 제1의 협력파트너이자 러시아와 함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수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핵심국가

- 단, 수단 석유의 3/4을 보유하고 있던 남수단이 2011년 독립함에 따라 중국에게 있어 수단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중국이 수단과 남수단에 대해 균형된 관계를 유지코자 하는 등 관계의 밀도가 다소 약화(남수단 독립 이전에는 수단 정권 입장 지지)

▶ 수단의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수단내 중국인 노동자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9년 8월 통치위원장으로 취임한 al-Burhan 장군은 과거 중국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중

13) 중국석유공사(CNPC)로서는 최초의 해외 석유개발 참여였으며, 이어 말레이시아 및 인도 석유회사도 수단 석유 개발에 참여

14) 이어 2006년 Upper Nile-Port Sudan간 1,370km의 제2 파이프라인도 건설

#### (4) 러시아

▶ 수단은 독립후 반서방 정책의 일환으로 소련과의 관계 강화를 한때 추진하였으나, 수단의 공산당 인사들이 1971년 니메이리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기도하자 니메이리는 이들 소련의 소행으로 판단하여 관계가 경색되었고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시 수단이 무자헤딘<sup>15)</sup>을 지원하면서 또다시 경색

▶ 냉전종식 이후 수단은 반서방정책을 지속하고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으며, 러시아 또한 수단의 영토 보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다르푸르의 독립을 강하게 반대하며 유엔안보리 등에서 중국과 함께 수단정부의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현재 돈독한 관계를 유지

▶ 2015년 7월 러시아 광산회사(Syprian Mining Company)가 수단정부와 수단 사상 최대 규모의 금(gold) 등 광물채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관계 강화

▶ 러시아는 그간 미국과 각을 세우던 알-바시르 정권 하의 수단을 내정 불간섭 원칙 등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지지, CNN은 2019.4월 탐사보도를 통해 알-바시르 정권 퇴진 직전까지 러시아가 수단내 반정부시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수단이 자원이 풍부하고 홍해변 항구(포트수단)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러시아가 수단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5) 일본

▶ 일본은 수단에 대해 매년 1억불 수준의 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핵심공여국의 하나

15) 아프가니스탄 반군 게릴라 단체, 아랍어로 "성전을 싸우는 이슬람 전사"를 의미

- ▶ 또한, 일본측은 수단 과도정부가 2019.8월 출범한 후, Hamdok 총리를 8월말 개최된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에 초청하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에 관심
  - 수단측도 Elham Ibrahim Mohamed 외교부 정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TICAD에 파견하는 등 일-수단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
- ▶ 다만, 2020년 상반기까지 수단에 직접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

## 다. 주변 인접국과의 관계

### (1) 이집트

- ▶ 이집트는 영국과 공동으로 수단을 통치(condominium)한바 있고, 나일강 수자원을 공유<sup>16)</sup>하고 있으며, Halaib 영토분쟁<sup>17)</sup>을 안고 있는 수단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접 국가
- ▶ 양국관계는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무슬림형제단을 혐오하는 가운데, 수단의 Al-Mahdi 정권 당시인 1986년 이집트가 니메이리의 송환을 거부하고 수단 내 무슬림형제단의 지도자였던 al-Turabi가 부총리 및 외교장관에 임명되면서 악화되기 시작

16) 이집트와 수단은 1959년 Nile Waters Agreement를 체결하여 Nile강 수자원을 84억 큐빅미터로 설정하고 이집트와 수단 간에 각각 55.5억 큐빅미터와 18.5억 큐빅미터씩 배분기로 합의

17) 양국간 논란이 있는 Halaib Triangle 지역은 홍해를 인접하고 있는 약 7,950 sq/km<sup>2</sup> 크기로서 영국이 1902년 양국간 국경선을 편의상 직선(straight line)으로 확정함에 따라 분쟁이 야기되었으며, 1991년 동 지역에서 석유 등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집트가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영토분쟁이 간헐적으로 표출(여타 분쟁지역인 Bir Tawil 지역에 대해서는 양측이 Halaib 대신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무주지 상태)

- ▶ 이어 수단에서 1989년 무슬림 형제단 주도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al-Turabi가 과격 이슬람정책을 추구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도달
  - 특히 이집트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1995년 6월 26일 아프리카통일기구(OAU) 정상회담 참석차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을 때 일어난 암살 기도사건에 수단 정부가 깊이 관여되어 있고 사건 연루자 3인을 비호하였다고 수단 정부를 비난하면서 군대 동원으로 위협하고 한동안 대사 미 파견



△ 이집트-수단 국경 지대

- ▶ 수단에서 al-Turabi가 정부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후 1999년 5월 22일 이집트-수단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원칙에 합의<sup>18)</sup>하고, 12월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소 불편한 관계 지속
- ▶ 2011년 2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축출후 무슬림형제단의 지지를 받은 모르시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양국관계는 급속히 개선되는 조짐이 보였으나, 2013년 7월 엘시시의 쿠데타 이후 잠시 정체되었으며, 2014년 들어 재차 관계 개선 추세
  - 2014년 8월 양국간 Ashkeet Qastal 국경관문을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 육상교류 가능 및 자유공업지대 설치
  -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이 취임후 최초의 외국방문으로 2015년 3월 수단을 방문하였고 이어 동월 알-바시르 대통령이 삼엘세이크 개최 이집트 경제개발회의 참석
  - 2015년 5월 모르시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에 대해 수단정부에서는 이집트의 "내부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수단내 무슬림형제단 측에서 심하게 비판

18) 양국은 2004년에 "Four Freedoms"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민의 관광, 취업, 거주, 재산보유 등 상호 허용

- ▶ 한편, 최근 수년간 양국은 ▲ 수단-이집트간 영토분쟁(할라입 삼각지대) ▲ 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GERD: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건설 관련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요소와 양국간 경제협력 등의 요소가 맞물려 있으며, 2019.8월 수단내 신 과도정부 구성 이후에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
  - 양국은 영토 분쟁, 나일강 문제 등 민감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면서, 인접국가로서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간 고위급 방문 및 수단-이집트 정상급 공동위 개최 등 교류를 유지중

## (2) 에티오피아

- ▶ 수단은 독립이후 에티오피아와는 큰 갈등이 없었으나 에티오피아에서 사회주의 정권(1974~91)이 등장하면서 남수단 반군(SPLA)에 대해 무기를 공급하고 에티오피아내 훈련캠프를 제공하게 되면서, 수단에서는 에티오피아 반군세력(Eritreans와 Tigrayans)에게 은신처(asylum)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게 되면서 갈등관계 형성
- ▶ 이후 1991년 에티오피아의 Mengistu 사회주의정권이 붕괴하고 수단이 지원하던 반군세력인 EPRDF(Ethiope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가 집권하여 에티오피아내 SPLA의 캠프, 병영시설, 남수단 난민 등을 축출하게 되면서 관계 급속 개선
- ▶ 그러나 1995년 OAU 정상회담 계기에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에 수단이 연루되고, 수단이 소말리아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양국관계는 대사관 규모 축소, 양국 수도간 직항노선 폐쇄 등 급속 냉각
  - 당시 미국은 수단정권 축출을 위해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와 함께 연대하였고 에리트레아내 수단 야권 망명단체인 NDA도 지원
- ▶ 그러나 수단정부가 Al-Turabi 축출 후 2000년부터 에티오피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에리트레아의 분리독립으로 내륙국가가 된 에티오피아도 수단

의 수단항(Port Sudan) 이용 필요성 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양국관계 개선

- ▶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는 AU를 지원하여 수단 내전, 남수단 독립 후 수단-남수단 및 수단-잔여 반군간 중재활동에 적극 나서고 Abyei 지역에 대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계속하고 있으며, 수단-에티오피아간 양자관계도 심화발전되고 있는 추세
  - 2013년 12월 Hailemariam Desalegn 에티오피아 총리의 수단 방문시 ▲ 항공, 도로, 철도 개발, ▲ 경제 ▲ 통상 기술협력 등 13개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댐(GERD: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건설 관련, 수단은 에티오피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에티오피아-이집트간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이 결과 2015년 3월 23일 카르툼 개최 수단, 에티오피아, 이집트 3개국 정상회담에서 르네상스댐에 관한 원칙협정 서명
- ▶ 반정부시위가 한창이던 2019년 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가 적극적으로 군부와 시민세력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2019년 8월 과도정부의 탄생에 일정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 (3) 리비아

- ▶ 수단과 리비아는 리비아의 카다피가 수단을 포함한 지역제국(regional empire)을 건설코자 하는 야망으로 인해 다르푸르 병합을 시도하면서 다르푸르 반군을 지원하고 심지어 남수단 반군측에도 자금과 무기를 제공함에 따라 카다피 정권(1969~2011) 기간 중 계속 긴장관계 유지
- ▶ 카다피 정권은 니메이리정권의 붕괴를 시도하면서 1976년 불발 쿠데타를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86년 Al-Mahdi 정권이 출범하였을 때에는 Al-Mahdi가 Nimeiri정권 당시 리비아에 망명하여 National Front를 결성하여 활동한 바 있어 수단내 리비아 반대세력을 체포하여 송환하는 등 관계가 일시 개선되었으

나, 1989년 알-바시르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는 재차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화

- 리비아는 2010년 수단-차드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어 차드정부에서 JEM 반군 세력들을 추방하였을 때 이들을 리비아에서 비호

- ▶ 2011년 리비아 사태 발생시 수단은 리비아 반군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수단-리비아 접경지역인 Kufra에 수단군을 파견하여 리비아 내전에도 직접 개입(이에 대해서는 수단정부에서도 공식 시인)
- ▶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양국관계는 급격히 개선되었고, 2014년 중 리비아 정부에서 수단이 카타르와 함께 리비아내 이슬람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으나 수단정부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수단은 리비아의 안정을 중시하며 이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바 없다고 강조
  - 2014년 10월 Abdullah Al-Thani 리비아 총리가 수단을 방문하여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
  - 2015년초 알-바시르 대통령은 수단은 리비아의 합법정부를 승인 지지하며, 리비아 내부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언급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2019년 11월 발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Mohamed Hamdan Daglo(일명 Hemmeti) 수단 신속지원군 사령관이 2019년 7월 리비아로 1,000명 규모 파병을 시행했다면서, 리비아국민군 세력 지원의 대가로 금전적 지원에 대한 계약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등 수단 군부가 리비아 내전에 직간접적으로 간섭중이라 지적

#### (4) 에리트레아

- ▶ 수단은 1993년 에리트레아 독립 훨씬 이전부터 에티오피아(특히 Mengistu 사회주의 정권)의 남수단 반군에 대한 지원에 대응하여 에티오피아에서의 에리트레아 반군 활동을 지원

- ▶ 1991년 에티오피아 사회주의 정권 붕괴 및 1993년 에리트레아 독립 이후 수단-에티오피아간 관계가 개선된 가운데, 수단이 에리트레아내 무슬림 반군을 지원하고, 에리트레아가 수단 동부지역 Beja Congress 반군을 지원하면서 관계 악화
  - 에리트레아는 수단이 과격 이슬람 세력을 자국에 잠입시켜 정부의 전복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4년 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외교관계 단절

- ▶ 수단은 1998년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간 국경분쟁 이후 2000년 들어 에리트레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포괄적 평화 협정(CPA)체결 후 알-바시르 대통령의 에리트레아 방문 등으로 관계 더욱 발전
  - 이후 수단정부는 2006년 동부지역 Beja Congress와 평화협정을 타결하고, 에리트레아에서 활동하던 수단 반정부단체(NDA)와의 거래도 성사시킴으로써 양국간 주요 분쟁요인도 해소

- ▶ 현재 수단내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에리트레아 경제난민들이 동부지역에서 체류중에 있으며, 양국 대통령은 Port Sudan, Kassala 등 국경지역에서 수시로 비공개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분위기가 좋은 상황
  - 특히 2014년 1월 알-바시르 대통령의 에리트레아 방문에 이어 동년 5월 Afwerki 대통령의 수단 방문 등 정상간 교환방문이 있었으며, 수단 Kassala-에리트레아 Teseney간 송전선 건설, 수단의 대에리트레아 석유공급 등 양국간 협력 증진방안 논의(최근 에리트레아와 Port Sudan간 항공노선도 개설)
  - 수단은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와 공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간 관계증진을 위한 중재역할도 수행 중

#### (5) 차드

- ▶ 수단과 차드는 95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차드와 다르푸르는 인종적으로도 유대를 갖고 있는데, 차드 내전시(1966~92년) 수단이 차드내 무슬림

반군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상대국의 반군에 대해 상호 지원함으로써 오랫동안 적대관계 유지

- 1970년대 들어 리비아의 카다피가 북부 차드와 다르푸르에 대해 영토적인 야심을 표출함으로써 한때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상호 반군지원문제가 계속 족쇄로 작용

▶ 1989년 알-바시르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차드가 SPLM 반군을 지원함에 따라 관계가 호전되지 못하였으며, 2003년 다르푸르 사태가 촉발되어 동 사태에 차드가 개입하고 양국 군이 반군지원, 반군추격 등을 위해 상대방 국경을 넘는 사태 수시 발생

▶ 특히 2005년 차드에서 수단의 지원 하에 차드반군의 쿠데타 시도가 있는 이후 차드정부가 2005년 12월 수단과 교전상태(state of belligerence)를 선언하고 다르푸르 JEM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2006년중 두 차례 외교관계 단절

- 이후 2008년 JEM 반군의 움두르만 지역(Omdurman)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며 수단에서 차드와 외교관계 단절

▶ 그러나 양국관계는 2010년 들어 양국정부간 비밀교섭 이후 Idriss Deby 차드 대통령이 2010년 2월 수단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급격히 개선되어 이후 계속 우호 관계 유지

- 2010년 2월 정상회담시 차드는 JEM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하였고, 양국 군대가 국경을 공동으로 순찰키로 합의(이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참여하여 3자협정으로 발전)
- 이후 Deby 대통령은 2013년 12월, 2015년 1월 등 수단을 수시 방문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다르푸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

▶ Mohamed Hamdan Daglo(일명 Hemmeti) 수단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 사령관은 차드의 아랍부족 출신으로서, RSF내 많은 병사들이 차드 출신이며 동인의 사촌이 2020년 5월 현재에도 Deby 차드 대통령의 최측근 고위고문직을 역임하고 있어 양국 국경지역에 대한 RSF측 영향력에 대해 주목할 필요

## 라. 여타 중동국가의 관계

### (1)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 수단과 GCC 국가들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아 전통적으로 큰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마찰은 없었으며, GCC 국가들은 수단을 이슬람의 일원으로서 포용하면서 식량 등 농산물의 주요 공급지로서 간주하였고, 수단은 GCC 국가들로부터 경제-투자차원에서 지원을 기대

▶ 그러나 1989년 알-바시르 대통령 집권 후 Al-Turabi 주도의 급진 이슬람 세력(무슬림형제단)이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지하고, 이란 등 과격 이슬람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사우디 등 주요 걸프국과의 관계가 악화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3년 8월 하산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차 이란으로 향하던 알-바시르 대통령 전용기에게 영공 허가권을 부여하지 않아 동 특별기가 회항하는 사태도 발생

▶ 다만, GCC 국가 중 국제적 위상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독자행동을 보이면서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던 카타르가 2011년 다르푸르 도하평화협정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수단과 가장 가까운 관계 유지

- 카타르는 남수단 분리독립후 수단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을 때 최소 10억 불 이상의 지원을 2차례 약속하는 등 수단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

▶ 수단은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GCC 국가와의 정치-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구사중

-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수단의 전문직 직업 종사자들이 대거 사우디, UAE 등 GCC 국가로 탈출하였으며, 남수단 분리독립 이후 외국 투자의 대부분은 GCC 국가들로부터 유입
- 알-바시르 대통령은 2014년 1월 아랍리프 회의에서 아랍식량안보이니셔티브(Arab Food Security Initiative)를 제창하였는데, 이는 GCC 국가들의 대수단 농업 투자유치 목적

- 수단은 예멘내 시아파 후티 반군 축출을 위한 사우디 주도의 공습(2015년 3월 26일)에 아랍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동참(전투기 4대 및 지상군 병력 6000명 파병 공약)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알-바시르 前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량의 원조를 제공해온바, 알-바시르 정권의 예멘전 파병 및 이란과의 관계 단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 대통령 퇴진 이후 군부측에서 급부상한 al-Burhan 통치위원장 및 Hemmeti 신속지원군 사령관 또한 양국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긴밀히 협력

## (2) 이란

- ▶ 수단과 이란은 특히 1989년 알-바시르 대통령의 집권 이후 수단내 과격 이슬람 세력의 영향으로 수니-시아라는 갈등요소에도 불구하고 반서방, 반미, 반이스라엘,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가까운 관계를 유지
  - 1991년 12월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보안·군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수단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정보협력 진행
  - 알-바시르 대통령이 2011년 및 2012년 이란을 방문하였고(2013년 방문은 사우디의 방해로 무산),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2011년 수단을 방문, 양국관계가 '공통의 이슬람적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언급
  - 또한, 수단은 중국산 및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란을 주요한 유통경로로 활용하였고, 서방세계에서는 이란이 수단을 경유하여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해 온 것으로 의심
- ▶ 다만, 이란이 수단의 식수위생분야를 지원하고 이란 기업들이 농업분야(밀, 보리, 참깨 등 재배)에 투자하고 있지만, 경제지원 등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GCC 국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이 미약하여 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수단은 2014년 8월 시아파 이슬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주수단 이란문화원을 폐쇄하고 일부 이란 외

교관을 추방하는 등 자국의 안보와 수니 이슬람 수호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

- ▶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대예멘 공습에 수단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가 다소 경색
  - 2015년 3월 Karti 수단 외교장관은 수단이 이란과 어떠한 종류의 동맹관계도 가진바 없었다고 부인
  - 결국 알-바시르 전대통령은 2016년 이란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2020년 5월 현재까지 양측간 공식적인 교류는 전무

## (3) 이스라엘

- ▶ 이스라엘은 수단 독립직후부터 남수단 반군을 훈련시키고 고문단을 남수단 지역에 파견하는 등 기독교 계통인 남수단 지역을 지원해옴으로써 수단에게 있어 최대의 적국으로 간주
  - 기본적으로 반아랍 정서를 갖고 있는 남수단은 이러한 이유에서 독립 후 2011년 12월 Salva Kirr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이스라엘과의 유대증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남수단에 대한 무기 공급 등 군사지원설이 꾸준히 제기
- ▶ 수단은 이란과 가까운 아랍권 국가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정책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스라엘 보이콧<sup>19)</sup>에 동참중
- ▶ 한편, 이스라엘은 수단에서 가자로 반입되는 무기를 선적한 선박을 나포하였다 고 주장하는 등 이란이 수단을 통해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해 오고 있으며, 수단측은 이를 강력 부인

19) 이스라엘산 물품 구매 금지 및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기록이 있는 사람의 수단 입국 거부 등

- 2012년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카르툼 북부 군수공장(Yarmouk factory)을 폭격하는 등 2015년 5월 현재까지 약 4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의 대수단 공격설 제기

▶ al-Burhan 수단과도정부 통치위원장이 2020년 2월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계정상화 논의를 진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대해, Hamdok 총리가 al-Burhan 위원장이 동 건에 대해 Hamdok 총리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내외적 논란을 야기

## 마. 역외 테러단체와의 관계

- ▶ 수단은 알-바시르 대통령 집권 이후 무슬림형제단의 지도자였던 Al-Turabi 영향으로 약 10년간 과격 무슬림 운동에 적극 관여하는 과정에서 오사마 빈라덴 등 이슬람 지하디스트가 유입되는 등 한때 테러리즘의 비호처로 인식
  - 오사마 빈라덴은 1991~96년간 카르툼 교외에서 거주하다가 아프간으로 이주하였으며, 미국은 1992년 소말리아에서의 미군부대 공격에 수단이 관여하였다고 비난하면서 1993년 수단을 테러지원국 국가로 지정
  - 1995년 6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OAU 정상회의 참석차 에티오피아 방문 시 암살 시도<sup>20)</sup>가 있었으며, 이집트는 수단이 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주장
- ▶ 그러나 1999년 Al-Turabi가 집권당에서 축출된 이후 수단정부가 보다 실용주의 노선하에 2000년부터 미국과 정보협력을 진행하고 정권유지 차원에서 테러리스트자들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단내 테러단체들의 암약은 거의 사라졌으며, 수단이 공개적으로 테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2008년중 미국 대사관 직원이 테러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피살당

20) 동 암살 시도는 이집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었는데, 암살자들의 무기가 수단 항공을 통해 반입되었고, 암살자들이 수단여권을 소지하였고 수단에서 체류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 임시 거처도 수단 에이전트를 통해 임차한 것으로 파악

하고, 과격단체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참수당한 사례 이외 테러 발생 사례 거의 전무

- 다만, 여전히 ▲ 이란과의 협력 및 하마스 지원과 ▲ 극단주의 이슬람 전파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수단이 테러단체와 연계가 있다는 의혹 지속
- 또한 카르툼 소재 아프리카 대학에는 보코하람 등 아프리카 출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수학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

▶ ISIL<sup>21)</sup>과의 연계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다만 부유한 집안 출신의 자제들(의대생)이 ISIL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수단사회에 충격을 주는 등 수단내부에도 ISIL 동조세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

- 수단 고등교육부장관은 2015년 5월 수단내에서 대학생들의 ISIL 가입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증가중이라고 경고

▶ 수단은 2018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미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수단을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2020년 5월 현재에도 양측간 협상이 진행중

21) 알-바시르 대통령은 2015년초 ISIL에 대한 논평에서 수단에는 테러주의자가 없고, ISIL은 이슬람을 테러와 연계 시키고자 침투하는 그룹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면서, 수단은 모범적인 이슬람국가를 건설코자 하며, 수단은 정세안정과 안전 때문에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난민을 위한 safe haven이 되고 있다고 강조



## 군사 분야

1. 개관 096
2. 주요 군사조직 098
3. 정보기관 100
4. 군수산업 101

# VII

## 군사 분야



### 1 | 개 관



- ▶ 1925년 영국군이 수단 영토에 대한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군 편제를 새로이 하여 수단방위군(Sudanese Defence Forces(SDF))을 창설한 것이 현재 수단 정부군의 모태가 되었으며 현재는 수단군(Sudanese Armed Forces(SAF))로 통칭<sup>1)</sup>
- ▶ 옴두르만 근처 Wadi Sayyidna에 위치한 군사대학교가 군사·군사과학·병참 관련 수단 내 최고 명문으로 간주
- ▶ 육·해·공군의 정규군 편제와 민병대 성격의 준군사조직으로 구성
  - 수단 정규군의 규모, 주요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 규모가 육군 약 10만명과 소수의 해·공군으로 구성되었다는 평가

1) 영국 식민지배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영국의 선진제도(민주주의, 교육, 법의 지배 등)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전투에 단련된 정규군이었다는 평가

▶ 정규군하에 신속지원군(RSF:Rapid Support Forces)이 활동

▶ 징병제 실시

- 징병제는 1989년 Compulsory Service Law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18~30세 모든 수단 시민에게 2년간의 병역 의무 부과
- 해당 법을 개정한 1992년 National Service Act는 대상 연령을 18~33세로 변경하고, 군, 경찰, 정부 및 공공기관, 공공프로젝트에서도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단, 대학 졸업자의 복무기한은 12개월, 고등학교 졸업자는 18개월)
- 군복무/대체복무를 마치지 않고서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으며 출국도 제한

### 가용병력 통계(참고용)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총 인구	43,120,843
가용 가능 병력	24,061,430
가용 적합 병력	15,351,153
병역 대상(연간)	1,197,393
현역	104,000
예비 병력	85,000

※ 자료: 2020년 4월, Global Firepower지

▶ 예비군제도 시행

- 수단 의회는 2013년에 예비군법을 제정하여 18~60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시 최대 2개월간 소집토록 규정

## 2 | 주요 군사조직



### 가. 정규군<sup>2)</sup>

#### (1) 육군

- ▶ 경비병이 주축이고, 카르툼 본부 및 중부,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카르툼 등 6개 지역사령부로 구성되며, 각 사령부는 사단급 부대 보유
  - 카르툼 지역사령부(카르툼 남부 Shajarah 소재) 산하 제7기갑사단(armored division)과 카르툼 공항 주둔 별도의 공수사단(airborne division)이 수도권의 안보 및 치안 담당
- ▶ 주요 장비는 전차 690대, 장갑차 400대, 자주포 10대

#### (2) 공군

- ▶ 주요 공군기지는 카르툼 국제공항 및 움두르만 인근 Wadi Sayyidna기지
- ▶ 주요 장비는 전투기 46대, 수송기 22대, 훈련기 6대, 헬기 11대

#### (3) 해군

- ▶ 주요 해군기지는 홍해변 Port Sudan 및 Flamingo Bay
- ▶ 주요 장비는 해안 경비정 12척

2) 출처 : 2020년 4월, Global Firepower)

## 나.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

- ▶ 수단 정부와 긴밀히 연관된 잔자위드가 모태로서 2013년 4월에 수단반군 연합체가 북·남코르도판을 공격하자 해당지역 반군 및 다르푸르 지역의 반군에 대항하기 위해 잔자위드를 재편하여 수단 정보기관(NISS) 산하로 편입
- ▶ 신속지원군(RSF)은 NISS의 관할 아래 2013년 8월에 공식 창설된 특별기동부대로서 초기에는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되었으며, 2015년 1월 헌법 개정을 통해 정규군으로 편입
- ▶ RSF는 수단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 경력 군인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약 4-8개월간의 훈련 후 실전 배치되는데, 수단내 최정예 부대로 평가
- ▶ RSF는 작전시 NISS의 통제 하에서 수단 군 및 여타 기관과의 조정 메커니즘 하에서 상호 협력
- ▶ RSF는 2013년 9월 카르툼에서의 대규모 시위 발생시 4개 여단중 3개 여단이 카르툼에 배치되는 등 정권 보위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 수행
- ▶ RSF는 활동 초기 다르푸르 등에서의 범죄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다르푸르 및 2개주(Blue Nile 및 South Kordofan)에서 반군세력을 위축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민사활동을 통해 대민 무마작전도 병행
- ▶ Mohamed Hamdan Daglo(일명 Hemmeti) 수단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 사령관은 알-바시르 전대통령 퇴진 등에 개입하고 이후 실세로 급부상

## 다. 준군사조직(Popular Defence Forces, PDF)

- ▶ 수단에서는 오랜 기간의 내전기간 중 정규군과 함께 민병대 성격의 준군사조직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규군의 활동을 지원
- ▶ 현재 수단내 대표적인 준군사조직은 Al-Mahdi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1989년 10월 군사혁명 후 정부에서 공식화한 준군사조직으로서 무슬림형제단 주도 이슬람 운동의 전위 군사조직의 성격이었으며 혁명 보위 역할도 수행
- ▶ PDF는 대통령의 직접 통제 하에 있으며 정규 규모는 약 20,000여명으로 알려져 있고 85,000여명의 예비인력(reservists) 보유
- ▶ PDF 운영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향이 많이 작용하여 이란식의 인해전술도 구사하여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고, 정규군과의 불협화음도 야기
- ▶ 1990년대 말 Al-Turabi가 실각하고 정규군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PDF의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CPA 이후 남수단과의 내전이 종료됨에 따라 군사수요가 감소하여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다가, 2019년 4월 알-바시르 정권 퇴진을 계기로 와해된 것으로 평가

## 3 | 정보기관

- ▶ 알-바시르 정권하 정보기관인 NISS(National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는 수단에서 정권 보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고 또한 가장 우수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슬람 율법 시행 등 수단 내 이슬람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

- ▶ NISS는 알-바시르 전대통령이 1989년 집권 후 Al-Mahdi 수상 정부 하에서 약화된 정보 조직 시스템을 재조직하여 설립되었으며, NISS 구성원의 절대다수는 무슬림형제단 출신이거나 무슬림형제단 지지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
- ▶ 이러한 점을 감안, 2019년 7월 NISS가 GIS로 명칭을 바꾸면서 조직이 개편되었으며 2020년 1월 구 NISS 소속 정보요원들이 카르툼에서 소요를 일으켰으나 단시간에 제압

## 4 | 군수산업

- ▶ 수단은 독립 이후 내전에 대처하고 서방국가들의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란 등의 국가로부터 각종 무기를 도입하는 한편, 독자적인 군수산업도 발전
- ▶ 수단의 군수산업은 1960년 Al Shaggara 탄약공장(소형 무기 탄약제조)의 설립을 시초로 하며, 1993년에 기존 각종 군수산업체를 통합하여, 국방부 산하에 군수산업 담당기구로서 Military Industry Corporation(MIC)를 설립
- ▶ MIC는 수단 최대 고용 인력(97% 정도가 민간인)을 가진 회사로서 다양한 차량과 엔진을 개발하여 왔고, 2002년 장갑차 제조에 이어, Sudatel과 협조하여 군사 통신장비를 제조하였으며, 2005년에는 군사항공 지원을 위해 Safat Aviation Complex도 설립
  - MIC는 탄약, 무기, 장갑차, 로켓포, 폭발물 등 군수품은 물론, 항공, 농업, 해양, 광업, 전자, 금속 등 각종 민수분야에도 깊숙이 관여
- ▶ 수단의 군수산업은 외국산 군사기기 및 장비, 디자인 등을 확보하여 상당 부분 무면허 상태에서 상호 접합시키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 발전



‘유엔-아프리카 연합 다르푸르 평화유지군(UNAMID)’



## 수단문제와 국제사회의 동향

1. 개관 104
2. . 다르푸르 사태 106
3. 남부 2개주 문제 111
4. 국내피난민/난민 문제 115
5. 과도정부지원 117

# VIII

## 수단문제와 국제사회의 동향



### 1 | 개 관



- ▶ 수단은 독립 이전인 1955년부터 남북수단간 내전을 시작하였고, 이어 2003년 다르푸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에는 남부 2개주(남코르도판 및 블루나일) 반군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특히 인권,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간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
- ▶ 수단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은 물론 아프리카연합, IGAD<sup>1)</sup> 등 국제 및 지역기구에 서 중재 노력을 지속하였고, 이 결과 2005년 CPA가 체결되고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곧 이어 수단-남수단간에 아비에이(Abyei) 문제 등 국경선 확정 등을 위요한 분쟁이 야기되었고,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등으로 정세불안 지속

1)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는 1986년에 출범한 동부아프리카 8개국(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남수단,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지부티)의 개발 및 환경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지부티에 본부 소재



△ 수단지역(빛금친 부분이 주요 분쟁지역)

- 유엔안보리에서는 결의안 2046(2012년)에 의거 수단/남수단 문제를 정례적으로 비공개 협의 중<sup>2)</sup>
- ▶ 이에 따라 수단지역(남수단 포함)에는 UNAMID(다르푸르), UNISFA<sup>3)</sup>(아비에이 지역), UNMISS(남수단) 등 유엔(및 AU)의 3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있으며(전체 유엔 PKO의 1/3 규모), 인도 지원 등을 목적으로 UNDP, WFP, WHO, UNICEF 등 약 30여개의 국제 및 지역기구들이 수단내에서 활동 중

2) 당초 매월 개최되었으나, 남수단 내전으로 수단/남수단 관계에 진전이 없게 됨에 따라 2014년 8월 보고 및 협의 주기를 매 3개월로 변경

3) UNISFA(United Nations Interim Security Force for Abyei)는 2011년 6월 27일 유엔안보리 결의 1990호에 의거, 아비에이 지역에서의 긴급 상황에 대처키 위해 구성, 파견되었으며(주로 에티오피아 군인), 아비에이 지역 비무장화 이행 모니터링, 인도 물품 제공 지원, 민간인 및 인도지원 활동 종사자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 유엔안보리는 2011년 12월 14일 결의안 2024호에 의거, UNISFA의 mandate를 확대하여 수단-남수단간 비무장지대(SDBZ) 설정 등 국경정상화 과정에 대한 지원 활동도 추가

## 2 | 다르푸르 사태



### 가. 배경

- ▶ 수단 서부에 위치한 다르푸르(Darfur)는 핵심 종족인 “푸르족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지리적, 인종적으로 인접국인 차드와 공통점이 많으며, 영국이 1916년 다르푸르 술탄이던 Ali Dinar를 살해하고 점령 복속
- ▶ 북부 사막지대와 남부 초원지대로 이루어진 다르푸르 지역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아랍계와 아프리카계로 구분
  - 아랍계와 아프리카계간 분쟁은 주로 부족장들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그간 수단 정부도 이들 부족장들의 결정을 존중
- ▶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전세계적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의 영향으로 북부지역의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현대식 농경 장비의 도입과 아프리카계 농작민들이 농경지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아랍계와 아프리카계간 갈등 격화
- ▶ 수단정부가 다르푸르 지역 주요 지방 관직에 아랍계를 임명하는 등 아랍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소홀히 하는 등 동 지역에 대한 소외정책도 지속되면서 불만 증대
- ▶ 1989년 정권에 대한 군부 쿠데타를 대중적으로 지원해 권력을 쟁취, 분점하다가 1999년 실각한 Al-Turabi의 주요 지지기반인 PCP(Popular Congress Party)를 견제하려는 수단 정치 세력내 이슬람세력간의 권력 투쟁이 다르푸르에서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시각도 상존
  - Al-Turabi는 다르푸르 주요 반군 중 하나인 JEM(Justice and Equality Movement)의 실질적 배후 지도자라는 설

### 나. 전개과정

- ▶ 다르푸르 사태는 수단내전(1983~2005) 종식을 위한 북부 수단정부-남부 반군간 평화회담시 다르푸르지역 문제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수단정부가 묵살함에 따라 2003년 반정부 세력이 SLA(Sudan Liberation Army)를 결성, 2003년 2월 경찰서 등 관공서 습격을 시작함으로써 발발
  - 이에 수단정부는 다르푸르 지역내 아랍계 민병대(Janjaweed)를 개입시켜 반정부 세력에 대응
  - 수단정부의 아랍민병대 투입은 ① 아랍화 정책을 추진하고, ② 신뢰할 수 있는 아랍계를 개입시켜 서부 다르푸르 흑인들이 남부 흑인들과 연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의도를 내포
- ▶ 2003년 7월 이후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 아랍계 민병대의 흑인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로 인해 최소 20여만명의 사망자 및 300여만명의 난민 발생(다르푸르 사태는 사실상 초기 2~3년 이후는 저강도 국면 유지)
- ▶ 2004년 4월 우간다 대량학살 10주년 계기에 부시 대통령은 다르푸르 사태의 본질을 ‘인종청소’라고 정의하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다르푸르와 르완다 사태의 유사성을 지적함에 따라 서구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
- ▶ 2004년 4월 AU 중재하에 차드 수도 은자메나에서 다르푸르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동 협정 이행 감시를 위해 AU가 평화유지단(AMIS: AU Mission in Sudan)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정부군 및 반군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 무력 충돌이 지속
- ▶ 유엔안보리는 2004년 7월 결의안 1556호에 의거, 다르푸르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어 2005년 3월 결의안 1591호를 채택, 다르푸르 평화과정 방해자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한편, 2005년 3월 결의안 1593호를 통해 다르푸르 사태를 ICC 소추관에게 회부

- 이에 따라 수단제재위원회(Sudan Sanctions Committee)가 2005년 3월부터 가동되어 다르푸르에 대한 무기금수조치 모니터링 등을 시행중이며, ICC 소추관은 매 6개월마다 유엔안보리에 관련사항 보고
- » 2006년 5월 5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수단정부 및 SLA 반군의 일파인 SLM/MM 간에 평화협정(Darfur Peace Agreement: 소위 아부자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동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반군 및 정부군 모두 협정을 위반하면서 협정이 유명무실화
- » 2006년 8월 31일 유엔은 AMIS 운영이 공중기동능력 부족, 열악한 통신망에 따른 작전 애로, 심각한 재정난 등에 봉착함에 따라, 결의안 1706호를 채택, AMIS 임무를 남부수단에 배치되어 활동중인 UNMIS(UN Mission in Sudan)로 이관할 것을 결정
- » 상기 유엔 결의는 수단 정부의 거부에 따라 이행되지 못했으나, 수단정부는 2007년 6월 12일 UNMIS 대신 유엔/AU 혼성군 배치, 유엔의 AMIS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수용
  - 유엔의 AMIS 지원 3단계 해결 방안은 105명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지원하는 1단계 지원과 의무, 통신, 수송, 군수, 항공정찰 등 전문부대 2,250명과 경찰 300여명 등을 지원하는 2단계 지원, 20,000여명의 AU-UN 혼성군을 구성하는 3단계로 구성
- » 2007년 7월 31일 유엔안보리는 다르푸르내 유엔/AU 혼성군(UNAMID) 배치 안을 담은 결의안 1769호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 병력을 주축으로 하는 UNAMID가 파견되어 다르푸르 평화유지활동을 개시
- » 2008년 5월 1일에 다르푸르 반군 JEM이 옴드루만을 기습 공격, Wadi Sayyidna에 위치한 공군기지를 점령 후 백나일강을 건너 카르툼을 공격하기 위해 인가즈다리로 향했으나 교전 후 후퇴

- » UNAMID 파견에도 불구하고 다르푸르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전쟁범죄, 반인류 범죄를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09년 알-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 » 2009년 3월 아프리카 연합은 Thabo Mbeki 전 남아공 대통령 등 3명의 전직 아프리카 대통령으로 구성된 다르푸르에 대한 고위급패널(African Union High-Level Implementation Panel on Darfur)을 구성, 다르푸르 사태를 조사하고 평화, 화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출토록 조치
  - 동 고위급패널(AUHIP)은 2009년 10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AU 평화안보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에서는 이를 채택
  - 이후 동 패널의 임무 범위가 점진적으로 전체 수단 및 남수단으로 확대
- » 카타르의 중재로 2011년 5월에 도하에서 새로운 다르푸르 평화합의서(Doha Document for Peace in Darfur: DDPD)가 채택되었으며, 수단정부와 반군조직인 LJM(Liberty and Justice Movement)이 당해 7월 14일 의정서에 서명
  - DDPD는 2006년 아부자협정을 대체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다르푸르에서의 포괄적인 평화과정에 관한 framework로서 권력 분배, 부분배, 인권, 정의와 화해, 보상 및 귀환, 내부 대화 등에 대해 규정<sup>4)</sup>
  - 이에 따라 새로운 Darfur Regional Authority(DRA)가 구성되었고 LJM의 수장인 Tijani Sese가 수반으로 취임하였으며, 동시에 다르푸르를 기존 3개주에서 5개주로 개편 조치
- » 2020년 4월 현재에는 다르푸르내 반군 대부분이 와해되었으나, Abdul Wahid가 이끄는 Sudan Liberation Army-Abdul Wahid(SLA-AW)의 세력이 여전히 잔존

4) JEM의 경우 2010년 2월 도하협상시 수단정부와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가 철회하였고, DDPD에의 참여를 거부하였으나, JEM분파(JEM-Bashar)가 2013년 4월 수단정부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여 참여

## 다. UNAMID의 장래 문제

- ▶ UNAMID는 2007년 7월 31일 유엔결의안 1769호<sup>5)</sup>에 의거, 주로 아프리카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르푸르에서 무장병력 해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민간인 및 구호단체를 보호하는 한편, 다르푸르 평화협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중<sup>6)</sup>
- ▶ 그러나 UNAMID의 배치가 당초 수단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UNAMID의 많은 병력규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다르푸르 지역(약 50만 평방키로, 한국의 5배)과 주어진 임무의 한계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수단정부도 다르푸르 상황이 안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UNAMID의 철수를 요구
  - 특히 2014년 11월 북다르푸르주의 Tabit에서 대규모(200명) 성폭행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위요하고 UNAMID에서 조사를 강행코자 하였고, 이에 대해 수단정부에서 UNAMID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UNAMID 철수 전략(exit strategy)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 ▶ 이에 따라 UNAMID와 수단정부는 2015년 들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르푸르 지역 상황 평가, UNAMID 철군 시기 결정 등을 위한 협의를 시작
  - 유엔안보리는 2015년 6월 29일 결의안 2285호를 통해 UNAMID의 임무기간을 일단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수단 정부는 정체가 안정되었다면 단계적 철수 요구)
  - 유엔 측에서는 이와 별개로 UNAMID의 구조,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자체평가 작업을 거쳐 다르푸르에서의 주재를 감축하는 조치 시행 중
- ▶ 다르푸르 지역 반군들이 활동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수단정부 유엔 및 AU는 2017년 5월 3자 협의체(tripartite mechanism) 최종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UNAMID

5) 상기결의안은 UNAMID의 병력규모를 19,555명의 군 병력과 3,772명의 경찰력 및 해당 병력을 지원할 민간인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

6) 2014년 12월 31일 현재 병력규모는 12,614명의 군 병력과 220명의 군 옵서버, 3,035명의 경찰력으로 구성되며, 추가 지원 인력으로 1,005명의 국제민간직원, 2,891명의 현지직원, 그리고 295명의 유엔봉사단 등이 활동(총 20,060명 규모)

의 점진적인 출구 전략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sup>7)</sup>

- ▶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UNAMID의 단계적 철수(drawdown)를 추진하였으나, 2019년 8월 수단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 10월 안보리 결의 2495를 통해 2020년 10월 31일까지 임무를 연장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및 2020년 3월 Hamdok 총리 암살시도 등 수단 내 여러 불안정 요소를 감안, 유엔 안보리는 2020.6월 결의 2525호를 통해 임무를 2020.12.31.까지 연장

## 3 | 남부 2개주(남코르도판, 블루나일) 문제



### 가. 배경 및 경과

- ▶ 2005년 수단-남수단간 맺어진 포괄적 평화협정(CPA)에 따라 남부수단은 준(準)자주적인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2011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분리·독립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남코르도판주 및 블루나일주는 수단의 영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대신 동 2개주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SPLM(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에게 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
- ▶ 또한 동 2개주의 주민들은 주민협의를 통해 정치적 제도, 중앙정부와의 관계, 포괄적 평화협정(CPA)을 통해 부여받은 부와 권력에 대한 분배 등 미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케 되었지만, 수단으로부터의 분리 여부는 대상에서 제외

7) 수단, 유엔, AU는 2015년 2월 이래 3자 협의체를 구성, UNAMID의 다르푸르 출구 전략을 논의

- ▶ SPLM은 주민협의를 이용해 남코르도판주 및 블루나일주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획득하려 했으나 남수단이 독립할 때까지 블루나일은 주민협의를 끝내지 못했고 남코르도판은 시작조차 못해보고 남수단이 독립
  - 한편 남수단 독립 직전에 SPLM의 북부지부의 개념으로 SPLM/N(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 North)이 SPLM에서 분리되어 별도 출범
- ▶ 남수단이 2011년에 독립하면서 수단 내에 있던 SPLM/N의 수많은 무장 병력들은 수단 정부군(SAF)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단 정부는 정치·군사적으로 부담을 느껴 SPLM/N의 무장 해체를 시도하였으며, SPLM/N은 이에 반발, 양측이 충돌하면서 남코르도판/블루나일 2개주 사태 발생

### [ 남코르도판 ]

- ▶ 남코르도판주의 경우 2011년 1월 남수단 독립을 결정하는 국민투표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데 이어 남코르도판에 대한 주민협의 과정이 불발되자 남수단 독립을 앞두고 풍부한 유전지대를 보유한 남코르도판 지역 일부인 아비에이(Abyei)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 조성
- ▶ 남수단이 독립하는 순간까지도 아비에이의 소유권이 명확히 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2011년 6월 6일 남수단 정부군과 SPLM/N간에 Kadugli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서 남코르도판 사태가 촉발
- ▶ 남수단 분리독립후에도 남코르도판에서 수단-남수단 양측간 군사 충돌은 지속되어 누바산맥(Nuba Mountains)으로 확산된데 이어, 2011년 9월 1일 SPLM/N 게릴라들이 블루나일의 수도인 Ad-Damazin에 위치한 정부군을 기습하면서 블루나일까지 확산

### [ 블루나일 ]

- ▶ SPLM/N 게릴라들이 블루나일의 수도를 기습하자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다

음날인 9월 2일에 블루나일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SPLM/N 출신인 말릭 아가르 블루나일 주지사를 곧바로 해임 조치한데 이어 블루나일주의 SPLM/N 지부도 폐쇄 조치

- ▶ 블루나일주 난민들은 수단 정부군이 반군 거점지로 의심되는 마을에 공중폭격을 가하고 지상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수단 정부는 이를 부인하는 한편 반군들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난
- ▶ 2개주 사태는 대규모의 피난민을 발생시키고, 체류 주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지원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수단 정부는 처음에는 구호단체들의 진입을 금지했으나 이후 구호단체들의 진입 허용
  - 2013년중 2개주 주민들에 대한 소아마비 예방접종 시행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었는데, UN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수단정부가 예방접종을 위해 2013년 11월 1~12일간 일방적인 휴전 조치를 발표하였고, SPLM/N측에서도 이를 수용
- ▶ 2019년 8월 수단 과도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알-바시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던 블루나일 및 남코르도판의 반군들이 협상장으로 다시 복귀하였으나, 수단 중앙정부내 요직 배분 등 반군세력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재차 교착

## 나. 아프리카연맹(AUHIP)의 평화중재 노력

- ▶ 수단 남부 2개주에서의 분쟁<sup>8)</sup>은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이후 수단-남수단간 국경 획정 등 새로운 관계 설정을 저해하고 수단 및 남수단의 경제에 긴요한 석유 생산 및 수출을 위협하며, 대규모의 난민 발생 등 인도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8) 또한 2개주 문제는 수단-남수단간에 상호 반군 지원 문제를 위요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 수단측은 국경안보 해결의 핵심 사안으로 남수단이 SPLM/N에 대한 지원을 중단토록 지속 요구 중

아프리카연맹(AUHIP)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 수행<sup>9)</sup>

- ▶ 2011년 6월 28일 AU와 Meles Zenawi 에티오피아 총리의 중재로 아디스아바바에서 수단정부와 SPLM/N간에 2개주에서의 파트너십 및 정치·안보 장치에 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서명되었으나, 며칠 내 알-바시르 대통령이 이를 거부
  - 양측은 동 기본협정에서 SPLM/N을 정당으로 인정하고 반군의 상당수를 수단군(SAF), 여타 보안부대 등에 편입키로 합의하였는데 수단군에서 이에 저항함으로써 무산되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
- ▶ 상기 기본협정이 이행되지 못한 가운데 2개주에서 수단정부군과 SPLM/N간의 전투가 계속되었으며, 2013년 4월부터 AU측의 중재 하에 수단과 반군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직접 협상이 개시되어 2014년 12월 제9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나, 양측간 입장차가 현격하여 성과가 없는 상태
  - 수단정부측은 협상 의제를 2개주 분쟁에 국한시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SPLM/N 반군측은 2011년 6월 기본협정을 협상의 기본으로 하여 2개주는 물론 다르푸르주 문제도 함께, 그리고 수단내 정치 발전 문제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holistic) 접근하자는 입장<sup>10)</sup>

#### 다. 과도정부-무장세력간 합의

- ▶ 2019년 8월 민간 주도 과도정부 수립으로 지난 1989년 알-바시르 전 대통령의 군사쿠데타 이후 약 30년만에 민간 주도 정부가 설립되었으며, 전세계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이를 축하

9) 2012년 4월 24일 AU 로드맵과 2012년 5월 2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2046호는 수단-남수단 양측에 대해 상대국 반군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

10) 기본적으로 SPLM/N측은 2개주에서 자치권을 확보코자 의도하고 있는 반면, 수단정부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고 군사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우선 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

- ▶ 2019년 9월 각료들이 임명되었으며, 그간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층 및 여성계의 참여가 컸던 점을 반영, Asmaa Mohamed Abdalla 외교장관을 수단 최초의 여성 외교진으로 임명되는 등 새로운 변화 시도
- ▶ Hamdok 총리 등 수단 내각을 중심으로 ▲ 미국, 유럽 등 對서방 관계 개선 및 對수단 지원 확보, ▲ 경제구조 개선, ▲ 인권 상황 개선(2020.4월 여성할례 폐지 등)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 무장세력과의 평화협정 진전(2019.11월 과도정부와 무장세력(SRF: Sudanese Revolutionary Front)간 평화협정 초안 성격의 주바 선언(Juba Declaration) 채택), ▲ 前정권 세력 축출 등 일부 성과를 거양

## 4 | 국내피난민/난민 문제



- ▶ 수단이 장기간의 내전, 다르푸르 사태(2003~), 남코르도판 및 블루나일 2개주 사태(2011~) 등을 겪으면서 수단 내부에서의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Person: IDP)이 대규모로 지속 발생하여 인도, 신변 안전 문제가 심각하며, 이들의 장래 문제도 대두
  - 유엔은 다르푸르 지역에서 30만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하고 250만명의 국내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주장(2013년에만 IDP 50만명 발생)
  - WFP측은 2020년 3월 현재 193만명의 피난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캠프로는 Kalma캠프(남다르푸르), ZamZam캠프(북다르푸르) 존재
- ▶ 2013년 12월 남수단 내전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상반기중 약 15만명의 남수단 난민이 수단내로 대거 유입하여 체류
  - White Nile주는 2015년 5월중에만 추가로 75,000여명의 남수단인이 내전을 피해 동 주로 넘어왔다고 발표하였는바, 수단 체류 남수단 난민은 지속 증가

- ▶ 수단 동부지역의 경우 지난 40여년간에 걸쳐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의 분쟁을 피해 총 150만명 이상의 난민이 수단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추정
- ▶ 국제사회에서는 인도, 인권적 견지에서 수단내 대량의 국내 피난민 및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수단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단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중
  - WFP, FAO, IOM, UNICEF, UNHCR 등 국제기구들이 수단의 HAC(Humanitarian Aid Commission)와 협조 하에 긴급 구호 등 각종 지원 활동 전개 중
  - 이 과정에서 분쟁지역에 대한 접근(access) 허용 문제를 위요하고 국제기구, NGO 등과 수단정부간에 마찰도 수시 발생

수단내 난민 현황		단위 : 명
구분(출신지)	인원수	
남수단	818,462	
에리트레아	122,223	
시리아	93,497	
중앙아	31,295	
에티오피아	13,706	
기타	6,851	
전체 난민	1,086,034	

※ 자료: UNHCR(2020년 2월 29일)

## 5 | 수단 과도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강화 움직임



- ▶ 수단 시민혁명을 통해 민간주도의 과도정부가 수립된 이후, Hamdok 총리를 중심으로 민주적 정권이행 및 수단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수단 과도정부에 대한 지원 움직임 강화
- ▶ 특히, 수단 과도정부 수립 이후에도 군부세력과 민간세력간 갈등 표출 등 대내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수단 과도정부의 안정화 및 민주 정권으로 이행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긴요하다는 여론 형성
  - 수단 시민혁명을 계기로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수단 과도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우방국들의 비공식 그룹인 "Friends of Sudan"이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적 이행 및 효과적인 수단 지원을 위한 방안 협의중<sup>11)</sup>
  - 이러한 우방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2020.6월에는 수단, EU, UN, 독일 정부의 공동주최로 장관급 '수단 파트너십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50여개 관련 주요국 및 국제기구가 참석, 수단 과도정부의 민주적 이행 및 경제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한바, 국제사회는 총 18억불 규모의 對수단 지원을 공약(우리 정부 대표로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참석 및 발언)
  -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0.6월 수단 과도정부 지원을 위한 유엔임무단(UNITAMS, United Nations Integrated Transition Assistance Mission) 창설 관련 안보리 결의 2524호를 채택한바, 동 임무단은 ▲ 수단 과도정부와 무장세력간 협상 지원 및 협상 타결시 이행 지원, ▲ 수단 과도정부의 역량강화 지원, ▲ 수단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 금융기구나 협력 지원, ▲ 다르푸르, 블루나일주, 남코르도판주 등 갈등 지역 정전감시 및 평화구축 지원 등을 주요 임무로 하며, 2021.1월 창설을 목표로 추진

11) 2019.5월 미 워싱턴 D.C. 제1차 회의 이후, 2020.5월 프랑스 파리 회의까지 총 7차례 회의 개최



# 경제·산업

- 1. 개관 120
- 2.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123
- 3. 대외통상 131
- 4. 미국의 경제·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 135
- 5. 외국의 원조 138
- 6. 대수단 투자 139
- 7. 대외채무 문제 141

# IX

## 경제·산업



### 1 | 개 관



- ▶ 수단은 나일강 및 누비안(Nubian) 지하수 등 풍부한 수자원, 광활한 평지, 강한 햇살 등을 기반으로 하는 농축산업, 금광 등 광산업이 주산업이며, 향후 경제발전도 당분간은 농축산업과 광산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예상
  - 영국에서 1914년 카르툼 남부 Blue Nile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관개영농단지인 Gezira Scheme을 조성하고 동시에 그 상류에 Sennar댐을 건설하기 시작
- ▶ 1925년에 영농단지를 완성시켜 목화를 대대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의 대표적인 농업국가<sup>1)</sup>로 대두하고 중동의 빵바구니(breadbasket)으로 불리기 시작

1) 1977년 통계에 의하면 수단에서 농업은 노동력의 85% 이상, GDP의 약 40%, 외화 획득의 90% 이상, 수출의 90% 이상 점유

- ▶ 그러나 1970년대초 미국의 쉘브론사가 수단에서 석유탐사를 시작하여 석유를 발견하고 1995년부터 중국의 CNPC가 쉘브을 대체하여 수단에 진출, 1999년부터 석유를 본격적으로 생산, 수출하게 되면서부터 농업이 등한시되고 2011년 남수단 독립전까지 석유가 농업을 대체하여 수단 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
  - 석유로 인한 경제 부양효과에 따라 수단 경제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1년 남수단 독립전까지 약 10여 년간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을 달성<sup>2)</sup>
  - 석유 생산은 일산 약 50만 배럴, 석유수출액은 연간 약 40~45억불에 달하였는데, 수단정부는 농업 등 산업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비생산적인 인프라 개발, 보조금 지급, 소비재 수입, 군사장비 구입 등으로 주로 사용
  - Gezira Scheme 지역은 과거 성황 시 40~60만 헥타르에 달하였으나, 2019년에는 약 5만 헥타르 정도로 축소되었다는 평가
- ▶ 2011년 남수단이 분리독립하면서 수단은 보유 유전의 약 3/4을 상실하여 외화 획득과 정부재정의 주요 소스가 갑자기 사라지고 대체 수단이 부재하게 됨에 따라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2012년 경제성장률이 -7.6%선에 달하고 인플레이션이 40%대로 상승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직면
  - 남수단 독립 후 수단은 Heglig 지역의 일부 유전을 보유하고 있고, 2012년중 3개 석유지역(al-Najma, Bursaya, Hadida)을 새로 가동하였으며, 수단 전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지역을 9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시추 허가를 부여하는 등 석유 증산을 위해 노력중이나, 크게 성과가 없으며, 석유 생산<sup>3)</sup>이 일산 약 10~11만 배럴에 불과한 상태
  - 수단정부에서는 금 등 광물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석유 감소에 따른 공백을 매우기 위해 노력중이나, 금<sup>4)</sup>을 제외한 여타 광물자원의 경우 기초 투자가 미흡

2) 석유가 수출의 약 90%, 정부재정의 약 60%, 외국투자의 약 70%를 점유

3) 2020년 수단의 석유수출은 남수단 독립 당시 2011년에 비해 90% 이상 급감, 가솔린 생산 대부분을 국내 소비, 디젤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중이며, 2018년 석유수출은 4.9억 달러(원유 4.4억달러, 가솔린 5천만 달러) 기록

4) 수단내 금생산은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수출품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식 생산량(2015년 82톤→ 2016년 93톤 → 2017년 105톤)에 비해 실질 생산량이 250여톤에 달하며, 상당량이 밀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금의 경우에도 연간 약 20억불 정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아직은 기대에 미흡

- 수단정부에서는 또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국자본 차입 등을 통한 수입 증가와 긴축조치를 통한 지출 감소를 추진하는 한편,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재조정 등 시도(2015~2019,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그간 수단 정부가 경제위기의 이유로 꼽아온 20년간의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가 2017년 10월 해제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 불투명한 경제구조 ▲ 현금 유동성 부족 ▲ 달러 자산화 ▲ 물가 폭등 상황이 시민들의 생필품인 밀가루, 가솔린 등 물자부족 심화를 불러오면서 2018년 12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어, 2019.4월 마침내 알-바시르 정권이 퇴진

- 이후, 신과도정부가 2019.8월 수립되면서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기준 수단 인플레이션율이 100%에 달하고, 달러 대비 수단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2018년 12월 대규모 반정부시위 초기에 비해서도 크게 악화되었으며, 수단 과도정부에 대한 시민들이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현재 수단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외환거래 및 부채 탕감이 어려운 상황으로, 2018년 11월 이래 수단-미국 양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신과도정부 또한 테러지원국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현재에도 협상을 이어나가는 중

분야	비중(%)
농축산업	39.6
산업 (제조 및 광산업)	2.6
서비스	57.8

※ 자료: CIA Factbook(2020.3월)

## 2 | 주요 자원 및 산업 현황



### 가. 석유

#### (1) 자원 평가

- ▶ 남·북수단 전체의 석유 매장량은 평가기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67억 배럴 수준으로 리비아(464억), 나이지리아(372억), 알제리(122억), 앙골라(95억)에 이어 아프리카 5위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남북수단 접경지역인 Muglad 및 Melut 분지에 분포(남수단 지역에 약 75%)
- ▶ 석유 생산량<sup>5)</sup>은 2007년 일산 약 48만 배럴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당시 나이지리아, 앙골라에 이어 아프리카 3위), 이어 2010년 47만 배럴, 2011년 약 42만 배럴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주로 신규 유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 남수단 독립후 2018년 기준 수단내 석유 생산은 일산 10만 배럴로 급감
- ▶ 수단산 석유는 Heglig와 Unity 유전에서 주로 생산되었는데, 과거 수출시에는 Heglig산 30%, Unity산 70%의 비율로 혼합, 저유황의 우량품인 나일블랜드(Nile-blend)로서 판매되었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Nile-blend 생산은 감소하고 대신 산성이 강하고 응고가 쉽게 되는 저급품인 Dar-blend의 생산이 증가

5) 수단·남수단내 석유 관련 인프라로는 2개의 송유관, 3개의 정유소(Khartoum, Port Sudan, El-Obeid) 등이 있으며, 모두 수단에서 통제, 2019년 현재는 석유 감산으로 인해 3개 정유소중 Khartoum 정유소만 가동 남수단은 독자적인 석유 수출을 위해 케냐의 Mombasa항까지 연결되는 2,000km 이상의 송유관 건설을 위해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 Kirr 대통령 방중시 중국의 자금 지원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송유관 길이, 지형 특성 등 제반 여건상 동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이에 남수단은 수단을 관통하는 송유관을 이용해 Port Sudan 통해 수출하고, 수단측에는 송유관 사용료를 납부

## (2) 석유개발 과정

### [ 미국 쉘브론사 ]

- ▶ 1970년대 초 미국-수단간 관계증진에 따라 미국의 쉘브론사가 1974.11월 수단 정부와 석유탐사 계약을 체결하고 1975년부터 탐사 착수
- ▶ 쉘브론은 1977년 10월 최초로 시추를 개시하여 1978년 7월 Mugland 분지 Bentiu 근방에서 최초의 석유 징후를 발견하고 1979.3월 Abu Gabra에서 최초로 상업용 석유 발견(이후 Unity주, Upper Nile주 등에서 잇따라 석유 발견)
- ▶ 쉘브론은 1980년대초 석유 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수단정부와 함께 White Nile Petroleum Operating Company(WNPOC)를 설립하였으며, 1985년말 파이프라인 완공 계획 수립
- ▶ 그러나 1983년 남북수단간 내전 발생, 1985년 Nimeiri 정권 붕괴, 1989년 무슬림형제단 주도 군사쿠데타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세가 불안해지고 미국-수단간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쉘브론은 1992년 수단에서 완전 철수

### [ 중국 CNPC ]

- ▶ 미국 쉘브론사가 떠난 자리를 중국 중심 기업이 석유 생산 및 수출을 주도
  - 1989년 수단내 군사쿠데타 이후 수단-중국간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1995년 중국의 국가석유공사(CNPC)가 Chevron을 대체하여 수단의 석유개발에 참여
  - 중국 CNPC로서는 사상 최초의 해외진출 사례이며, 1997년 Greater Nile Petroleum Operatig Company(GNPOC)<sup>6)</sup>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도

6) GNPOC는 처음 CNPC 40%, 말레이시아 Petronas 30%, 캐나다 Arakis 25%, 수단의 Sudapet 5%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캐나다의 Talisman이 Arakis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수단 인권상황 등과 관련 NGO 등 여론의 압력으로 Talisman이 2003년 철수한 이후 인도의 ONGC가 대체 이후 2001년 CNPC, Petronas, 중국의 Sinopec, 아랍에미리트의 Al Thani 및 Sudapet가 제2의 컨소시엄인 Petrodar Operation Co.(PDO)를 구성하여 가동

- ▶ CNPC 주도하에 석유 개발과 함께 송유관, 정유소, 석유 수출 터미널 등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됨으로써 수단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석유 생산 및 수출 시작
- ▶ 1999년 Heglig-Port Sudan간 제1 송유관 완공, 2006년 Upper Nile-Port Sudan간 제2 송유관 완성
  - 중국은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이전 수단 석유의 약 80%를 구입하면서 수단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부상(수단 석유는 중국 총 석유 수입액의 5~6% 점유)
- ▶ 2011년 남수단이 독립 되면서, 수단 보유유전의 75%가 남수단 관할이 되어 중국 등 외국의 對수단 석유개발 투자는 정체

## 나. 수자원

- ▶ 수단은 연간 강우량은 극히 소량이지만, 아프리카의 젓줄 나일강이 수단 국토의 중심을 관통해 흐르고 있어 농업관개, 공업용수, 전력 생산 등을 위한 수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가 중의 하나<sup>7)</sup>(Nile basin이 전체 국토의 약 67.4% 차지)
  - 수단은 또한 북부지역 일대가 세계 최대 규모인 약 15만km<sup>2</sup>의 지하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누비안 지대(Nubian Sandstone Aquifer)에 속해 있어 지하 300~400m 정도에서 다량의 지하수를 끌어 올려 농업 등에 활용 가능
- ▶ 수단의 수자원은 주로 농업에 활용되고 있지만, 나일강 및 나일강 지류에서 댐을 건설하여 수력 전력 생산에도 기여
  - 수단내 수력발전은 주로 2009년에 완공된 최대의 댐인 Merowe댐(북부지역 나일강 변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총 1,250MW의 발전용량을 갖고 있어 수단 전력 소요의 1/3을 충당<sup>8)</sup>

7) 한 통계자료는 수단의 수자원 규모를 나일강 지분 약 250억m<sup>3</sup>, 여타 지표수(계곡 등) 약 30억m<sup>3</sup>, 활용 가능 지하수 연간 약 50억m<sup>3</sup> 등 총 약 330억m<sup>3</sup>로 평가

8) Merowe댐은 2003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동 댐 건설에 총 25억불이 소요되었는데, 50%는 아랍 자금, 30%는 수단정부 자금, 20%는 중국 자금으로 충당하였고, 댐 시공은 중국의 CCMD사에서 담당

### 수단의 수력발전소 현황(2020)

발전소명	소재지	가동년도	발전용량
Merowe	Northern State	2009	1,250MW
Roseires	Blue Nile State	1966	280MW
Jubal Aulia	Khartoum State	2003	30MW
Sennar	Sennar State	1962	15MW
Upper Atbara	Atbara State	2012	10MW
Khashm Elgriba	Northern State	1964	17.8MW

## 다. 광물 자원

수단은 광활한 영토만큼이나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석유이외에도 금, 은, 크롬, 아연, 구리, 우라늄, 운모, 석회석 등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남북수단간 오랜 내전, 석유에 치중한 자원개발정책, 광물 자원 탐사 및 채취를 위한 재원 및 기술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금<sup>9)</sup>, 석고, 크롬, 시멘트 원료 등 일부 광물자원만이 채굴되어 왔으나, 최근 광물탐사 및 개발 노력으로 희토류 등도 발견

주요 광물자원 분포지는 ① 홍해 산악지역(Red Sea주), ② Bayuda 사막지역(River Nile주), ③ Rahib 산악지역(Northern Darfur주), ④ Jebel Marrah지역(Eastern Darfur주), ⑤ Nuba 산악지대(South Kordofan주), ⑥ Ingassana지역(Blue Nile주), ⑦ Hofrat지역(South Darfur주) 등이며, 이들 지역에 금 등 다양한 광물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9) 금은 고대 파라오시대부터 수작업으로 채취하여 왔고, 2019년 현재에도 수십만명이 수작업에 종사중인 핵심 광물이며, 크롬은 1960년대 중반부터 5천톤에서 수만톤 정도를 생산하여 주로 유럽에 수출

- 금의 경우 수단 전역에서 발견되나 주요 산지는 홍해 산악지역, 북부 Nubian 사막지역, Beni Shangul지역(Blue Nile주)이며, 크롬은 Ingassana지역(Blue Nile주)이 주요 산지

- ▶ 특히 금은 석유를 대체하는 광물자원으로써 간주되고 있고, 연 생산량은 2017년 100톤을 초과하여 수단은 가나,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3위 금생산국 위치를 차지
- 세계 금 생산량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가 대부분(96%) 수입
- 금 수출은 2017년 16억 달러(2018년 8억 달러)로서 수단 전체 수출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최대 외화 수익원
- 수단 정부는 금 수출 확대를 위해 2012년 9월 카르툼에 금제련소(Sudan Gold Refinery Co.)를 설립하여 가동중(연간 300톤 이상의 금, 은 등을 제련한다는 목표)이며, 금밀수가 횡행하며, 수단 정부가 금 생산, 가공, 수출 관리,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량의 금이 밀수출 되는 것으로 분석

## 라. 농 · 축산 자원

### [ 농업 ]

- ▶ 농업은 수단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간주되며, 전체 국토의 35%인 65만 평방 km<sup>2</sup>(남한 전체 면적의 약 6.6배)가 경작 가능지로 분류되나, 관개시설, 도로망 등 기본 인프라의 미비로 다량의 식량을 수입하는 중
- 수단은 과거 아랍권 전체 농지의 30%를 차지하는 아랍의 곡창(Breadbasket for Arab)으로 불릴 정도로 수단 인구 약 4천만명 중 70% 이상 농업에 종사했으며 GDP 절반가량을 농업이 차지<sup>10)</sup>

10) FAO는 1975년에 수단을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 3개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

- 수단정부 자료에 의하면 수단내 경작가능 면적은 2억 에이커, 이 중 실제 경작 면적은 20%인 4,100만 에이커에 불과, 경작지중 90% 정도가 천수답이며, 관 개시설 갖춘 수리답의 비중은 10%에 불과한 반면, 전체 농산물 생산의 절반정 도는 수리답에서 생산되고 있어 농업 현대화 시급
- ▶ 수단 농업의 핵심지대는 카르툼 남부 백나일과 청나일 사이에 위치한 게지라 (Gezira)주 소재 "Gezira Scheme" 지역인데, 인근 Managil까지의 확장 지역을 포 함할 경우 그 규모가 거의 네덜란드의 국토면적에 해당하는 2.2백만 헥타(80만 헥 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
  - Gezira Scheme은 영국의 대 수단 식민정책의 유산으로서 식민지 당시에는 면화(cotton)가 핵심 작물이었고 일부 수수(sorghum)가 재배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재배 작물의 다양화 정책에 따라 주요 재배 대상 작물이 면화, 수수, 땅콩(groundnut), 밀(wheat), 채소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이들 작물들을 윤작 재배 (수단의 주식은 수수이며, 쌀 생산은 미미한 수준)
  - Gezira Scheme 지역은 1990년대 석유 개발로 인해 등한시되고, 민영화정책(1992 년), 대농민 토지 소유권 이전 정책(2005년) 등으로 대규모 영농이 어려워지는 등의 요 인으로 현재는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나, 수단 농업의 핵심 지역임에는 불변
- ▶ 수단 농업과 관련 특이사항으로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알팔파(alfalfa) 재배가 광 범위하게 이루어져 중동국가로 수출되고 있고, 중동국가에서는 이에 따라 북부 주(Northern State)등을 중심으로 지하수 등을 활용한 알팔파 재배에 적극 투자
  - 아울러 수단은 향수, 의약품, 사탕, 고무풀 등의 원료로 쓰이는 아라비아고무 (gum arabic)의 최대 생산국으로서 수단 남부 사바나 지역 전반에서 생산되며, 약 5백만명의 수단인이 직·간접적으로 아라비아고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데, 매년 수만톤의 아라비아고무를 생산하여 대부분을 유럽 및 미국에 수출
  - 기타 수수, 땅콩, 참깨 등도 주요 작물로 해외 수출중이나 밀과 설탕은 생산 부 족으로 수입에 의존

## [ 축산업 ]

- ▶ 수단은 광활한 자연 목초지를 활용하여 대규모의 가축을 사육하여 중동지역 등 에 활발히 공급 중
  - 수단정부 자료에 의하면 가축수는 2017년 총 1.1억두(낙타, 소, 양, 염소 등)에 달하 며, 낙타 사육 두수는 소말리아에 이어 세계 제2위로 평가

## 마. 주요 산업

- ▶ 수단의 경우 금 등 광물자원 채취 및 가공 목적의 특정 산업이외에 제조 및 가공 산업은 빈약한 편으로 설탕, 시멘트 생산, 자동차 및 가전 조립, 기초석유화학, 의약품 및 기본적인 의료소모품 등이 수단 국내에서 일부 생산
  - 공산품의 경우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공기업 및 일부 대기업(중견기업)으로부터 새롭게 제조업<sup>11)</sup>에 신규 또는 확장 진출하려는 수요가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본, 기술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한국 등 외국기업 과 협력, 외국기업으로부터 반제품,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의 공급을 희망

## [ 설탕 산업 ]

- ▶ 수단은 영국식민지 당시부터 설탕 생산 가능지로 고려되어 Gaili, Medani, Kamleen Singa, Jebal Marrah 등지에서 사탕수수가 재배되었고, 1962년 Gu neid 설탕공장이 가동되면서 설탕생산 시작(남부 White Nile주 핵심지역)
- ▶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남아공과 함께 설탕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1

11) 수단 기업들의 제조업 진출 희망분야 : 자동차 및 가전 조립, 자동차 타이어, 배터리 조립, 의료기구, 기저귀 등 생활용품, 플라스틱 제품 제조, 육가공, 인쇄 등

- 년 남수단 독립 이후 경제난 타개 차원에서 설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중
- 2007년에 약 8억불을 투자하여 White Nile주에 667km<sup>2</sup>의 면적을 자랑하는 사탕수수 농장을 개발하고 2012년 7월 연간 50만톤의 설탕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White Nile Sugar Factory가 가동됨으로써 설탕 자급자족 수준에 도달(수단의 연간 설탕 소비량은 약 120만톤)
  - 그러나 최근들어 설탕 생산은 여전히 국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해 2017년 3.3억 달러, 2018년 5.6억 달러의 설탕을 수입, 설탕은 석유, 밀에 이은 수단의 3대 수입 품목임

### [ 시멘트 산업 ]

- ▶ 수단은 영국 식민지 당시인 1920년대에 수단 최초의 Sennar댐 건설을 위해 Makwar 시멘트 공장이 건설된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시멘트 공장(대부분 River Nile주 소재)을 보유중이며, 연간 약 3백만톤 이상의 시멘트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소비량 약 3백만톤을 충족하는 시멘트 자급자족 달성
  - 현재 국내 소비량을 충족하고 남는 시멘트를 에티오피아 등지로 수출중
-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은 흥해연안의 북동부, 이집트와 접경지역에서 북부 주요도시인 Atbara간 북부, Sennar댐 인근의 중부, 다르푸르 주도인 El Fasher 등 서부지역에 걸쳐 다량으로 풍부히 분포

### [ 기타 ]

- ▶ 석유화학, 플라스틱
  - 3개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수단 분리독립으로 석유생산 급감, 현재는 카르툼 정유공장만 가동중, 일생산 10만 배럴 내외로 가솔린의 국내소비 대부분을 충당중이나 디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수단 석유공사와 중국 석유공사(CNPC)가 합작 설립한 Khartoum Petrochemical社가 유일하게 2만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수지 생산중

- ▶ 자동차, 가전 조립
  - 공기업인 GIAD사는 현대차와 협력 하에 6개 모델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DAL Motors사도 기아차와 협력 하에 승용차 조립생산 추진중
  - CTC 그룹은 LG 전자와 협력, 에어컨, 냉장고 등 조립·생산중
- ▶ 이외에는 제약, 의료기기, 식품가공, 자동차 배터리, 윤활유 제조 등이 수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3 | 대외통상



### 가. 대외교역 현황

- ▶ 수단의 대외교역은 전통적으로 단일상품(1999년 이후 석유, 그 이전 목화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석유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특히 수출분야에서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추세
  - 석유 수출 비중은 남수단 독립이전인 2010년 약 85%에서 2018년 약 15%로 대폭 감소
  - 남수단 독립후 수입액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으나, 수출액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
- ▶ 수단 중앙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수단의 대외교역은 2018년 기준 총 약 123억 달러 규모로 수출 약 34.8억달러, 수입 약 78.5억 달러 정도이며, 43.7억 달러의 적자 기록
  - 주요 수출품목은 금(8.3억 달러), 참깨(5.8억 달러), 양(4.7억 달러), 원유(4.4억 달러), 낙타(2.2억 달러), 면화(1.6억 달러), 아라비아 고무(1.1억 달러) 순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제품(9.9억 달러)로 전체수입의 30%를 차지했고, 밀가루<sup>12)</sup>(7.2억 달러), 설탕(5.6억 달러), 철강 및 철강제품(4.0억 달러), 비전자기구(3.8억 달러), 전자제품(3.8억 달러), 의약품(3.2억 달러), 트랙터(2.4억 달러) 순

- 주요 교역 대상 지역은 수출의 경우 중동이 최대 교역지로 UAE가 전체 수출의 27%를 점하였으며, 이어 중국 22%, 사우디아라비아 16%, 이집트 13%, 인도 4%, 에티오피아 2%, 터키 2% 순이었고
- 수입의 경우 아시아가 최대 교역지로 중국이 수단시장의 23% 점유, 그뒤를 인도 11%, UAE 10%, 사우디아라비아 9%, 러시아 8%, 이집트 6%, 터키 5%, 독일 3% 순, 우리나라는 1.8%로 13위 기록

## 나. 통상제도

### [ 관 세 ]

- ▶ 수단의 평균 관세율은 21.6%로 높은 편인데,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 광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면세인 반면, 가전, 자동차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어 평균 관세율이 40%에 육박
  -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이나 하위중소득 국가 그룹 (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상황으로 WTO 미가입 등이 작용
- ▶ 또한 품목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커서, 가령 의료기와 제약은 수입 품목 중 무관세의 대표적인 품목이며, 농산물과 非 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5%인데 반해 非 농산물 품목은 15.7%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게 책정

12) 수단은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밀 생산량이 국내소비량에 크게 못미쳐 밀가루 수입이 연간 7억 달러 내외 차지

### [ 수입 부과금 ]

- ▶ 수입과 수출에 대해 모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품 수입시 관세에 더해 17%의 부가가치세(VAT), 3% 영업세를 부과하고 제품에 따라 개발세, 기타세금(특소세 성격) 납부 필요
  - 이는 주로 자국 생산 제품을 보호하고 사치품과 국민 건강에 유해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
- ▶ 수입 부과금 등으로 명목적으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최고 관세율이 40%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관세 및 부과금이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수시로 변화하는 지침 등의 이유로 실제 부과되는 관세와 상당한 차이 등이 발생<sup>13)</sup>

### [ 수입 규제 ]

- ▶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자국 산업 보호 명목의 수입 규제 조치 비실행
  - 수단은 WTO 비회원국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세법에 명시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수입이 가능
- ▶ 다만, 수단은 이슬람 규율인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제품인 알코올 음료, 외설 영상물, 무기, 도박용품, 중고 의류 등은 반입이 금지되며,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도 금지

13)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25~40%의 관세, 17% 부가세, 3% 개발세, 130~150%의 기타세(특소세 성격) 부과

## 다. WTO 가입 문제

- ▶ 수단은 2020년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의 회원국은 아니나 오픈서버 지위 보유
- ▶ 수단은 1994년 10월 WTO 가입을 신청하여 실무 그룹으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1월 Memorandum on the Foreign Trade Regime을 제출하여 이후 두차례 가입협상 실시
  - 수단은 자국이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며, 가입 지연이 통상·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주장
- ▶ 수단은 비석유분야 수출 확대 및 다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업계를 중심으로 WTO 가입 필요성이 적극 제기됨에 따라, 2015년부터 WTO 가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통상부내에 관련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여 Memorandum on the Foreign Trade Regime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관측

## 라. 지역 경제·통상기구 가입 현황

- ▶ 수단은 석유, 천연자원, 농산품 등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구조와 제조업의 미발달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
- ▶ 현재의 2개 지역협정에 가입해 있으며, 수단은 자국이 아랍권과 동남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큰 이점이 있다고 적극 강조중
- ▶ 아프리카 52개국이 서명해 출범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관련, 수단은 2018년 설립선언문에는 서명했으나 아직까지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

### ①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 1981년 이래 존재하였던 특혜무역지역을 대체하여 1994년에 발족한 아프리카지역 자유무역지대의 하나로서 이집트와 수단을 포함 동남아프리카 국가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억명의 인구에 총 GDP 규모는 7,000억불을 초과(수단은 1981년부터 원년 회원국으로 가입)
- 2008년에 여타 아프리카 지역기구인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와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의 회원국에 대해서도 자유무역 지위 부여

### ② 범아랍 자유무역지대

(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 1998년에 발족한 아랍권 자유무역지대로서 수단은 처음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에 알제리가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수단의 경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는 2006년부터 매년 20%씩 하향 조정되어 2010년에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수단에서의 수출제품은 2005년부터 무관세 수출

## 4 | 미국의 경제·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



### 가. 개요

- ▶ 수단은 1997-2017.10월간 미국의 경제제재, 1993년 이후 현재까지 테러지원국<sup>14)</sup>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미국기업에 의한 수단 관련 금융거래, 대수단 무역·

14)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 시리아, 이란, 수단 4개국임

투자는 모두 금지되어 제약 대상

- 미국계 은행을 통한 달러화 결제가 금지<sup>15)</sup>되면서 대부분 수단 바이어들은 두바이 디르함, 유로화 등을 통해 비미국계 은행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수출입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 나. 배경 및 경과

- ▶ 1997년 11월 3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3067호를 통해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를 명령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정부는 수단정부가 테러리즘 활동 지원, 주변국가 불안정화 시도, 종교의 자유 침해와 노예제 등 인권침해적인 정책들을 통해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수단정부 및 수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경제제재 부과
- ▶ 2006년 4월 2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수단정부가 다르푸르 지역에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591호(2005년 3월 29일)에 부응하여, 행정명령 13400호를 통해 경제제재의 범위를 확장, 다르푸르 지역의 반인륜적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의 자산 동결 명령
- ▶ 2006년 10월 13일 부시 대통령은 행정명령 13412호를 명령, 현재의 남수단에 해당하는 지역 정부를 경제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미국인의 수단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모든 거래를 금지하였으며, 또한 수단 특정지역(남코르도판주, 블루나일주, 아비예이, 다르푸르 등 소외지역)에 대해 기존 경제제재 조치 일부 완화
  - 남수단 독립 후 2011년 12월 8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은 남수단내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활동 및 거래와 함께, 남

15) 2016-2017년에는 미 국무부가 달러화로 결제한 유럽계 은행을 제재하는 등 유럽계 은행들도 수단 관련 은행거래에 제약이 따르면서 우리기업들의 수단 수출대금 결제가 원활하지 않고, 두바이, 사우디 등 제 3국 소재 기업, 은행을 통한 비달러화 결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련 금융 비용이 증가

수단과 관련한 물자, 기술, 서비스의 수단을 통한 흔적을(transshipment)을 허용

- ▶ 미국정부는 이후 경제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농업, 의약, 교육, 정보분야 등의 경우 일부 제재 완화 조치도 시행
  - 2010년 농업장비 및 서비스 수출 허용, 2014년 교육기관간 교류·협력 허용, 2015년 2월 개인통신장비(스마트폰, 랩탑 등) 및 프로그램 수출 허용
- ▶ 이후 수단 정부는 경제제재 해제에 역점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거듭한 결과, 2017.10월 20년째 이어온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가 전격 해제
  - 다만, 수단이 1993년 이래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등재된 관계로, 사실상 경제제재<sup>16)</sup> 해제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수단 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중

## 다. 영향 및 파급효과

- ▶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및 과거 대수단 경제제재를 이유로 수단이 국제금융체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기업이 대수단에 투자를 철회하고, 해외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보복을 우려 대수단 거래에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수단과의 미화거래 등이 불가능해져 외국기업의 대수단 거래도 위축되는 등 수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중
  - 아울러, 수단내 신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며 수단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경우 시리아, 이란, 북한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아이튠스, 익스피디아, 아마

16) 2017.10월 경제제재 해제의 주요 내용  
 ① 미-수단간 무역허용(상품, 서비스 수출입 및 이를 지원하는 행위)  
 ② 미국인의 대수단 투자허용  
 ③ 미국인의 수단내 석유 및 석유화학 비즈니스 허용  
 ④ 수단내 기관/개인과의 금융거래 허용

존 등 온라인 구매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미국 프로그램 다운로드 조치도 불가능한 상황

- ▶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라 대주채국 차관 및 원조 제한, 부채탕감 논의 금지, 방산 물자 수출 및 판매 금지,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국제기구(WB, IMF)의 자금공여 금지 등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조, 차관 및 투자에 제약
  - 또한,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국제은행들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사유로 수단 관련 자금중개에 극히 소극적이며,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 결국,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생긴 경제적 공백을 중국, 인도 및 GCC 국가들이 채우면서 이들 국가들이 수단에 끼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 초래
  - 다만, 2011년 남수단이 분리독립하면서 석유를 통한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다른 나라들이 경제공백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단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테러지원국 해제를 목표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보다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

## 5 | 외국의 원조



- ▶ 수단은 1인당 국민소득, 생활여건 등 제반 측면에서 세계최빈국중의 하나이며, 오랜 남북수단간 내전, 다르푸르 사태, 2개주 문제 등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이로 인해 인권, 인도적지원 및 개발 관련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 및 개발협력 관련 원조 제공
  - 이와 같은 인도 및 개발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UNDP 등 많은 국제기구 및

NGO 등이 수단내에서 활동중<sup>17)</sup>

- ▶ 2018년 기준 연간 대수단 ODA의 총액은 9.635억불로서 남수단 독립 이전인 2010년 21.42억불 대비 1/2정도 수준에 불과한바, 이는 미국, 캐나다 등 서방국에서 지원의 상당수를 남수단 쪽으로 이전한데 기인했다 분석
  - OECD 통계상 2017-18년 기준 최대 ODA 지원 국가는 미국, EU, 영국, UAE, 독일순
- ▶ 2019.8월 과도정부수립 이후 서방국들을 중심으로 대수단 원조를 확대하는 중

## 6 | 대수단 투자



- ▶ 수단의 경우 과거 1970년대 중반 GCC국가 등의 농업에 대한 투자, 1970년대 이후 미국 Chevron사, 중국, 인도 등의 석유개발에 대한 투자 등이 이루어진바 있으며,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이후에는 석유자원 상실, 미국발 제재까지 겹치면서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 아랍, 중국 등지로부터 농업 및 광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마저도 남수단 독립 이후 정체상태<sup>18)</sup>
  - UNCTAD(UN무역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대수단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15년 17억 달러에서 2016년 11억 달러, 2017년 11억 달러로 감소된 상태
  - 중국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석유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2009년 및 2010년 사이 중국 대외투자의 3% 정도에 달하였으며, 중국 정부

17) 수단내 활동 국제 및 지역기구(2020): UNDP, WFP, UNICEF, UNFPA, IOM, FAO, World Bank, WHO, IMF, OCHA, ILO, IFAD, UNEP, UNAMID, UNISFA, ICRC, African Union, Arab League, African Development Bank 등

18) 수단은 쿠웨이트, 알제리, 오만, 이집트, 예멘,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카타르, 레바논, 튀니지, 모로코, 지부티, 요르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중국, 터키, 바레인, 모리셔스, 에티오피아, 차드,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불가리아,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과 투자보장 및 장려에 대한 협정을 체결

는 1995~2017년간 석유, 통신 등 분야에 대한 대수단 투자규모가 약 2백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 ▶ 수단정부에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2013년에 국가투자장려법을 개정하여 재건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간주하여 특혜 부여, 저개발지역 및 특정 경제분야에 대한 특혜 부여, 자본재 수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조치를 강화하여 대외투자를 유치코자 노력중이나 성과미비
- ▶ 주요 투자분야는 농업, 광산업, 분야에 치중
  - **(농축산)** 수단은 아랍권 경작지의 30%를 점유, 아랍의 식량창고로 불리며,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단 농축산업에 투자 곡물 및 사료작물 대규모 재배, 수단 입장에서 농축산업 현대화, 수출산업화 위해 외국인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
  - **(광산업)** 남수단 독립에 따른 유전 75% 상실로 최대 외화수익원이 급감한 가운데 수단 정부는 단기간내 외화수익원이 될수 있는 금광 등 광산업 개발에 역점, 특히 수단 금광은 노천광으로 개발 비용 및 시간이 크게 들지 않아 캐나다, 중국, 아랍권 회사가 눈독, 그러나 지방군벌 및 고위층의 밀수출, 영세한 규모로 인해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 의존 광산업 생산성은 낮은 상태며, 기업화, 현대화 필수
  - **(오일가스)** 남수단 독립전에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서방을 대신해 석유개발 투자에 적극적이었으나 남수단 독립후 오일가스 투자 정체 상태
- ▶ 수단 산업화, 경제발전 위해 외국인투자는 필수적이거나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불투명한 행정, 낙후된 인프라와 연관산업은 투자 제약 요인, 단 2019년 들어 출범한 과도정부 안착, 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로 연결될 경우 대수단 국내외 투자 단기간내 급등 예상

## 7 | 대외채무 문제



- ▶ 수단의 막대한 외채문제는 수단의 경제를 압박하는 핵심요인으로서, 수단측은 외채문제 해결(외채탕감)을 위해 노력중
- ▶ 2020년 현재 수단의 외채는 575억 달러로 추산되며, 채납(총 외채의 85%)에 따른 가산금과 이자로 급증세
  - 주요 채권단은 파리클럽 국가(미, 영, 호주 등 33%) 및 아랍산유국(37%),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14%)이며, 그 외 상업차관(민간은행 12%) 및 중국차관 등으로 구성
- ▶ 수단의 외채는 대부분 1983년 이전 차입에서 발생하였고, 1983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차입이 어렵게 되었지만, 이자 및 연체에 따른 가산금으로 연간 약 10%씩 증가하고 중국의 차관이 신규 유입됨으로 인해 외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
- ▶ 수단측은 수단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중인 고채무빈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에 대한 채무구제 프로그램(HIPC Initiative)의 조건을 충족하나, 미국의 반대로 적용 받지 못한다고 주장
  - 외채탕감 논의는 일반적으로 파리클럽이 주도하고 비파리클럽은 파리클럽의 결정에 따르며, 아랍산유국들도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친미국가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의 의향이 관건
- ▶ 한편,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에 따라 수단-남수단간에 외채 분할문제<sup>19)</sup>가 야기되었는데, 양국은 2012년 9월 27일 체결된 협력합의문에 따라 ▲ 분리독립 이전 외채는 수단이 일단 모두 부담하되 ▲ 이는 2년내 남북수단의 공동 노력에 따

19)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당시 남수단측은 남수단이 외채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외채를 모두 북수단에서 사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동 외채가 남수단에 대한 전쟁에 사용되었다는 시각에서 외채 공유를 거부

라 채권국이 채무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확보하는 조건부이며 ▲ 2년내 동 조건 미충족시 양국간 재협약한다는 소위 “Zero Option”을 채택

- 양국은 상기 2년 기한 마감을 앞두고 동 시한을 2016년 10월까지 2년 연기 조치
- 수단, 남수단, AU로 구성된 3자위원회가 공동노력을 전개중이나, 외채탕감 전망이 밝지 않아 향후 외채 문제를 둘러싼 남북수단간 분쟁 야기 가능성 다대

» 수단측은 2005년 CPA 체결 이후 및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경제제재 조치 해제와 함께 외채탕감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채탕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에 대해 불신감 표출



카르툼 시장 전경



카르툼 북부 '움두르만'에 위치한 '마흐디의 무덤'



## 사회·문화

1. 종교 146
2. 법률 150
3. 교육 153
4. 언론 155
5. 여성의 지위 157
6. 보건·의료 159



## 1 | 종교

### 가. 개괄

▶ 종교는 수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크게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원시종교로 구분되는데, 수단 국민의 절대다수(97%)가 이슬람을 신봉

#### • 이슬람

수단 무슬림의 대부분은 순니파로서 시아파는 극히 소수인데, 중동/시아반도에서 넘어와 현재까지 순혈주의로 남아있는 무슬림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혼혈이거나 무슬림을 받아들인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바 산맥을 제외한 전 국토에 포진. 이슬람법(Sharia)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 특성상 정부 및 수단 내 기득권 인사는 전부 무슬림으로 봐도 무방

#### • 기독교/천주교

7~8세기, 무슬림들이 처음 수단에 도착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이 수단 국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고, 19세기까지도 국민의 상당 부분이 콥트 기독교 신자들이었으나, 마흐디 신정이 들어서고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정책을 펼치면서 극소수로 전락. 남수단 독립과 함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남수단으로 편입되었으나 누바 산맥에 남아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수단 정부의 이슬람화 정책과 맞물려 박해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십만 명 안팎으로 추정

#### • 원시종교

부족에 따라 저마다 다른 원시종교를 보유하나 공통의 조상과 상호 영향을 많이 받은 부족끼리 종교적 유사함을 공유. 기독교/천주교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수단 남부에 포진하고 있으며 남수단 독립과 함께 대다수가 남수단으로 편입

### 나. 수단의 이슬람화

▶ 640년경부터 이집트를 점령한 무슬림들이 수단 지역을 분할하여 통치하던 누비아 기독교 왕조들을 위협하기 시작. 누비아 기독교 왕조들은 바크트(Baqt) 조약을 통해 매년 400명의 노예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분쟁을 회피하는 한편, 장기간 지속된 평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무슬림 상인과 인부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수단 지역이 장기간에 걸쳐 이슬람화되기 시작

- 이후 1270년부터 시작된 이집트 맘룩 술탄 바이바르스 1세의 본격적인 남벌을 시작으로 1315년, 1504년에 무슬림들이 수단 지역을 정복하면서 본격적인 아랍화 시대 개막
- 1821년에 오토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 모하메드 알리가 수단의 북부지역을 점령하고 남코르도판과 현재의 남수단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종교적, 인종적 갈등이 발생. 당시까지 남수단 지역은 아랍문화와 기독교

문화 모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존재

- ▶ 이후, 1881년에 Muhammad Ahmad Abdulla가 스스로를 마흐디(Mahdi)(이슬람에서 구세주)라 선언하고 이슬람의 개혁 투쟁세력을 규합하여 종교적 폭동을 주도한 것이 정치적 이슬람화의 기원
  - 당시 이집트 총독의 권유로 영국의 찰스 고든이 총독으로 수단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Mahdi가 1885년에 카르툼으로 진격하여 찰스 고든을 살해하고 카르툼을 점령. 카르툼을 점령한 마흐디는 6개월 후 장티푸스로 사망하였고, 뒤를 이은 Abdallah ibn Muhammad는 군국주의를 통해 확장을 도모하면서 이집트를 침공하였으나 영국군에게 패배
  - 곧바로 영국이 이집트 군과 함께 수단을 침공/정벌하고 영-이집트간 수단 공동통치 협정(condominium)을 맺었는데, 수단의 정치적 이슬람화는 역설적이게도 반세기 이상 지속된 영국 식민통치시대를 개막하는 시발점으로 작용
- ▶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이후, 현재까지 총 세 번의 비군사적/민주정부(1956-58년, 64-69년, 85-89년)가 수단에 수립되었는데, 동 기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군정권이 들어섰고, 이들 정권은 사법으로 샤리아 율법을 강력하게 실시하였으며, 수단의 이슬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활용
  - 특히 1989년 알-바시르 정부 출범 이후 아랍화 및 이슬람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정권 초기 Al-Turabi의 영향 하에 Sharia가 보다 철저하게 적용<sup>1)</sup>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된 헌법에서는 Sharia를 유일한 법의 원천(source)으로 수용

1) 다만, 남수단측과의 CPA체결과 함께 제정된 2005년 임시헌법에서는 Sharia가 입법의 원천이되, 북부수단 지역에 서만 적용된다고 규정

## 다. 이슬람 종파 및 교파 현황

### [ Sufism 주도 ]

- ▶ 수단은 순니파 국가의 하나로서 순니파 신도중 60% 이상이 자기정화 등 정신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Sufism(은연계통)을 신봉하고 있고, 약 10% 정도가 코란과 Sunna(모하메드의 언행에 바탕을 둔 구전율법)의 원본적 해석을 추구하는 Salafism(보수·원칙주의 성향)을 신봉
  - 이외는 무슬림 형제단에 속하거나 어떠한 종파에도 속하지 않는 신자로 구성
- ▶ Sufism은 주로 이집트나 서부아프리카를 통해 유입되었고, Salafism은 순례자들을 통해 사우디로부터 전파되어 사우디에서 후원중인데, 최근 들어 수단내에서 이슬람화 강화와 함께 Salafism이 증가 추세라는 평가
  - 이외 1990년대에 들어 과격 Salafism에 속하는 Jihadist Salafism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수단에 유입

### [ Maliki 교파 주도 ]

- ▶ 수단에서는 Maliki, Hanafi, Shafi, Hanbali 등 순니파 4대 교파(school of jurisprudence)중 Maliki파가 주류(약 73%)인데, 8세기중 Maliki bin Anas에 의해 개파된 Maliki파는 북·서아프리카, 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부, 북부 이집트에서 주로 신봉되며, 과거 이슬람 지배하의 스페인과 시칠리공국에서도 유행
- ▶ 이는 서기 1,500년경 수단 서쪽 다르푸르 지방에서 수단 중남부지역과 Soba왕국을 병합, 세력을 확장한 Funj 국가가 당시 아프리카, 스페인 등에서 주로 신봉되던 Maliki 학파를 채택한데 기인

## 2 | 법률



### 가. 제도

▶ 수단의 현행 형법은 샤리아에 기반하여 1991년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은 주로 무슬림이고, 특정 조항에 한해 비무슬림<sup>2)</sup> 및 남수단 거주민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명기

### 나. 종교법(Sharia)

- ▶ 이슬람 Shura(Consultation) 원칙에 따라 국가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 형식으로 각종 국민의회를 개최, 여기에서 채택된 건의내용을 정부정책으로 시행
- ▶ 1989년 9~10월 평화문제 토의 국민의회와 1990년 8~10월 정치제도 토의 국민의회가 건의한바에 따라, 새 정치제도로써 행정은 대통령중심연방제, 입법은 인민의회제(People's Law), 사법은 이슬람법(Sharia Law)을 각각 실시키로 결정
- ▶ 1991년 1월 1일 남부 3개주를 제외한 전국에 이슬람 율법을 실시, 이슬람국 건설을 추진(민사, 형사 모두 율법 적용, 법원조직 개편)
- ▶ 샤리아 형법 원리에 따르면, 모든 범죄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

2) 피고가 비무슬림인 경우 성문화된 형법이 존재하지 않고, 관습법에 따라 판결과 형량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처벌 근거 및 형량이 모호

- ① **Hudud** : 이슬람 율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인 음주, 절도, 노상강도, 불법 성관계, 불법 성관계에 관한 허위 고소, 배교(apostacy)가 이에 해당하며, 음주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코란 혹은 선지자 무함마드 언행록인 하디스에 명시된 형량에 따라 투석 사형, 절단형 및 태형으로 처벌
- ② **Qisas** : 살인 및 상해에 해당하며 처벌에 있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의 양 만큼을 처벌하는 '눈에는 눈'의 원칙
- ③ **Diyah** : 살인 및 상해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는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 발생
- ④ **Tazir** : 코란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를 총칭하며, 판사는 재량에 따라 형량 선고 가능

### 다. 주요 형법 조항

- ▶ 음주, 알코올 제조 및 소유의 경우 무슬림은 40대의 태형, 비무슬림은 40대 이하의 태형 및 1개월 이하의 금고(78조), 이슬람교 신자에 한해(비무슬림 허용), 알코올 판매 및 유통의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및 벌금형(79조)
- ▶ 비합법적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예: 할랄 방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고기)의 식용 판매는 1년 이하의 금고 및 벌금형(85조)
- ▶ 종교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음식(예: 돼지고기)을 권유하거나 모른 채 먹게 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및 벌금형(86조)
- ▶ 타인의 종교적 믿음 및 종교적 성상을 모독하는 경우(예: 코란 및 선지자 모독) 6개월 이하의 금고형 및 벌금형, 40대 이하의 태형(125조)
- ▶ 이슬람으로부터 배교를 선언 할 경우 사형에 처하나, 갇힘기간 동안 이를 철회한다면 사형은 집행 취소(126조, 현재 폐지)

- ▶ 불법적 사유로 종교 집회 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127조)
- ▶ 기본적으로 낙태는 불법이며, 낙태자는 3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벌금, 혹은 배상금(Diyah)으로 처벌받고 협조자는 1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벌금형(135, 136조)
  -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강간을 통해 임신한 경우, 태아가 이미 사망한 경우 혹은 강간을 통해 임신한지 90일이 초과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예외로 간주
- ▶ 간통의 경우 혼인자는 투석에 의한 사형, 비혼인자는 100대의 태형 및 1년의 추방형(145, 146조)
  - 무슬림 여성의 비무슬림 남성과는 혼인은 금지되나, 무슬림 남성의 비무슬림 여성과의 결혼은 허용
- ▶ 향문 성교는 1회시 5년의 징역 및 100대의 태형, 2회 적발시 5년 이하의 금고형 및 100대 이하의 태형, 3회 적발시 사형 혹은 종신형으로 처벌(148조)
- ▶ 간통 및 향문성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강간의 경우 100대의 태형 및 10년 이하의 금고형(149조)
- ▶ 성적 문란 행위시 40대 이하의 태형 혹은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금고형(151조)
- ▶ 성매매 구매자에 대해서는 100대 이하의 태형 혹은 3년 이하의 금고형(154조)
- ▶ 간통, 향문성교, 매춘 및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권유시 100대 이하의 태형 혹은 7년 이하의 금고형(156조)
  - 여성간 동성연애의 경우 코란에 비명시되어 Tazir에 해당
- ▶ 절도, 강도, 폭행, 사기와 같은 범죄의 경우 그 처벌 내용이 여타 문화권과 유사하나, 특정 요건을 성립하는 절도 및 강도의 경우 손목 및 발목 절단 등 수족절단형 집행

### 3 | 교육



#### 가. 개요

- ▶ 수단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관계(2019년 청년층 실업률 31.44%, World Bank)로,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직업을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구수 대비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 나. 제도

- ▶ 한국과 마찬가지로 6+3+3+4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0년에 현재의 8+3+4의 교육제도로 개편하였으며, 대학과정을 포함하여 크게 네가지 단계로 구분이 가능
  - 1단계: 유치원으로 3~4세에 시작하며 부모의 선택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수학
  - 2단계: 초등학교로 6~7세에 학교 입학하며 총 8학년 과정. 보통 13~14세가 되면 8학년이 되며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다음 단계로 진학
  - 3단계: 중·고등학교로 3년 과정의 상위과정을 거쳐 보통 17~18세에 졸업. 일반적인 과목에 더해 화학, 생명공학, 지질학 등 선택에 의한 세부 학문 이수
  - 4단계: 대학교로 4년 과정의 고등교육과정이며, 수단에는 카르툼 대학을 시작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분포. 우수한 교육과정과 상대적으로 값싼 생활비로 인해 많은 외국인 학생들(특히 이슬람학 수학을 위한 유학생)이 수단으로 유학
- ▶ 수단의 대학교육 과정은 일반 학사과정(Bachelor, 4년제)을 중심으로 단기 학위과정(Diploma, 2~3년), 대학원 과정 존재
  - 학기는 년 2학기 제도로 대학교별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1학기(10월~2월), 2학기

(3월~7월)로 구성

- 대학교육의 공식 교수 언어는 아랍어로, 특정 학교의 일부 과정에 한해 영어 강의를 진행
- 정세 변화 및 재정적 이유 등으로 휴교가 잦은 편

» 대학 입학은 중·고등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대부분 결정되는데,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학문을 선택하면 대학교육 담당 정부부처인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sup>3)</sup>에서 학생의 적성과 중·고등학교 성적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대학을 선별하고, 학생은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를 지원,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 입학 여부 결정

» 수단 내 모든 국립대학교의 명목상 총장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은 대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Vice-Chancellor로 칭해지는 명목상 부총장들이 실질적으로 총장의 역할을 수행

- 각 국립대학교의 부총장 선출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복수(multiple)의 후보자가 고등교육부에 추천이 되고, 고등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지명 임명

## 다. 현황

» 초등교육(6~13세)에 해당하는 2단계는 교육비가 전액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입학률이 70%선에 불과하며, 3단계부터는 학비 부담 및 남자의 의무적인 군복무로 인해 입학률이 더욱 감소하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 약 40%, 대학의 경우 약 15%선 (수단 어린이의 평균 수학기간은 3.1년)

- 다르푸르, 남코르도판 등 내전과 빈곤 지역은 2단계 입학률이 50% 이하

» 2020년 기준 총 43개 종합대학(University)이 운영

3) 수단의 경우 정부 교육담당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초·중등학교 교육은 별도로 Ministry of Education에서 담당

- 대학 소재지상 수도권(카르툼주)에 편중된 양상

구분	카르툼주	게지라주	기타	총계
대학	26	4	13	43

» 수단 대학 중 특기대학

- 최초 및 최고의 대학 Khartoum University(국립, 카르툼 소재)
- 이슬람연구 중심 대학 Islamic University of Omdurman(국립, 옴두르만 소재)
- 과학·기술 중심대학 Sud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국립, 카르툼 소재)
- 유일한 여성 대학 Ahfad University(사립, 옴두르만 소재)
- 수단 국민들이 설립한 대학 Omdurman Ahlia University(사립, 옴두르만 소재)
- IT 및 컴퓨터 전문 대학 Future University(사립, 카르툼 소재)
- 의학전문 대학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and Technology(사립, 카르툼 소재)

## 4 | 언론



### 가. 개괄

» 수단은 “국경없는 기자(Reporters Without Border)”의 2020년 세계 언론자유 지표에서 159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19년에서 16위 상승한 결과로서 알-바시르 정권하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되어왔으나, 2019년 8월 과도정부 출범 이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수단에는 1946년에 언론인 노조(Sudanese Journalist Union)가 결성되어 언론인 권익 신장, 복지 등을 위해 활동

- 노조측은 수단 언론의 경우 언론자유 취약, 언론사 재정상태 영세 등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집트, 차드 등 인근 아프리카 국가의 언론보다는 낫다고 평가

## 나. 주요 언론사

### » TV/ 라디오

- 수단 정부에서는 국영방송국으로 Sudan N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을 1962년에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TV와 라디오 방송 병행
- 사설 방송국으로는 Blue Nile TV(2001년), Ashoroq TV(2008년, 두바이에서 방송), Omdurman(2011년) 등 3개 방송사가 활동중

### » 주요 신문사

#### ① 아랍어판 종이신문

- al-Tayyar: 유력 언론인 Osman Mirghani가 운영하는 진보 성향 일간지
- al-Intibaha: 알-바시르 前정권과 가까운 성향의 정의평화포럼(JPF)과 연계된 일간지
- al-Sudani: 전여당인 NCP의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일간지
- al-Raai al-Aam : 친 알-바시르 前정권 성향 일간지
- al-Sahafa: 친 알-바시르 前정권 성향 일간지

#### ② 영어판 종이신문 (2020년 4월 현재 전무)

- SUDAN VISION: 알-바시르 정권 통제하 발간되었으며 과도정부 출범 이후 폐간(2003년 창간, 2020년 폐간)

#### ③ 인터넷 언론 (영어)

- Sudan Tribune: 해외에 망명해 있는 수단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으로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빠르게 보도
- Radio Dabanga: 일부 소식이 빠르게 업로드되나, 오보가 많은 경향

### » 통신사

- 수단정부에서는 공식 통신사로 Sudan News Agency(SUNA) 운영(1970년 설립)

## 5 | 여성의 지위



### 가. 개괄

» 수단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와 아랍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여성운동이 이루어졌던 국가이고, 수단 여성들은 과학, 정치 등 각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선구자(pioneer)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급여 및 연금 등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도 획득

- 최초의 여성조합인 Sudanese Women Union 설립(1952년) 및 최초의 여성신문 (Women's Rights) 창간(1955년)
- 여성 투표권(1953년) 및 피선거권 획득(1964년)
- 아프리카 중동지역 최초 여성의원(1965년) 및 아프리카 지역 최초 여성 판사(1976년) 배출
- 최초의 여성 각료(1971년), 최초의 여성 주지사(1991년) 배출

» 그러나 Nimeiri 정권 당시인 1983년 Sharia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이슬람화가 강화되고 내전 등 정세의 영향으로 여성의 활동이 보다 제약되고 통제되기 시작

- 1983년 Sharia법 도입과 함께 Sudanese Women Union이 일시 해체된바 있으며, 현재는 정부측의 Sudanese Women Union과 야권측의 Solidarity of Sudan Women이 핵심 여성조합으로 활동중

» 2005년 수단 임시헌법에서는 법 앞의 평등,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 동일근로·동일보수를 포함한 제반 권리 향유에 있어 남·녀간 평등 등의 규

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 헌법 개정시 여성권리 조항의 향배도 관심사

- ▶ 수단은 2015년 선거시부터 국회에서의 여성 몫을 30%로 증가시키는 등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여성의 공공활동 참여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교육, 노동시장, 결혼 및 이혼, 자녀에 대한 권리 등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할례 관습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수단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조약(CEDAW)”(1979년)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중의 하나
- ▶ 여성들은 2018년 12월 시작한 수단내 반정부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로이터, NYT 등 주요 언론들에게서 연일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에 힘입어 2019년 8월 출범한 수단 과도정부하, 최초로 여성 외교장관이 탄생
  - 여성에게 억압적인 이슬람법의 시행이 다소 완화되면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늘어나는 등 여성의 지위가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여성 할례 처벌 조항 추가(141(a)조, 2020. 7월)

## 나. 주요 지표

구분	여성	남성
성인 노동시장 참여율(2017)	23.6%	69.9%
의회내 여성 의석 비율(2017)	31%	69%
25세 이상 고등 교육 경험 (2010~2017)	14.7%	19.3%
여성 청소년 출산 비율(2015-2020)	1,000명당 67명	-

※ 자료 : UNDP(2020년 4월)

## 6 | 보건·의료



### 가. 개괄

- ▶ 수단의 보건·의료분야 역량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식수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위생·감염 등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
- ▶ 더불어 우수한 의료진들이 자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적은 보수를 이유로 해외로 나가면서 보건·의료분야 발전은 지지부진한 상황

### 나. 주요 지표

구분	수단	대한민국
출생률(여성 1인당)	4.407명	1.0명
유아 사망률(1,000명당)	46.7명	3명
HIV 감염(0~14세)	4,200명	-
기대수명	65세	83세

※ 자료 : 세계은행(2020년 4월)



## 한-수단 관계

1. 외교관계 162
2. 경제·통상관계 169
3. 개발협력사업 174
4. 문화·학술·체육관계 177
5. 재외국민 현황 178
6. 한국관련 단체 179

# XI

## 한-수단 관계



### 1 | 외교관계



#### 가. 외교관계 연혁

- 1976.04.21 영사관계 수립(우리 총영사관 개설)
- 1977.04.13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대사관으로 격상)
- 1990.11 주한 수단 상주대사관 개설

#### (1) 역대 공관장 현황

##### [ 주수단대사 ]

- 1977.05 김동근 대사(제1대) 신임장 제정
- 1981. 심장섭 대사(제2대) 신임장 제정

- 1983.03 유종하 대사(제3대) 신임장 제정
- 1985.06 박영우 대사(제4대) 신임장 제정
- 1988.06 한창식 대사(제5대) 신임장 제정
- 1991.02 이우상 대사(제6대) 신임장 제정
- 1994.09 장세돈 대사(제7대) 신임장 제정
- 1998.09 채수동 대사(제8대) 신임장 제정
- 2001.02 오기철 대사(제9대) 신임장 제정
- 2004.04 김동억 대사(제10대) 신임장 제정
- 2007.06 이병국 대사(제11대) 신임장 제정
- 2010.10 곽원호 대사(제12대) 신임장 제정
- 2013.09 박원섭 대사(제13대) 신임장 제정
- 2016.08 이기석 대사(제14대) 신임장 제정
- 2019.12 이상정 대사(제15대) 신임장 제정

##### [ 주한 수단대사 ]

- 1980.12 Mohamed El Amin Abdalla 대사 신임장 제정(동경 상주)
- 1983.12 Saeed Saad Mahgovh Saad 대사 신임장 제정(동경 상주)
- 1988.10 Mohamed Basheer 대사 신임장 제정(동경 상주)
- 1991.01 초대 상주대사 Attala Bashir 신임장 제정
- 1993.09 Yithaya Acol De Dut 대사 신임장 제정
- 1997.09 Abdel Hameed Ibrahim Gibreel 대사 신임장 제정
- 2002.09 Babiker Ali Khalifa 대사 신임장 제정
- 2006.11 Mohamed Salah Eldin Abbas 대사 신임장 제정
- 2010.10 Tageldin Elhadi Eltahir 대사 신임장 제정
- 2014.10 Mohamed Abdelaal Haroun 대사 신임장 제정
- 2018.12 Elrayih Hydoub 대사 신임장 제정
- 2020.01 대사직 공석(대사대리 체제)

## 나. 한국에 대한 평가

- ▶ 수단은 한국이 어려운 역경 하에서 오늘날의 정치·경제 발전을 성취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한국의 제조 능력과 기술 역량에 대해 신뢰
  - 다만, 지리적 위치, 그간의 양국관계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
- ▶ 수단정부는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기를 희망하고 경제 협력관계의 심화를 기대

## 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

- ▶ 수단은 비동맹 중립원칙에 충실하려는 입장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공개적인 태도 표명은 유보
-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수단 방문(2014년 10월)시 알-바시르 대통령은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
- ▶ 그러나, 실제로 실리적인 입장에서 한국과의 경제·통상협력, 한국의 대수단 무상원조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한국을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이 상징적인 수준 유지
  - 특히, 과거 불개입적 태도를 2016년 이래 전환,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전향적 자세 시현 중

## 라. 양국간 공동위 / 정책협의회 운영

- ▶ 한-수단 공동위 / 정책협의회 개최(1~3차는 공동위, 4차부터는 정책협의회로 개최)
  - 1991년 08월 제1차 회의 (장관급, 서울)
  - 1996년 04월 제2차 회의 (국장급, 카르툼)
  - 2003년 10월 제3차 회의 (국장급, 서울)
  - 2014년 03월 제4차 회의 (국장급, 서울)
  - 2015년 09월 제5차 회의 (국장급, 서울)
  - 2017년 04월 제6차 회의 (차관보급으로 격상, 카르툼)
  - 2018년 04월 제7차 회의 (차관보급, 서울)

## 마. 협정체결 현황

- ▶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
  - 1976년 12월 09일 체결
  - 1978년 06월 27일 발효
- ▶ 문화협정
  - 1977년 11월 23일 체결
  - 1979년 10월 14일 발효
- ▶ 이종과세 방지 협정
  - 2004년 9월 10일 서명
  - 우리측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수단측 국내절차 진행중
- ▶ 청소년·체육교류 약정
  - 2004년 5월 18일 서명
  - 양국 청소년 교류단이 매년 상호 방문

▶ 무상원조기본협정

- 2019년 10월 7일 서명
- 우리측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수단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대기중

**바. 주요인사 교류 현황**

**[ 수단 방문 ]**

- 1956 - 1965 친선사절단 5회 방문
- 1976년 04월 경제사절단 방문(단장: 민병권 무임소장관)
- 1978년 05월 김성진 문공부장관 방문
- 1979년 05월 수단혁명 10주년기념 경축사절단 방문(길전식, 이태섭 의원)
- 1980년 11월 최광수 대통령 특사 방문
- 1982년 06월 국회사절단 방문 단장 : 박익주 의원)
- 1982년 11월 정희택 감사원장 방문(AFROSAI 총회 참가)
- 1983년 02월 이원경 대통령특사 방문
- 1983년 12월 강경식 대통령 특사 방문
- 1985년 07월 봉두완 대통령 특사 방문
- 1986년 08월 이해원 대통령 특사 방문
- 1987년 08월 한-수단 의원 친선사절단 방문(단장 : 김정남 의원)
- 1989년 06월 조상호 대통령 특사 방문
- 1991년 12월 이한빈 전부총리 방문("사랑의 쌀" 전달)
- 1996년 01월 선준영 차관보, 정주년 KOICA 총재 방문(직업훈련원 준공식 참석)
- 2004년 04월 허성관 대통령 특사 방문
- 2006년 01월 천영우 외교정책실장 방문(아랍정상회의 참석)
- 2006년 03월 반기문 외교부장관 방문(AU 정상회의 참석)
- 2007년 05월 KOICA 이사장 수단 방문

- 2007년 12월 김현중 주유엔대표부 대사 방문
- 2008년 11월 김종배 합참작전처장 방문(UNMIS 파견 우리장교 위문)
- 2009년 11월 조환익 KOTRA 사장 방문(KOTRA 수단사무소 개설)
- 2011년 04월 김은석 에너지지원대사 방문
- 2014년 09월 권희석 아중동국장 방문
- 2017년 04월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 방문
- 2017년 07월 김일수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대표
- 2017년 12월 의원 외교단(이주영 의원, 김경협 의원, 이만희 의원, 이수혁 의원)
- 2018년 12월 백숙희 KOICA 이사

**[ 한국 방문 ]**

- 1976년 02월 Idris 무임소장관 방한
- 1976년 11월 Awad 통상장관 방한
- 1976년 12월 Idris 무임소장관 방한
- 1977년 11월 Bona Malwal 문공부장관 방한
- 1979년 05월 M.S. Chandour 국회부의장 방한
- 1979년 07월 Bashir Abbadi 공업부장관 방한
- 1980년 09월 Farouk I. Mugboul 통상장관 방한
- 1981년 10월 Izz E.D.A.Malik 육군참모총장 방한
- 1982년 04월 Hussein El Khidr 감사원장 방한
- 1982년 06월 Man Sour 재무·기획부장관 방한
- 1982년 09월 Salih 국회부의장 방한
- 1983년 03월 Nimeiri 대통령 방한
- 1983년 10월 엘 사에드 국회의장 방한(제70차 IPU 총회 참석)
- 1984년 04월 와지 공업부장관 방한
- 1984년 10월 엘 타엔 부통령 방한
- 1984년 10월 Sower Al Dahab 군총사령관 방한
- 1985년 10월 Awad 재정경제부장관 및 Mekki 수단은행총재 방한

- 1987년 04월 엘 마흐디 공업부장관 방한
- 1987년 09월 El Fadil 군총사령관 방한(국군의 날 행사 참석)
- 1990년 05월 Ibrhim Mayel Eidam 청소년체육부 장관 방한
- 1991년 08월 Ali Ahmed Sahloul 외교장관 방한(제1차공동위 개최)
- 1991년 10월 Taj El Sir Mustafa 상공장관 방한(투자설명회)
- 1992년 04월 Abdel Rahim Hamdi 재무장관 방한
- 1993년 08월 Taj El Sir Mustafa 상공장관 방한
- 1994년 10월 Hassan All 국방장관 방한(대우 김우중 회장 초청)
- 1996년 03월 A. O. Mohamed Taha 외교장관 방한
- 1997년 04월 A. M. Magaya 국회부의장 방한(IPU 총회 참석차)
- 1999년 04월 Hamid Muhamed Ali Torin 교육부장관 방한(UNESCO 행사 참석)
- 2004년 05월 Rizig 청소년체육부 장관 방한
- 2004년 09월 Mustafa Osman Ismail 외교장관 방한
- 2004년 09월 Mukhtar 검찰총장 방한(제9차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참석)
- 2005년 05월 Nafie 연방 조정부장관 방한(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석)
- 2007년 10월 Abdllah 문화청소년장관 방한(문화관광부 초청)
- 2007년 11월 Al-Khalifa 환경부장관 방한
- 2008년 05월 Al Bashir 대통령 방한(한-아랍소사이어티창립국제회의 참석)
- 2008년 07월 El Jaz 재경부장관 방한
- 2008년 10월 Zubeir 에너지부장관 방한
- 2009년 09월 Salah H. Wahbi 수단석유공사(Sudapet) 회장 방한
- 2011년 10월 Babiker Nihar 관광부장관 방한
- 2012년 10월 Ali Mahmoud Abd Alrasoul 재정경제부장관 방한
- 2014년 05월 Elsa Hamid 국회부의장 방한(세계전자의회 컨퍼런스 참석)
- 2014년 10월 Tahani Abdullah 과학통신부장관 방한(부산 ITU총회 참석)
- 2014년 10월 Hassan Hilal 환경부장관 방한(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 2016년 03월 Golucuma 체육청소년부장관
- 2016년 06월 Ali 산업부장관
- 2016년 10월 Ibrahim Ghandour 외교장관

- 2017년 06월 Mohamed 재무장관
- 2017년 09월 Hamid Mumtaz 외교부 부장관
- 2017년 11월 Hussein Elhendi 국제협력부 부장관
- 2018년 04월 Abdelghani Elnaim 외교부 차관
- 2018년 05월 Musa Karama 산업부 장관

## 2 | 경제·통상관계



### 가. 개관

- ▶ 한-수단 양국은 1970년대 대우의 대수단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통상관계가 활성화되었으나, 1997년 우리의 외환위기에 따라 대우가 해체되고 수단에서의 대우 투자가 대부분 철수하게 됨에 따라 경제·통상관계 위축
- ▶ 아울러 1997년에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조치가 시작되어 우리 기업의 대수단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이후 수단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더해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2020년 현재 경제·통상 관계는 침체된 상황
- ▶ 다만, 수단내에서 우리의 일부 제품(자동차, 휴대폰, 전자제품 등)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시장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어 향후 우리 제품의 진출 잠재력은 높은 편

## 나. 양국간 교역현황

- ▶ 양국간 교역규모는 통계상 2019년 기준 약 1억9천만불 규모(수출: 약 1억 4천만불, 수입 약 5천만불)에 불과
- 주요 수출품: 자동차,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등
  - 주요 수입품: 폐 건전지, 동 스크랩, 채유식품(참깨) 등

한-수단 교역 현황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2년	137,249	-22.9	43,214	43,214	94,035
2013년	165,870	20.9	122,166	122,166	43,704
2014년	140,815	-15.1	30,834	30,834	109,981
2015년	163,358	16.0	17,819	17,819	145,539
2016년	149,183	-8.7	11,588	11,588	137,595
2017년	164,174	10.0	21,629	21,629	142,545
2018년	127,520	-22.3	57,577	57,577	69,943
2019년	142,394	11.7	54,039	54,039	88,355

※ 자료 : 관세청

### [ 참고사항 ]

- ① 우리는 과거 수단으로부터 원유도 수입하여 2007년도에는 석유 수입액이 약 3억 4천만불에 이르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국제 원유가 하락 등에 따라 수입선을 변경하여 이후 수입 중단
- ② 자동차의 경우, 수단 GIAD사에서 현대자동차의 협조 하에 연간 약 1만대의 현대자동차(베르나, 쇼나타 NF, i20 등 3개 모델)를 수단에서 부분조립생산(SKD: Semi Knock

Down)하였으나, 2012년 8월부터 생산 중단(현대자동차의 해외 3차 조립생산 중단 결정에 기인)

- ③ 우리 전자제품의 경우 수단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이 주로 제3국(중국, 태국, 인도 등)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서 수출 통계에 미반영
- ④ 우리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수단내 중고자동차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수단정부가 2010년 11월부터 중고차 수입에 대해 차량 제한을 부과하면서(사실상 금수) 수출 감소
- ⑤ 우리는 과거 수단 농산품(면화, 참깨, 땅콩 등)도 상당액 수입하였으나, 최근 들어 수입 실적 급감

## 다. 우리의 대수단 투자

- ▶ 우리의 대수단 투자는 수단 누적 투자규모는 2020년 4월 기준 1억 4,900만 달러이나, 최근 수년간 투자는 전무하며, 투자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이 철수하고 1건(General Medicine Company)<sup>1)</sup>만이 잔류중
-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57%를 차지하며, 이외 도·소매업(21%), 숙박(7%), 사업지원서비스(7%), 건설(3%), 기타(3%) 순
- ▶ 우리의 대수단 투자 중단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상품 교역 및 송금 제한, 수단의 낙후된 세제 등 열악한 투자 환경, 수단의 경제상황 악화 등에 기인

1) GMC는 카르툼 소재 제약생산회사로서 수단정부의 의약품 국산화 정책에 따라 대우, 신풍 및 수단 투자자 등 3자가 각기 35만불씩(총 105만불)을 투자하여 1994년 설립되었으며, 구충제, 기생충약, 각종 항생제 등을 생산하여 수단내에서 판매중

한국 대수단 투자 동향				
연도	신고건수	신규업인 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2	2	7,875	7,613
1981	0	0	0	263
1988	2	1	700	350
1989	0	0	0	350
1994	7	2	119,000	99,145
1995	0	1	0	12,000
2000	4	0	28,350	28,350
2001	1	1	250	250
2005	2	1	500	20
2006	3	0	990	987
2009	3	2	216	116
2010	2	0	9	0
2012	1	0	15	0
2013	1	0	158	0
합계	28	10	158,063	149,444

\* 자료: 수출입은행 / 주: 1980년 실적은 1968-1980년까지의 누계(2020.4월 기준, 2013년 이래 실적 없음)

## 라. 최근 우리기업 진출현황

### (1) 우리기업 지사

▶ LG전자가 카르툼에서 지사 운영중(판매는 현지 대리점 사용)

### (2) 우리기업 수주 주요 프로젝트

- ▶ 우리기업인 DIMCO에서 2008년 LS산전/한전기공 등과 함께 카르툼 화력발전소 복구 사업(미화 8천만불 규모)을 수주하여 이행 완료
- ▶ 우리기업인 DIMCO에서 2012년부터 수단 노후기관차 복구사업을 수주하여 카르툼 북부 철도 중심지인 Atbara에서 현재까지 계속 사업 시행중
- ▶ 우리 기업인 유양산전에서 2010년 UNAMID가 발주한 다르푸르지역 3개 공항(EI-Fasher, Nyala 및 EI-Geneina) 항공조명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이행 완료

## 마. 기타 주요 동향

### (1) 카르툼국제박람회 참가

- ▶ 수단정부에서는 1978년부터 매년 1~2월중 카르툼에서 최대의 박람회인 카르툼 국제박람회(International Fair of Khartoum)를 개최중
- ▶ 우리는 1978년 제1회 박람회에 217종의 품목을 전시하여 200만불의 계약고를 기록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가

### (2) 수단의 1993년 대전 EXPO 참가

- ▶ 수단 특산물 전시 및 National Day 행사 개최

### (3) 우리 시장개척단 수단 방문(2005.12.11-14)

» KOTRA 카이로 무역관의 주선으로 수단 신흥시장 개척단(9개 업체 및 현지 3개 업체)이 수단을 방문, 약 100여개 업체와 상담회 등 개최

### 3 | 개발협력사업



#### 가. 개요

» 우리는 수단에 대해 1991년부터 개발협력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프로젝트, 물자지원, 긴급원조, 국내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의료단 파견, 태권도 사범 파견, 민간단체 지원, NGO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시행

- 지원의 핵심은 직업훈련, 의료·보건분야 뿐 아니라 분쟁지역의 평화구축 및 구반군 전투원들의 재사회화 사업, 태양광 관개 사업을 통한 농민 소득 확충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양자사업 및 유엔과의 다자 협력사업 병행)

#### 나. 지원 규모 및 분야

1991-2019년간 대수단지원 실적 : 총 5,132만 불 지원(잠정)												단위 : 백만불	
연도	'90-'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추정)	계
지원액	11.88	1.37	1.56	0.89	2.38	2.45	3.20	5.53	7.10	5.00	3.55	6.41	51.32

※ 출처 : 1990-2018(OECD Stat), 2019년 통계는 잠정치

## 다. 주요 지원사업 현황

### (1) 양자차원

- » 한-수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카르툼)(1992-98, 479만불)
  - 동 훈련원 개·보수사업(2008-09, 180만불)
- » 수단 외교부 본관(신라홀) 건립사업(카르툼)(2004-06, 109만불)
- » 아즈하리대학교 IT센터 건립사업(카르툼)(2007-08, 190만불)
- » 주혈흡충퇴치사업(White Nile주)
  - 제1단계(2008-09, 120만불)
  - 제2단계(2009-14, 180만불)
  - 제3단계(2015-18, 600만불)
  - 제4단계(2020-24, 600만불) 추진중
- » 농업기술훈련원 건립사업(Gezira주)(2011-18, 666만불)
- » 수단 카르툼 및 게지라 TVET 역량 강화 사업(2020-24, 500만불)

### (2) 다자차원

- » (UNDP) 수단 다르푸르 청년자원활동 재구축프로젝트(YVRDP: Youth Volunteers Rebuilding Darfur Project)(주 기여자로 참여)
  - UNDP MDGs 신탁기금으로 시행(2012-14, 144만불)
  - 제2단계 사업(2015-16, 80만불)
  - 제4단계 사업(2017-19, 200만불)

- ▶ (UNDP) 수단 UNDP 리버나일 주 태양광물펌프 설치를 통한 관개개발사업 (2019-23, 640만불)
- ▶ (UNICEF) 수단 지역사회 기반 백신 사업(2015-18, 300만불)
- ▶ (UNICEF) 수단 아동 영양실조 예방 및 대응 사업(2015-18, 300만불)
- ▶ (UNICEF) 남수단 난민 식수위생 개선 사업(2016-18, 300만불)
- ▶ (UNICEF) 수단 지역사회기반의 수인성질환 예방 사업(2019-21, 590만불)
- ▶ (UNDP, UNICEF 등) 수단 블루나일주 복원력 증진 사업(2019-21, 300만불)

### (3) 최근 인도적 지원

- ▶ 2013년 : 황열병 퇴치 10만불(WHO), 식량원조 50만불(WFP), 홍수 복구 5만불(WHO), 홍역 퇴치 5만불(UNICEF)
- ▶ 2014년 : 식량원조 30만불(WFP), 난민지원 20만불(IOM)
- ▶ 2015년 : PRRD(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사업 30만불(WFP), 동부난민센터 지원 20만불(UNHCR)
- ▶ 2016년 : 식량원조 50만불(WFP)
- ▶ 2017년 : 난민 지원 29만불(UNHCR), 인도지원 전반 70만불(SHF), 지뢰제거 2.5만불(UNMAS), 유엔인도지원 비행서비스 100만불(UNHAS, 2017-19 대년도 기여)
- ▶ 2018년 : 국내 피난민 지원 30만불(IOM), 난민지원 30만불(UNHCR)

- ▶ 2019년 : 홍수피해 복구비용 30만불(UNOCHA), 국내 피난민 지원 30만불(IOM), 난민 지원 30만불(UNHCR), 유엔 수단국별공동기금 50만불

## 4 | 문화·학술·체육관계



### 가. 사랑의 마을 건설

- ▶ 1991년 12월 한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사랑의 쌀 1,000톤을 매각, 구입한 양수기 53대 등 농기구를 이용, 수단북부주 Sani 지역에 63만 평방미터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사랑의 마을(일명 : 한·수우호마을)을 건설

### 나. 문화예술단 파견

-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파견한 우리 전통공연단(부산 시립 국악관현악단)이 1995.10.1-2간 수단에서 2회 공연
- ▶ 김향금 전통무용단이 2000.8.12-16간 수단에서 공연
- ▶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음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뷰티플 마인드 공연팀이 2018년 12월 수단에서 맹아, 고아, 암환자들이 관객으로 함께 참석한 단독 자선공연 및 제5회 아시아문화축전 계기 축하 공연 실시

### 다. 태권도 시범단 및 봉사단 파견

- ▶ 2005.5.21-27간 태권도 시범단이 방문한바 있으며, KOICA 사업의 일환으로 태

권도 사범 파견(1991-93년간 1명, 2003-08년간 1명)

- ▶ 세계태권도 평화봉사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세계 각국에 태권도 봉사단을 파견하여 왔으며, 수단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1-2회 태권도 봉사단 파견(4명으로 구성, 2개월간 체류)

### 라. 청소년 교류사업 시행

- ▶ 양국간 청소년·체육교류약정(2004)에 의거 우리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매년 양국 청소년(각기 10명으로 구성)간 교환 방문 시행중

### 마.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

- ▶ 국립대학 아즈하리대학(카르툼 소재)에서 우리의 IT센터 건립(2008년 완공)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어 강좌 운영중
- ▶ 2015년 6월 아즈하리대학 IT센터 1층에 한국코너(Korea Corner) 개설, 운영중

## 5 | 재외국민 현황



- ▶ 2020년 현재, 수단에 체류중인 재외국민수는 약 30명 정도
  - 대사관 직원 및 가족 및 상사 주재원과 가족, 우리기업 관계자, 유엔 기구 근무자 등으로 구성<sup>2)</sup>

2) 우리 선교사 및 가족의 경우 주재국 당국의 불법 선교 혐의 추방 조치로 2012-14년 기간중 대부분 출국

- ▶ 재외국민단체로는 한인회(1980년 창립) 및 한글학교(1983년 개교)가 운영되었으나, 체류 재외국민이 매우 적은 관계로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

## 6 | 한국관련 단체



### 가. 한-수단 친선협회(Sudanese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 ▶ 1978년 3월 1일 한-수단 친선협회 결성, 1989년 6월 혁명정부 조치로 해체, 1991년 9월 친선협회 재결성
- ▶ 주로 한국관련 기업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7월 현재 약 40명의 회원 보유(회장: 기업인 Samir Gasim)

### 나. 수단 태권도협회(Sudanese Taekwondo Federation)

- ▶ 1973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 7월 현재 카르툼 소재 본부 및 카르툼 등 8개 지역 지부로 구성(회장: Abdelhamid Gibreel 전 주한대사)

### 다. 한-수단 의원친선협회(해체)

- ▶ 1984년초경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었으나, 1989년 군사쿠데타로 수단의 국회가 해산된 이후 의원친선협회 해체(복구 추진중)



## 북한과의 관계

1. 양국관계 개관 182
2. 주요 현황 183

## XII

# 북한과의 관계



### 1 | 양국관계 개관



- ▶ 수단의 대북한 관계는 북한 배후의 중국의 태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수단측은 현재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양측은 명목상 우호관계를 유지
- ▶ 수단은 북한과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69-92년간 북한대사관이 수단에 상주하면서 활동하였으나, 평양주재 수단 상주대사관은 미개설
  - 현재 수단의 경우 주중국대사가 북한을 겸임하며, 북한의 경우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수단 겸임
- ▶ 1990년 11월 Al Bashir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을 북한 측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시킨데 이어, 1992년 수단 주재 북한대사관이 폐쇄된 이후, 양국관계는 상징적 접촉에 머무르는 수준

- 2014년 10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여년만에 북한 고위인사로서는 최초로 수단을 방문하였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징적 방문으로 평가

- ▶ 이후 이러한 중립적 태도를 바꾸어, 2016년 11월 Ghandour 외교장관, 2017년 3월 Bilal 공보장관(정부 대변인)은 수단이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였다고 공개 천명하였으며 2018년 6월 수단 외교부는 대북 제재 결의 준수 및 북한과의 군사 협력 단절을 강조하는 성명 발표

### 2 | 주요 현황



#### ▶ 외교관계 연표

1969년 04월 23일	영사관계 수립
1969년 06월 21일	외교관계 수립
1969년 09월 01일	주수단북한대사관 개설
1992년 07월 24일	주수단북한대사관 폐쇄

#### ▶ 주요 인사교류

##### [ 방 수 ]

1977년 01월	정준기 부총리 방문
1978년 05월	강양욱 부주석 방문
1981년 02월	정준기 부총리 방문
1982년 02월	공진태 부주석 방문

1990년 09월 박의춘 외교부 부부장 방문  
 2014년 10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문

**[ 방 북 ]**

1979년 07월 국회사절단 방북  
 1986년 10월 군사사절단 방북  
 1999년 05월 Mustafa Osman Ismail 외교장관 방북

» **경제협력 현황**

- 옴두르만 소재 청소년회관(Palace of Youth and Children) 건립 지원
  - 총 공사비 211만 수단파운드(530만불) 중 북한에서 15% 상당의 건축 및 시설 기자재와 기술공여 제공(북한 건축기사 40명 파견)
  - 동 회관은 900평 대지에 본관, 극장, 영화관, 체육관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7년 6월 29일 완공
  - 현재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으며, 수단정부에서 자체예산으로 리모델링 추진중
- 4개 모범마을 건설
  - 1976년 7월 29일 경제기술교류 의정서에 의거, 70만 수단파운드(200만불)는 무상지원, 80만 수단파운드(200만불)는 무이자 10년 상환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여 상수도, 초등학교, 탁아소를 갖춘 약 200동의 4개 시범마을 건설

» **친북한단체 현황**

- 수단-북한 친선협회가 1990년 10월 등록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
- 그 외 1980년 1월 조직된 코리아 클럽이 있으나 유명무실



수다 카르툼 'Great Mosque'



2019년 반정부시위



## 부록

1. 수단 주요인사 인적사항 188

# 1 | 수단 주요인사 인적사항

## 과도통치위원장

성명	<b>압델파타 알부르한 알라흐만 알부르한</b> (Gen. Abdalftah AlBurhan A.AlRahman AlBurha)	
직함	<b>수단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장</b> (Head of the Transitional Sovereign Council)	
생년	1960년 리버나일주 출생	
학력	수단 육군 사관학교 / 이집트, 요르단 연수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08.21] 수단 통치위원회 위원장</li> <li>• [2019.04] 수단 군사과도위원회(TMC) 위원장</li> <li>• [2019.02] 육군 기무사령관</li> <li>• [2015] 예멘전 파병</li> <li>• [2003] 중다르푸르주 육군 사령관</li> <li>• 주중국 수단대사관 무관 파견 근무</li> </ul>	

## 과도정부 총리

성명	<b>압달라 함독</b> (Abdalla Hamdok)	
직함	<b>수단 과도정부 총리</b>	
생년	1956년생, 남코르도판 출생	
학력	카르툼대학교 학사,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08.21] 수단 과도정부 총리</li> <li>• [2016-18]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사무총장 대행</li> <li>• [2001]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근무</li> <li>• [1997-01] 아프리카개발은행(코트디부아르) 수석 경제정책연구원</li> <li>• [1981-87] 수단 재정경제기획부 근무</li> </ul>	







2020

# 수단공화국 개황

Republic of the Sudan

발간 등록 번호

11-1262000-000271-14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